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10월 31일(음력 9월 21일) 수요일 (주간) 제651 호

“조계종 ‘새 틀’ 짜야할 때”

특별좌담 – 조계종 희망심기 코드는?

조계종의 위기가 거론되고 있다. ‘참회와 자정 결의’ 만으로는 오늘의 총체적인 부실을 극복할 수 없다는 지적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일반인들은 공중파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비쳐진 ‘오염된 불교’가 마치 오늘의 한국불교 전체인양 인식하고 있다. 지금, 조계종은 정치화 · 권력화와 권위주의에 젖어 급박한 사회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위기가 한번은 겪어야 할 위기라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새로운 불교’를 만들어 내는 ‘새틀짜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새로운 불교’는 오늘의 문제를 보다 냉철하게 진단하고 인식하는데서 비롯될 것이란 신념으로 좌담을 마련했다.

▲참석자: 현각 스님(원주 성불원 주지) · 윤세원 교수(인천전문대, 우리는선우 운영위원장) · 김광식 교수(부천대, 불학연구소 연구원)
▲진행: 임연태 본지 부국장

▶임연태: 요즘 불교계가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10월 19일 봉암사에서 ‘봉암사결사 60주년 기념 대법회’를 통해 참회와 자정의 의지를 보였지만, 아직 후속 조치는 이렇다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계종이 작금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원인과 향후 종단이 청정교단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언을 듣고 싶습니다.

▶김광식: 현재 조계종단의 위기는 ‘위기의식이 없다’는 데서 기인합니다. 그동안 아무런 위기의식 없이 현장의 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감각했던 결과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이 났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꺼야할지 알 수 있을 텐데 불이 났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현각 스님: 위기의식이 결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종단 중앙의 스님들은 위기를 덜 느끼고 있을 수 있지만 지방과 포교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재가자들을 만나보면 “스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졌다”고 토로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일부의 목소리로 치부하고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자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윤세원: 20년 전만해도 제가 강의하는 대학의 한 강좌 당 18명 정도가 불자였다면 현재는 2명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위기라 해도 진단이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한국불교의 역사 속에서 초래된 자업자득이 아닐까요? 스님들은 법문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불자들의 전부인 줄 압니다.

▶임연태: 세 분 모두 위기론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절실하게 느껴야할 분들이 중앙에 계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분들이 이번 위기와 직접 연관이 없다 해도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은 어떤 형태로든 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각 스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중들이 따르지요. 이번만 해도 비상사태까지 생각해야할 시점에 총무원의 일부 부장을 교체하고 그친 것은 과거의 답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한된 인맥에서 보직을 순환시키는 것을 보면

종무기관 ‘위기 불감증’ 만연
승가사회 ‘소통 불능’도 문제
참회 이어 ‘구체적 대안’ 필요

위기불감증이 너무 만연된 것 아니겠습니까?

▶임연태: 봉암사 결사에 중앙종회의원 80명중 30여명만 참석했다는 사실도 불감증의 만연을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땅이 젖었다는 이유로 ‘참회의 10배’를 하지 않고 합장 반배만 한 것도 그렇고요. 봉암사 법회가 일회성 이벤트로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김광식: 이번 대법회는 외부의 충격에서 방어적인 논리와 성찰을 보이려는 이벤트성격이 짙습니다. 구체적인 진단과 대안 없이 “부처님 뜻대로 못살았다” “무조건 참회 한다”는 진단은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상세한 진단과 구체적인 대안이 따라야 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을 내려야 치료를 하든지 수술을 시키든지 할 것 아닙니까.

두 가지로 진단해 보자면 1954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는 정화이념이 지배했습니다. 정화운동은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초로 넘어오면서 계승되지 못하고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를 했지요. 여기서 현 위기 상황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정화운동의 정신이 계승되지 못했습니다. 둘째, 1980년대 초반부터 종단개혁의 목소리(불교의 사회화, 민주화)가 있었고 1994년 개혁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최근 10여 년간 이 역시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화의 이념이나 수행성을 내세우지 않으면 노장스님들의 공감을 구할 수 없고, 현재 개혁의 틀을 부정하면 중진스님들의 공감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이 필요합니다.

▶윤세원: 김 교수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승가, 재가를 막론하고 불교계는 삶의 현장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재가를 예로 들면 지나치게 기복에 치우쳐있습니다. 현재 불교는 절 안에서만 존재하지 절 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정치권력과의 유착 관계는 지양해야할 과제입니다. 최근의 뉴스 보도로 삼보중 하나인 승가가 마치 권력에 빌붙어 돈이나 뜯어먹는 범죄 조직처럼 비춰지고 있질 않습니까? 절집에서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데 그것도 결여돼 있습니다. 사회적 인재 양성도 하지 않고 수행자를 키우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한국불교 현재의 모습입니다.

▶현각 스님: 드러난 현상을 놓고 사람마다 여러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승단과 관계된 현상의 내면은 경험자가 아니면 알 수 없지요. 때문에 승단 안에서 터트려줘야 하는데 현재 종단이 그러지 못함은 너무 아쉽습니다. 승가구조 내의 소통이 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안거를 하면 3분의 1시점이 됐을 때 스님들끼리 문제를 제기하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다가 안거를 깨고 선원을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수행에 대한 애정과 치열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안거에 들면 한 명도 떠나는 이가 없습니다. 설사 문제를 인식하더라도 제기하는 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수행에 대한 애정과 치열함이 그만큼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승단 자체가 그만큼 무기력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예로 <평화수업>이라는 책을 보면 “평화는 인류역사상 줄곧 주장했으나 평화로 해결되는 법을 배우기는 쉽지 않다”란 구절이 나옵니다. 현재의 불교 위기는 불교가 배우지 못하고 내던져진 시절 때문이라고 봅니다. 전체승가집단에 교육의 시간이 적었고 혼란기를 거치며 벙어리가 되어 굳어졌습니다. 권력과 돈을 이야기하지만 승가사회도 결국 사바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사회에서 재가자들이 보고 바라는 승가생활은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2면에서 계속>



조계종 첫 비구니 명사(明師) 법계 한국불교 사상 최초로 비구니 명사(明師) 7명이 탄생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10월 23일 합천 해인사에서 혜운 스님(前 운문사 주지)을 비롯한 비구니스님 7명에게 명사법계를 품서했다. 명사는 비구니스님에 대한 최고의 법계로, 수행력과 지도력의 상징이다. 이날 혜운 스님을 비롯해 광우 스님(前 전국비구니회장) 묘엄 스님(봉녕사 승가대학장) 지원 스님(금련사 주지) 명성 스님(전국비구니회장) 정훈 스님(영화사 주지) 정화 스님(前 견성암 선원장)이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으로부터 명사 법계를 품서 받았다. 지원 스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품서식에는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해 비구니명사 품서를 축하했다. 합천 해인사/글 · 사진=박재완 기자

백제시대 사리장엄구 발굴

사리기 봉안수법 확인…귀금속·장신구 등도 발견

백마강에 위치한 백제시대 목탑지에서 사리기가 봉안된 사리장엄구가 발굴되었다.

김용민 소장(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은 10월 24일 부여 왕흥사지 제8차 발굴조사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번 발굴로 사리기의 봉안수법과 목탑 심초부 조성에 대한 새로운 기법이 확인됐다”며 “사리장엄구를 비롯해 사리함에서 왕흥사 창건(577년)과 관련된 명문기록이 확인됐고, 사리구를 포함한 백제시대의 귀금속 및 장신구 등 다량의 진단구가 출토됨으로써 당시 공예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발굴 의의를 전했다.



왼쪽부터 금제사리병, 은제사리병, 청동사리함.

사리함(높이10.3㎝)은 장방형 심초석(100×110㎝) 남쪽 끝단에 16×12×16㎝의 크기로 마련된 사리공 내부에 단면 사다리꼴의 화강암 뚜껑에 덮여 봉안돼 있었다. 재질은 청동으로 원통형 동체에 보주형 손잡이가 부착된 볼록한 뚜껑을 덮었다. 함 내부에는 다시 은제사리병(외병)을 봉안했고 이 은제사리병 안에 다시 금제사리병(내병)이 봉안돼 있었다. 실제 사리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명문은 사리함 동체부에 5자6행의 음각체로 ‘정유년 2월 십오일 백제왕 창이 죽은 왕자를 위하여 절을 세우고 본래 사리 두매를 묻었을 때 신의 조화로 셋이 되었다’고 적혀있다. 이 기록을 통해 왕흥사의 실제 축조연대가 577년(위덕왕24년)이라는 것과 위덕왕이 597년(위덕왕44년) 일본에 사신으로 보낸 아좌(阿佐)태자 외에 또 다른 왕자를 두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발굴로 백제 문화의 우수성이 다시금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조동섭 기자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100%천연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옻이 오르지 않고 참 옻의 약성을 섭취하는
❖산사 참 옻 조청
1.2Kg – 현 시세
❖산사 약도라지 조청
1.2Kg – 현 시세
불자님들을 위한 정성 산사조청원
주문처 054-373-3166
입금계좌 : 농협 727077-52-056761(예금주:현순희)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206호(평촌역 도보 5분)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김택선 변호사)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 후보자 선출 공정 선거를 위한

공동 결의문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하여 오는 10월 31일 마곡사 산중총회가 개최됩니다. 마곡사에서는 전임 주지 후보자 선출 과정과 교구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고, 결국 전임 주지스님이 사법부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마곡사는 물론 조계종단 전체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명예가 실추되는 어려움을 겪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번 마곡사 주지 후보자 선출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성을 기하고 종헌 종법을 준수하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후보자를 비롯하여, 교구 본사 종무소, 중앙과 교구의 선거관리위원회, 총무원 등 관계자들의 강력한 공정선거 의지가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마곡사 주지 후보자 선출에 있어 관계자와 관계기관 모두는 종헌 종법에 따라 적법하게 임할 것이며, 어떠한 부정과 탈법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합니다. 선거 관리 관련 기관은 공정 선거를 위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이를 어길 시 의법 조치할 것이며, 입후보자는 상호 비방과 부정 · 탈법 행위를 하지 않고 선거 결과에 절대 승복할 것임을 결의합니다.

이번 마곡사 주지 후보자 선출 과정을 통해 조계종단과 마곡사의 신뢰를 회복하고 종도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정 선거의 모범을 보여 줄 것임을 다시 한 번 결의합니다.

불기 2551(2007)년 10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원학 호법부장 서리 정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도공 제6교구 선거관리위원장 혜원 마곡사 주지 직무대행 덕상
마곡사 주지 입후보자 양산 · 무일 · 법용 · 원혜

대선 후보들 '佛心잡기' 본격 시동

정동영·문국현 후보 등 법전· 지관 스님 잇단 예방

대선 후보들의 불심잡기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와 (가칭)창조한국당 창당을 준비 중인 문국현 대선 후보는 10월 22일 잇달아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지관 스님은 후보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바른 정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두 후보는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하고 불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불심잡기에 나섰다. 이에 앞서 10월 11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수성 국민연대 대표도 18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정동영 후보가 10월 25일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을 예방했다. 정 후보를 반갑게 맞이하는 법전 스님(왼쪽).

정동영 후보는 10월 24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종교편향정책 시정 △남북공동 불교 문화재 복원 지원 △전통사찰 지정과 문화관광 사찰 육성 △국제불교문화센터 건립 지원 △범패 등 불교문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원 △문화재위원회 및 방송위원회 내 불교계 인사 증원 등 불교관련 공약을 소개했다. 25일에는 합천 해인사를 방문해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법전 스님은 '화합정치'를 강조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화합이고 둘째가 경제, 셋째가 안보인데, 이를 바탕으로 국가를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여수령 기자

"공정·투명 선거 치르겠습니다"

마곡사 주지후보 출마자 서약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치를 것을 약속합니다."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후보 출마자들이 10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앞에서 공정선거를 서약했다. 주지후보에는 양산(前 총무원 사회부장) 법용(보령 선림사 주지) 무일(논산 쌍계사 주지) 원혜(前 봉은사 주지) 스님이 등록했다.

출마자들은 이날 공정선거 이행 서약서에 서명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이행 △상호비방을 하지 않고 합법적이지 않은 수단을 동원하지 않을 것 △선거 결과에 절대 승복할 것 △종무 행정 기관의 결정과 지침에 따를 것 등을 결의했다.

총무부장 원학 스님은 "그간 제기됐던 마곡사 선거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불식시키고 종단 선거풍토의 새로운 전환기로 삼겠다는 뜻에서 출마자들이 이행 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이번 서약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부정한 일이 발생할 시 총무부장을 사퇴한다는 각오로 철저한 책임의식을 갖고 선거에 치러낼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양산 스님은 출마 소감을 묻는 질문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수년간 누적되어 온 마곡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법용 스님은 "사부대중이 화합하는 사찰로 만들겠다"고 말했고, 원혜 스님은 "사부대중이 다 함께 힘을 합해 고쳐나가고 기도와 포교의 도량으로 일구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곡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혜완)는 10월 31일 오후 1시 마곡사 연화당에서 주지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이념 정립 절실"

<1면에서 계속>

▶윤세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불교가 농경시대부터 정착돼왔습니다. 사회는 농경시대-산업화시대-후기산업화시대-현재 정보화사회를 거치면서 발전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승가는 1600년 전통만 강조하다 보니 농경사회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식: 세간에서는 조계종단에 대해 자정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정능력은 불법과 종헌종법, 시스템등이 조화된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종단에는 기존의 관행만 존재할 뿐 그 이상이 없습니다. 또 자자 포살, 합의운영 등의 전통적 시스템은 있으나 현재로선 유명무실합니다. 조화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큰스님(선지식)이 계셔서 종단과 교구본사의 중요사에 발언 하고 인정 하는 관행과 틀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현재는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아무도 큰스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즉 어른들의 의견에 힘이 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총무원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로 치면 결재를 하는 책임 있는 자리지만, 권위가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말하면 따라줘야 하는데 현장에서, 대중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종헌종법도 따르지 않습니다.

▶현각 스님: 이런 모습들에 어떤 부분은 무감각, 또 어떤 부분은 자기합리화를 위해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일반적 강요만으로는 절대 변화돼지 못합니다. 돌아가자고 해서 돌아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젊을 때에는 조석예불을 의식으로 생각해 했지만 나이가 들어 요즈음 예불 할 때에는 가슴에 전해지는 것이 다릅니다. 예불 하는 목적이 충분히 마음속으로 공감이 돼서 경외심이 생겨납니다. 이 처럼 어떤 제도나 의식도 모두가 공감하고 느낄 때 변화하게 됩니다.

▶임연태: 얼마전 'PD수첩'을 통해 선거제도가 문제의 온상으로 비춰졌는데 대안은 없는지요?

▶현각 스님: 왜 권력과 금전 중심으로 가는가의 원인을 살피면 결국 그것이 궁핍하다는 것입니다. 출가자가 그런 것들에 기생하지 않으려면 생존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 돼야합니다. 단정 지어 말하면 노후가 보장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지가 돼야 그것이 해결되니까 어떻게든 주지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주지로 당선되면 권한과 이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김광식: 의료대책, 노후대책 등의 보장 특히 수행이력에 걸 맞는 보장을 통해 수행자가 대우받는 풍토가 절실합니다. 선거제도는 종단 문제의 핵심입니다. 종정, 총무원장, 교구본사, 종회의원 등 종단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선거에 금전이 개입된다는 소문이 만연한 것이 현실입니다. 범종단적 차원에서 일회성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개혁에 대한 민주적 콜로세움을 개최해서 중지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매번 어떤 사안에 대해 종회의원 중심으로 특별위원회 3~5인 을 구성해 단발성으로 논의해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현각 스님: 적어도 향후 10년간 이 문제들을 다룰 기구들이 조직돼야 합니다. 선거제도의 문제는 선거공영제로 해결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제도개혁의 일환으로 간선제, 소수 추천을 내놓기도 했지만 이것은 다수냐 소수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아예 부정한 방법을 못 쓰게 전원 직선제로 해야 합니다.



왼쪽부터 현각 스님, 윤세원 교수, 김광식 교수

선거공영제 도입 등 변화 필요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시급
장기적인 대책기구 설립해야

▶윤세원: 무차별적인 직선제는 문제입니다. 대학을 예를 들면 하버드대의 경우 총장직선제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교수가 만일 40대 초반에 하버드 총장이 되면 20년 넘게 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예일대는 콘클라베와 같은 교황선출 방식으로 총장을 뽑습니다. 선거가 필요하다면 불교적으로 폐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대안으로 수행부분은 승가가 전임하고 종단 일반적인 상황은 재가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광식 교수: 선거 문제는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원융살림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융살림에 대한 이론과 시스템의 자율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신흥 도심포교에 성공한 사찰을 보면 포교일선은 스님이, 사찰운영은 재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합니다. 하지만 재가자, 재가단체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윤세원: 현재 학생들에게 조계종에 대해 물으면 돌멩이를 연상할 만큼 이미지가 부정적이고 비관적입니다. 불자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 불교 이미지는 너무 실추돼있습니다. 최근 상황에는 단기적 대응 외에 장기적 대응책으로 승가교육을 다양하게 시켜야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시대흐름에 맞는 승가육성이 필요합니다. 지계의 힘과 시대의 바른 이해가 있을 때 승가가 건강해집니다.

▶현각 스님: 선원, 강원 등 현재의 승가 교육제도는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좋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잘 살린다면 분명 희망은 있습니다. 승가가 동일한 목표를 갖고 변화하면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에서 대안을 찾아야 함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지요. 단지 그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연속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임연태: 종단내 대책기구 설립, 승가교육제도 정비, 인재 육성 모두 행정기구의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는 일 같습니다. 현재 총무원 살림을 보면 총무원이 전체예산의 3분의2 가량을 사용하고 나머지 3분의 1을 승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원과 재가포교를 담당하는 포교원이 나누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총무원을 축소하고 포교원을 키우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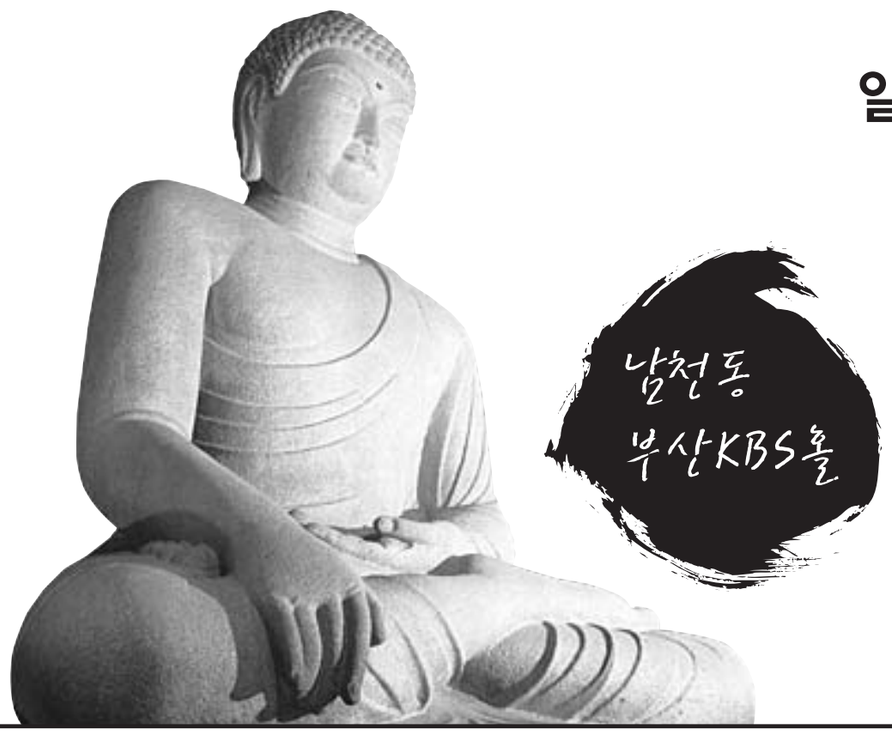
▶윤세원 교수: 종단 구조조정의 방법론에 있어 젊은 취향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 돕거나 아니면 재미있게 하거나 이 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 이런 것은 호응을 주지 못합니다. 인력과 프로그램 계발이 필요함은 공감하나 현재 분위기로 제도적 뒷받침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조계종단의 개혁을 위해서는 다른 방면의 재가자(인재)를 수용해야 합니다. 승가와 재가를 통합한 교단능력의 극대화가 필요합니다.

▶임연태: 정리하자면 선거제도의 이해당사자 안에서의 변화를 도출할 수 있는 여론의 집단압력화 구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정화와 개혁을 잇는 2007년 시점에 맞는 새로운 이념이 절실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사부대중이 동참해 종단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기구의 필요성도 제기 됐습니다.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리=조동섭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제8회 팔관회 및 불자단결을 위한

불·교·수·호·대·법·회



일 시 : 불기2551(2007) 11. 6.(화) 오후2시

◎ 식전행사 : 영산대재
□ 불자연예인 및 명사초청 '불교신행체험담'
□ 팔관재계 수계법회
□ 불교수호와 불자단결을 염원하는 '촛불서원제'
□ 화합과 단결의 대동한마당 '다함께 하나 되어!'

※팔관회는 FM89.9MHZ 부산불교방송에서 생중계됩니다.

주 최 : 사)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Tel. 051)867-0501 www.bba.or.kr
후 원 :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부산불교실업인회/부산불교지도자포럼/BBS부산불교방송 外 교계 각 언론

"10·27 법난 월주 스님·신군부 갈등 탓"

국방부 과거진상규명위, 조사결과 발표
"전두환 前 대통령 전후상황 보고 받은 듯"

"1980년 10월 27일 조계종스님 등 153명을 강제연행하고 전국 사찰 및 암자 5731곳을 일제 수색했던 '10·27 법난'은 전두환 대통령이 전후과정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신군부세력과 갈등관계인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서 비롯됐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10월 25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10·27법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의 성과는 불교계 정화 수사계획(45계획) 원본과 실무대책반이 작성한 문서를 발견했다는 것"이라며 "국민 및 대다수 불교신자들은 과장 왜곡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사실로 받아들여 그 이후 지속적으로 불교계를 비리의 온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심각하게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설명했다.

■월주 총무원장 부정적인 평가에서 법난 비롯돼=과거사위는 법난이 신군부세력에 비우호적인 조계종 월주 총무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980년 2월 문공부는 1977년 6월부터 1979년 10월까지 조계종 내의 종권 다툼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수습 중재활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당시 주지인 월주 스님을 중심으로 한 개운사측 스님들이 사회민주화세력과 연합해 저항불교 세력으로 변화될 것을 우려해 강한 경계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런 당국의 우려와는 달리 불교계는 같은 해 3월 30일 조계종 내의 양대 분규세력 대표자들이 종단불화사태 종식에 대한 합의서약을 이끌어내고 4월 26일 제6대 중앙종회에서 월주 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선출했다.

■합동수사단, 1980년 9월부터 사회정화 차원서 종교계 수사 준비 착수=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는 1980년 6월경 '3단계 사회정화계획'을 추진했으며, 10월 불교계 숙정을 계획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진정 및 투서횟수나 그 내용과는 관계없이 사회정화 차원에서 종교계 중 하나인 불교계를 수사한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국보위로부터 지시받은 합동수사단은 공권력을 동원해 10·27 수사를 개시했을 때 발생하게 될 불교계의 종무마비 사태를 대비해 실무대책반을 구성,3단계의 수습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월주 스님, 총무원장 사퇴 강요당해=10월 27일 새벽부터 연행대상 69명 가운데 45명이 체포돼 서울 보안사 서빙고분실과 각 지역보안부대에서 조사를 받으며 혐의 인정을 강요받았다. 이어 당시 맡고있던 직책의 사직도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빙고분실로 연행된 월주 스님은 자신에 대한 투서 내용을 근거로 취조를 당했으나 담당수사관은 허위투서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합수단은 월주 스님에게 총무원장 사퇴서를 강제로 받았다.

■전두환씨 법난 전후사정 보고받았을 가능성 높아=전두환 前 대통령은 1989년 12월 31일 국회 5공 청문회 증언에서 10·27 법난 사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80년 12월 11일 박기종 당시 정화중흥회의 의장 등 승려 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문답형식의 대화를 나눈 면담자료는 전 前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과거사위는 설명했다.

■스님들 강제연행 및 고문 자행=수사기관에 연행된 스님들에게는 무릎을 꿇게 한 상태에서 각목을 집어넣고 무릎 누르기, 새끼손가락에 볼펜을 끼워놓은 상태에서 조이기, 잠 안재우기, 코와 입에 고춧가루와 빙초산 섞은 물 붓기, 물고문, 전기고문 등 온갖 가혹행위가 자행됐다.

한편 이번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조계종 '10·27 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지위원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치유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도 △대통령의 정중한 사과 및 10·27특별법제정 촉구 △한국불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 요구 △종단의 10·27 법난에 대한 피해현황 파악 촉구 등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주일 · 여수령 기자



염규홍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장(사진 맨왼쪽)이 10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10·27 법난'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관음사 직무대행에 시몽 스님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10월 24일 제23교구본사 제주 관음사 주지 직무대행에 시몽 스님을 재임명했다. 시몽 스님은 "두 번에 걸친 직무대행 임기 동안 정상화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많은 신도들이 관음사 정상화에 동참하고 있으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에는 덕조 스님(경산 하양포교당 주지)이 임명돼 10월 22일 임명장을 받았다.

여수령 기자


'일일명예역장 체험행사'에 참여한 석연 스님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는 10월 25일 서울메트로가 개최한 '일일명예역장 체험행사'에 참여했다. 조계사 포교국장 석연 스님은 서울 · 경지지역 102개 역 중 스님으로서는 유일하게 명예역장에 임명돼 매표소 발권 봉사, 질서유지 캠페인, 장애인 · 노약자 승차 도움, 차 나누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글=여수령 기자·사진=박재완 기자

진공청소 · 물걸레청소 · 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제품 구입
1588-7402 인터넷 검색창에 마미로봇
Mamirobot Intelligent Home Robotics KM (주)경민메카트로닉스 www.mamirobot.co.kr
₩275,000(소비자가격) 입금계좌:기업은행 018-072448-01-015 [예금주:장승락]

템플스테이 성공 열쇠를 찾아서…

조계종 템플스테이 운영자 해외연수
4일간 태국 대표적 명상센터 등 순례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10월 17~21일, 5일간에 걸쳐 태국의 불교대학과 불교유적, 명상센터를 순례하는 템플스테이 운영자 해외 연수를 실시했다. 남방 불교의 전통을 간직한 채 오랜 역사 속에서 유구한 불교문화를 꽃 피운 태국의 선진적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과 시설들을 둘러보며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한국 템플스테이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보기 위해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마가 스님을 단장으로 한 40여명의 템플스테이 운영자들은 국민들의 신심과 수행을 고취시키기 위해 세운 붓다몬톤과 대표적 불교대학인 쫄라롱껀 대학을 견학한데 이어 스님과 신심 깊은 불자들이 함께 일궈낸 태국의 대표적 명상센터 왓 마혜용과 왓 탐마까야를 방문했다. 120만 평의 규모의 붓다몬톤은 숲과 호수, 절이 어우러진 한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운 곳으로 위빠사나를 비롯해,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1418개의 팔리어 석경이 모셔진 곳으로 국민들을 불교의 품안으로 이끌고자 하는 태국 왕실의 깊은 신심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또 태국 최고의 왕립 불교대학인 쫄라롱껀 대학은 팔리어 패엽경이 보관된 도서관과 기숙사, 1만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강의동을 갖추고 태국어 코스와 영어 코스를 따로 운영하는 등 선진화 된 태국 불교의 현재를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순례의 하이라이트는 태국의 대표 명상센터인 왓 마혜용과 왓 탐마까야였다. 왓 마혜용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탐분(보시)으로 운영되는 명상센터로 노천 수행을 위한 아름다운 숲과 대법당, 호수 위의 수행처, 대나무로 조성된 숙소 등 단촐하고 군더더기 없는 수행 시설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이틀에 한번씩 진행되는 개인별 수행 점검은 이곳을 태국 최고의 명상센터로 이름을 알리게 한 자양분이 됐다.

왓 마혜용이 태국의 불자들 중심의 명상센터라면 왓 탐마까야는 전 세계가 그 대상이다. 왓 탐마까야 앞에 따라붙는 '세계 최대'라는 수식어처럼 규모와 시설, 참가자 수 모두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명상센터는 1970년대 태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쫄라롱껀 대학과 탐마대학의 졸업생 10명이 뜻을 모아 한국돈 10만원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지금, 센터의 부지는 1만9000평에서 120만 평으로 늘었고 100만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수행관을 건립하고 있다. 또 전 세계 50개국에 분원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위성방송을 통해 미국과 중국, 유럽과 아시아까지 자국의 언어로 왓 탐마까야의 명상법을 익히고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해외 연수에 동참한 보성 대원사 현장 스님은 "세속에 있되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러면서도 가장 선진적으로 불자들에게 다가가는 태국 불교의 모습이 우리 템플스테이의 나아갈 방향임을 확신하게 됐다"고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관련인터뷰 8면>

태국=글/사진 공동취재단

I Love Buddha / 인과의 법칙

용정운(www.zentoon.com)



2,600년 만에 완벽하게 복원한 붓다의 6단계 정통 수행법

깨달음에 이르는 붓다의 수행법



누구든지 이 길을 따라가면 붓다의 경지에 이른다

《불설대안반수의경》에는 수數 · 수隨 · 지止 · 관觀 · 환還 · 정淨의 여섯 가지 수행관문이 체계적으로 시설되어 있다. '유일한 길' 혹은 '성스러운 길'이라 부르는 이 붓다의 정통 수행법은 오랜 세월 속에서 파편화되어 오늘날 북방 대승불교권에서는 싸마타를, 남방 근본불교권에서는 위빠싸나를 위주로 한 수행법이 정착하게 되었다. 이 책은 붓다 입멸 후 흩어지거나 잊혀졌던 수행법들을 다시 모으고 복원하여 일관되고 완벽한 수행 시스템으로 재해석, 재조직한 것이다. 이로써 인류가 문자를 만들어 책을 펴내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붓다의 수행법이 온전하게 복원되기에 이르렀고, 한국 불교 1,6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정통적인 붓다의 수행법이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깨달음에 이르는 붓다의 수행법》은 2,600년 불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저작으로 꼽히는 붓다고사의 《청정도론》에도 언급되지 않은 싸마디(삼매)를 성취하는 수행법, 싸마타와 위빠싸나를 함께 닦는 지관병수 수행법, 깨달음에 이르는 '도道의 명지明知'를 성취하는 방법 등을 실천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붓다의 여섯 단계 수행법 중에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환還'과 '정淨'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수행법을 밝혀놓았을 뿐 아니라 그 바탕이 되는 이론체계를 정립함으로써 불멸佛滅 후 2,500여년 만에 비로소 불교 수행법을 완벽한 시스템으로 재탄생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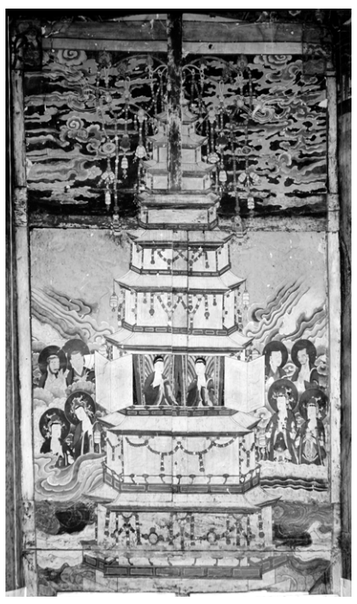
무산본각 지음 | 전2권(각권 18,000원)

무산본각 이용현

(주)선경 테헤란 지사장과 주駐이란 한국상사협의회장을 역임한 저자는 이란-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무렵 테헤란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귀국하여 수행자가 되었다. 어느 날 새벽 '야반삼경목계성夜半三更木鷄聲'이라는 말에 문득 공안을 타파하였으나, 곧 참된 경계가 아님을 깨닫고 재발심하여 호흡 공부부터 다시 수행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싸마타와 위빠싸나를 함께 닦는 정통적인 붓다의 지관쌍운 수행법을 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온전하게 복원하고 체계화한 그는 현재 목포의 마음닦기선원에서 붓다의 가르침을 전수하고 있다.

tel 02) 3143-0383 · 0338 fax 02) 3143-0378 유토피아

韓·日 합심으로 되살린 통도사 다보탑벽화


복원작업을 마친 후 공개된 통도사 영산전 다보탑 벽화.

국내최초 전통아교 사용 균열·훼손 복원

<법화경>에 나오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여래를 표현한 유일한 회화작품인 통도사 영산전 다보탑 벽화가 한 · 일(韓日) '화합'의 힘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 복원작업은 2004년 일본 강고지문화재연구소의 한 관계자가 통도사를 방문해 다보탑 벽화의 복원을 제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05년부터 시공 계획을 세우고 본격 돌입한 한국과 일본의 공동 수복작업은 올해 10월 8일 완료됐다.

1714년 중건한 통도사 영산전 다보탑 벽화는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았으나, 300년이 지나면서 낡고 금이 가 수시로 안료가 떨어지는 등 그림 아래 부분 손상이 심해 문제가 됐었다. 다보여래에 관련된 성보문화재는 회화작품인 영산전 벽화를 제외하면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뿐이어서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나다.

훼손이 심한 벽화 보존을 위해 시행된 수복공사는 국내 최초로 전통아교를 사용했다. 아교는 벽화의 결손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안착시키는 재료이다. 그동안 화학아교로 진행된 국내 벽화 보존 작업은 색이 변하고 수명이 오래가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일본 강고지문화재연구소의 전통아교 제작기술을 지원 받은 복구팀은 전통아교를 만들어 벽화가 떨어지려는 부분의 안쪽에 주사기를 통해 발랐다. 전체적으로 전통아교를 10회 이상 입혀, 떨어지려던 채색층이 제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색상이 눈에 띄게 밝아졌다. 미세한 균열과 박락 부분도 깨끗이 정리됐고 훼손이 심했던 아래 부분도 말끔히 정리됐다. 드디어 300년 전 다보탑 벽화가 한 · 일 화합의 힘으로 되살아 난 것이다.

벽화는 높이 4m, 폭 2.3m의 크기로 영산전 안 서쪽 벽을 가득 채우고 있다. 벽화의 중심에는 풍경과 구슬장식을 매단 구층탑이 우뚝 서 있고 탑의 3층 내부에는 <벽화경> '견보탑품'에 나오는 석가여래와 다보여래 두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있다.

탑 주변에는 보살상과 제자상이 시립(侍立)해 있다. 탑문이 열린 내부로 2여래(二如來)가 병좌했으며 탑 둘레는 온통 영락과 풍경장엄이 펼쳐져 있고, 하늘에는 오색구름이 휘날려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 신용철 학예실장은 "영산전 벽화의 사례로 문화재보존수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통도사는 영산전 서쪽 외벽화의 1차 보존 처리 외에 영산전 내부 포벽화도 3년 간 연차적으로 보존 수복할 계획이다. 또한 11월 1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화재보존수복에 사용하고 있는 아교의 특성에 대해-아교를 만들고 아교를 알아보자'라는 제목으로 특강한다. (055)382-1001

하성미 기자



봉화 축서사 보탑성전 낙성식

적멸보궁 백일 기도 봉행도

봉화 축서사가 11월 10일 오전 11시 보탑성전 낙성식 및 제불보살 점안 적멸보궁 100일 기도를 봉행한다.

축서사에 건립된 보탑성전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사리탑을 위한 전각. 사리탑은 기단의 길이 7.3m, 높이 15.5m의 5층 아(亞)자형 한옥식 석탑이다. 사리탑에는 2003년 8월 축서사 괘불탱화가 보물 제1379호로 지정되었을 때 괘불 복장낭에서 발견한 부처님 적(赤)사리 2과를 봉안했다. 이와 함께 이삼순 보살이 미얀마 사야도 바탄다 카이티 와라 사리박물관에서 기증받은 석가모니 진신 정골사리(불두사리) 108과와 응혈사리 및 부처님 십대제자 사리를 같이 봉안했다.

한편 같은 날 보탑성전 낙성 기념 제1회 적멸보궁 백일기도를 입재한다. 보탑성전에서 무여 스님을 모시고 4분정근 기도를 봉행하게 된다.(054)672-7579 강지연 기자

"달라이라마 명상법 배워보세요"

한국티벳센터 제1기 명상아카데미 개원

달라이 라마가 추천한 한국인에게 맞는 명상법은 무엇일까?

까말라씰라(Kamalaśīla, 蓮華戒, 740~795)의 <수습차제(修習次第)>를 바탕으로 한 명상법이다. 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한국티벳센터(주지 소남)는 달라이 라마가 추천한 명상법을 가르치는 제1기 명상 아카데미를 개원한다.

11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열릴 명상 아카데미는 '고통을 줄이고 행복으로 이끌어 주는 명상의 첫 단계'에 대해 설명한다.

<수습차제>는 인도의 고승 까말라씰라가 전한 대승의 주옥같은 법어들을 모은 책 <곰림(Gom Rim)>을 번역한 것이다. 상 · 중 · 하 세 권으로 구성된 <수습차제>는 단문으로 정리돼 읽기 쉽다.

광대한 대승의 심요(心要)를 빠짐없이 가려 모으고, 수행의 차제를 정연하게 정리해 대승보살의 수행의 바른 길을 여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특징. 티베트에서 저술된 모든 수행 지침서들의 어머니라 불리는 귀중한 책이다.

소남 스님은 "수습차제 상 · 중 · 하 3편 가운데 중권으로 명상모임을 이끌 계획"이라며 "보리심을 위한 '8단계 수행 단계'를 설명하는 이 명상법을 통해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051)243-2468

하성미 기자

현대불교 후원 : (국민) 038-25-0008-365 예금주 : 에이치비엠씨

수미산 아미타도량 '원효센터' 문 연다

11월 2일 개관식 개최



현대적 디자인으로 꾸며진 원효센터는 <대승기신론> 연구와 더불어 신행포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 될 예정이다.

왜 깨달아야 하는지 근본 뿌리부터 논리적으로 알고자 하는 수행자들을 위해 원효센터를 건립한 공파 스님(원효센터 주지)은 "수행을 하기 위해 가야하는 곳, 수행자들이 모여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는 장소"라고 건립 취지를 설명한다.

부산 수미산 아미타도량 원효센터가 11월 2일 오후 8시에 개관식을 연다. 원효센터는 <대승기신론 해동 소 · 별기>만을 연구하고 논리적인 설명으로 심층연구를 하는 공간이다.

공파 스님은 앞으로 원효 스님에 대한 자료를 수집, 연구 번역해 책으로 출판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포럼을 열고 <대승기신론>을 배운 회원들이 신행에 대해 연구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학문을 위해 <대승기신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고 나면 신행을 해야 하지요. 저희 원효센터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장엄하게 가꾸도록 장엄염불 시간을 마련하여 신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승기신론>을 배운 분들은 학문으로 그 공부가 마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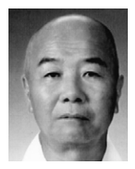
공파 스님은 원효센터를 개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세련된 갤러리 같은 모습으로 꾸며진 '원효센터'를 공파 스님은 "고정적인 절의 개념에서 벗어나 현대인과 젊은이들을 위해 새롭게 구성한 건물이다"며 "세상사는 법을 알고 인과에 의한 철저한 믿음, 이것이 불교이니 젊은이들이 처음부터 원인을 잘 심도록 도와주고 좌표를 잡아 주기 원해서 이렇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원효센터는 현재 6기 회원을 모집 중이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강의가 진행된다. (051)611-3808

하성미 기자

안동 동인사 첫삽

서응 스님 기공식서 법문



안동 동인사(주지 운봉)가 10월 21일 건립기공식을 열었다.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원효종 대구교구 종무원장 서응 스님(사진)은 "보살의 수행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육바라밀이고 그 첫째가 보시바라밀이니 즉, 재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재물을 주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법을 베풀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위안과 용기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한없이 베풀면서도 조건을 내세우거나 보답을 바라지 않아야 하며, 베풀었다는 생각마저도 갖지 말아야 한다"고 법문했다.

또한 "오늘 기공식에 참석하신 사부대중께서는 보살의 육바라밀행을 성취키 위한 수행처가 되는 훌륭한 가람을 세워 깨달음의 대풍년 추수를 거두자"고 강조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팔관회, 불교수호대법회로

해마다 부산 광안리를 장엄한 연등으로 뒤덮으며 불교문화를 알리던 팔관회가 '불교수호대법회'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11월 6일 오후 2시 부산 남천동 KBS홀에서 열리는 '불교수호대법회'는 고산 스님 초청 팔관수계법회, 소구소망을 발원하는 촛불서원제, 국태민안발원 영산대재, 불자 연예인 전원주 초청 불교 신행체험담 발표 등으로 꾸며진다. 또 대동한마당 '다함께 하나 되어!'를 통해 불교 수호에 대한 의지를 다진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성) 측은 "'팔재계' 수계를 통해 안으로는 자성하고 밖으로는 불자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불교 수호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자 한다"고 개최 동기를 밝혔다. (051)867-0501

하성미 기자

공 고

단체명 : 사단법인 한국불교 단체 총 연합회 **등록허가처 : 문화관광부** **법인설립허가번호 : 문광부 제141호 · 허가일자 : 1994년 2월 3일**

(사) 한불총 연혁

1987. 11. 23 : 호국불교운동 총연합회
(불교18개 종단 총무원장으로 결성)
1988. 6. 10 : 불자국회의원당선자96명 당선축하법회(전경련회관)
9. 10 : 한국불교도 총연합회로 개칭
1990.12. 12 : 제1대 이외윤회장 취임(동국대학교 교수)
1991. 1. 28 : 제2대 이병호회장 취임(변호사)
1992. 1. 4 : 남북통일 기원 대법회
(한국불교 종단협의회와 공동주관)
1993. 1. 27 : 제3대 김명윤(변호사)회장 취임
1993. 1. 27 : 전국신행단체 연합대법회(전국50여 신행단체 참석)
1994. 2. 3 :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개칭
문화체육부 허가 제38호 사단법인 인가
1994. 3. 10 :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 인가
축하법회(1,500명 참석)
1999. 7. : 제4대 김용래회장 취임(전 서울시장)
1999.12. 17 : 제4대 문홍주박사 (임기 잔여기간)
2000.11. 4 : 제5대 김기석회장 취임(전 청와대 비서실장 역임)
2002. 4. 27 : 제6대 이외윤회장 취임(김기석회장, 국회의원당선)
2005. 2. 25 : 제7대 심완석회장 취임(건설회사, 대표이사)
2007. 7. 10 : 제8대 강호문 대표이사장 선출
(대한불교불이종 총무원장)
2007. 9. 29 : 사무실(210평) 부산으로 이전개원식 및 현판식
9. 29 : 제11호 나리태풍 제주도 수재민 돕기
백미 1,000포 전달식

목적 및 취지

본회는 종파를 초월, 불교종단과 전국불자 신행단체 총 연합회로서 종단 간에 종무행정의 긴밀한 협력과 동체 단합으로 퇴보된 불교관을 의식개혁으로 전환하여 생활불교를 정착시켜, 미래불교 홍포를 실현. 깨달음의 사회화를 통해 불국정토건설을 파사현정으로 실현하여 부처님의 동체대비로 한국불교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 국민 대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 성숙한 나눔의 새로운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종교인들의 대승적인 공동 실천운동을 사회 속에 확대 발전함을 목적과 그 취지로 한다.

천지 사이의 형이상 형이하의 문제로 연구를 거듭하여 유신하지 않을 것이 없으므로 학술의 유신, 정치의 유신, 그 외 각 방면에서 유신을 외치는 소리가 천지에 가득하므로 이미 유신을 하였거나, 지금 하고 있거나, 장차 해야 할 일들이 헤아릴 수 없도록 종접하고 있는 현실 속에 여타 종단 대표, 불교신행단체 대표의 덕목을 총 집결하여 「받아서 되돌려 주는 불교」를 무언 이타행하여 종단은 물론 승려의 자행선덕을 온 천하에 홍포, 생활불교 정착으로 대중불교 활성화를 위함이오니, 독자 생존의 길은 험하고 외롭고 허전합니다. 여타 종단과 사회단체 대표님의 동참을 바라옵니다.

재등록 종단명

◆ 대한불교 불이종
◆ 대한불교 무량종
◆ 대한불교 법인종
◆ 대한불교원조계종
◆ 대한불교 서산사명종
◆ 대한불교 묵조선종
◆ 정법대승불교조계종
◆ 해동불교 임제조계종
◆ 세계불교 세심종
◆ 대한불교 삼보조계종
◆ 한국불교 미륵천왕종
◆ 대한불교 정토종
◆ 한국불교 원효종
- 외 21개 종단 -

정관개정사유

사단법인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제1대 - 제7대 회장은 재가불자로서 단체를 운영하였는바 종단 및 재가단체 연합이 어려움을 직시하고 제8대 회장부터는 종단대표 및 신행단체 대표로 연합함에 있어 정관 일부 개정이 불가피 하였음을 양해 바라오며, 정관 개정에 의한 내용변경으로 이에 따른 법인단체등록증 재교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체등록증 재교부 요청

2007년 7월 10일. 이전 본회에 등록한 종단 단체 및 불자신행사회단체는 아래와 같이 재교부를 바랍니다.

※ 재교부 기간 : 2007년 10월 25일부터
2007년 11월 25일까지

위 기간 내 한국불교단체 등록증을 재교부 받지 않는 본회에 등록한(110개단체) 종단단체 및 불자신행사회단체는 본회 취지 및 목적에 뜻이 없어 탈퇴함을 인정하고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헌납, 연말기부금 정산 혜택에서 제외)행정기관에 본회 명칭사용 정지 신청을 요청할 것임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2007년 10월 22일

사단법인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대표이사

※행정업무사무실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03-2번지 중후2빌딩 5층
TEL : 051)465-3255

서울·상주 어르신들 '정겨운 만남'

종로노인복지관 '都·農교류 프로그램' 현장

10월 19일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경북 상주시 하서면 어르신 43명이 복지관을 찾았다. 서울의 청명한 가을 하늘이 먼저 어르신들을 반긴다. 하늘이야 상주가 더 깨끗하겠지만 서울 하늘도 가을빛을 받아 기분 좋기는 매한가지다.

이날 상주 어르신들은 종로노인복지관에서 마련한 도농교류 프로그램 '징검다리'에 참여하고자 서울까지 올라왔다. 고속버스 3시간 거리. 결코 가깝지 않지만 하서면 어르신들은 "마실 나온 셈 치면 되지"라며 허허 웃는다.

어르신들은 먼저 종로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눴다. 멀리서 온 이도, 손을 맞는 이도 서로 반갑다.

"우리 친구 왔네! 잘 왔네, 잘 왔어!"

유난히 반가워하는 종로 김성옥(67) 어르신과 하서면 강고지(66) 어르신. 서로의 손을 잡고 놓을 줄을 모른다.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닌 듯한 두 사람. 알고 보니 10월 1일 종로 어르신 80명이 먼저 하서면에 내려가 농촌체험을 했다. 고구마도 캐고, 포도도 나눠먹으며 두 지역 어르신들끼리 친구하기로 했단다. 멀리서 벗이 오니 어찌 기쁘지 않을까.

"상주 갔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공기도 좋지, 사람도 좋지 상주에 완전 반했다니까요."

하서면 어르신들은 먼저 복지관에 대한 소개를 듣고 시설을 살펴봤다. 종로노인복지관은 올해 3월 개관식을 갖고 서비스를 시작한 최신식 복지관이다. 그러니 시설도 좋고 깨끗하다. 권석산(71) 어르신은 "우리 동네도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쉬워했다. 오래된 동네 노인정과는 비교도 못하겠다며 손까지 내젓는다.







"어서들 오세요!" 경북 상주시 해서면 어르신 43명이 10월 19일 서울 종로노인복지관을 찾았다. 어르신들은 서울 어르신들과 '징검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와 농촌을 넘는 우정을 나눴다.

어떤 어르신들은 관장 정관 스님의 방을 구경하면서 "아이고, 스님 여기서 사시나" "밥은 끓여잡숫는지 모르겠다"며 애정 어린 말을 주고받는다. 어르신들은 스님이 관장실에 상주하지 않고 출퇴근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안도했다.

맑은 가을 하늘을 보기 위해 복지관 밖을 나섰다. 종로노인복지관 옆에는 이승만 前대통령 사저인 이화장이 있다.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추억이 아스라이 남아있다. 그가 좋고 싫고를 떠나 젊었을 때의 기억이 자연스레 떠올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화장의 풍경은 어르신들에게 남다르다.

훌륭한 시설을 갖춘 노인복지관도, 이화장도 있는 서울이 좋다고는 하지만 역시 집에 비할까. 하서면 어르신들의 '내 고장' 자부심은 정말 대단하다.

"우리 포도도 맛있고 사과도 맛있어요. 상주 곶감 유명한 건 다 아시죠? 쌀은 저농약으로 농사지어서 정말 최고에요."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자식 같은 농산물들을 자랑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흐뭇한 웃음이 절로 나온다. 하서면을 직접 가본 종로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인다.

이날 어르신들을 모시고 함께 온 상주시의회 윤홍섭 의원은 "상주는 해발 330m지대라 고랭지 농업에 적합한 농촌복합도시"라며 "이번 도농결연 사업은 어르신들 간의 문화교류는 물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르신들끼리 자연스레 "직거래 한 번 해보자"는 말이 나온다. 하서면 어르신들이 정성껏 키운 유기농 과일 · 채소 · 곡식이 제대로 대우받고 서울 어르신들은 싸게 좋은 물건을 사게 되니 참 좋을 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경계를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처한 입장을 바로 보는 것이 '징검다리'의 진정한 의미일 터. 어쩌면 도시와 농촌 어르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계기만 주어진다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관장 정관 스님은 "징검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종로 어르신과 화서면 어르신들 간에 우애가 싹트길 바라며 향후 지속적인 도농교류가 가능하도록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라 말했다.

오랜만에 나선 서울 나들이에 상주 어르신들도 설레었지만 종로노인복지관 어르신들도 멀리서 온 손님들이 반가웠다. 만남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징검다리'라는 이름처럼 서로를 이어줄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복지계 단신

◆서울 옥수복지관=10월 31일 오후 12시 30분 '노인소비자 피해예방 강좌 현명한 소비자되기'를 진행한다. 강좌에서는 최근 노인에 대한 건강식품 및 건강관련 용품 판매 등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보상 등 대처법도 알려줄 예정이다.(02)2282-1100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산하 서울 혜명보육원=11월 3일 행복나눔 일일호프 및 바자회를 연다. 지역주민 행복나눔 콘서트도 이날 함께 열릴 예정이다.(02)802-0358

◆서울 광진노인복지관=10월 25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다도교육 '휴&락'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 자아각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02)466-6242

조계종 '호스피스 양성' 나섰다

11월 13일부터 '제1기 불교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정념)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에 적극 나섰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1월 13일부터 실시하는 '제1기 불교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 불교사회복지 영역을 한층 더 넓힐 계획이다.

호스피스란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 죽음은 자연스런 삶의 과정 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시켜 심적 · 육체적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말한다.

불교호스피스는 죽음후의 세계에 대한 공포를 줄일 수 있도록 불교적 내세관을 전달해주고, 환자와 봉사자 간의 신뢰를 쌓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번 교육은 종단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호스피스 교육을 이끌어내는 것이라 더욱 의미 있다. 현재 불교계에는 호스피스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몇몇 사찰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전반적인 관심은 미미한 수준이다.

더욱이 불교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부족으로 죽음을 앞둔 불자들이 타종교로 개종하거나, 남은 가족들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상황도 속속 벌어지고 있다.

이번 불교호스피스 교육의 시작으로 불교계 내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확산은 물론 인력 양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각 병원법당들의 협력으로 불교봉사활동의 저변을 넓히고 불교의 대사회화를 확산시키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교호스피스 교육은 11월 13일 '호스피스의 이해' 강의를 시작으로 '죽음에 대한 이해', '의료봉사 및 질병에 대한 이해와 관리', '신체적 관리', '대체요법', '의사소통 기법영적관리', '임종관리', '가족관리' 등의 커리큘럼과 체험, 실습 등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매주 화 · 목요일마다 총 12회, 130시간이다. 선착순 50명 모집이며 사회복지재단(02-723-5101)에서 전화 상담 후 신청 가능하다.

김강진 기자



② 서울노인복지센터 이명희 총괄부장

"불교복지 인재 양성 힘쓸 것"

불교복지 네트워크 구축 '목표'
스스로 '원칙적 운영' 엄격 준수

사회복지의 인연은 어디서부터 시작될지 알 수 없는 모양이다. 전공도 경력도 상관없다. 어느 순간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 선택한 길 위에서 그저 흐름에 몸을 맡겼다는 복지현장을 달리는 사람. 그는 바로 이명희 총괄부장(45 · 사진)이다.

이 부장이 일하는 곳은 하루에 어르신 2000명이 이용하는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일문)다.

"제가 이런 큰 시설에서 노인복지를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인연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대불련 23기 여성부장출신의 이 부장은 사실 대학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했다. 사서자격증도 취득했지만 졸업 후에는 경기도 성남에서 시민사회활동에 뛰어들었다. 여기까지 들어도 범상치는 않다. 사회복지 대학원에 진학한 이유는 그저 '자격증' 때문이었단다. 이 부장은 "지인들과 아동상담소를 세우려 대학원에 갔다가 사회복지에 빠져들었다"고 회고한다. 시민사회활동도, 사회복지도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기본의미는 같기에 더욱 그랬을 것이다.

불교사회복지에 대한 고민은 대학원 현장실습 때 생겼다. 개신교 시설에서 '나도 내 신념에 따라 불교사회복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계를 만드는 꿈은 거기서부터 뿌리내렸다.

원을 세우고 나니 길이 보였다. 서울노인복지센터와의 인연은 노숙인 쉼터 '보현의 집'에 근무하던 2001년에 시작됐다. 그해 3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수탁하고 시설 파견근무 요청을 해온 것이다.

"당시 시설세팅 문제로 하루 3번씩 회의했어요. 열린 공간을 꾸며 어르신들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죠."

여타 노인복지관에서 볼 수 없었던 '열린 구조'의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만든 장본인이 된 이 부장. 시민사회활동가의 사회복지사 변신은 어쩌면 필연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어르신들이 복지관에서 신나게 춤추고 노래하시는 모습을 볼 때 마다 가슴이 막 뭉클해져요. 아마 노인복지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럼 상관으로서의 이 부장은 어떤 모습일까. 그는 스스로 '원칙적인 상관'이라 평한다. "복지사로 일할 때는 스스로 엄격해지려 합니다. 우리시설은 공적 자본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니 도덕과 질서가 중요하죠."

긴 세월동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해 온 그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불교사회복지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다. 센터에서 해마다 연등행사를 하고 명상 등의 불교문화를 접목시킨 프로그램 개발에 매진하는 것도 불교사회복지 터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동참할 사람들을 많이 키워내 '불교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이 부장에게 가장 큰 화두다.

바쁘게 살았지만 노인복지, 불교사회복지의 길 위에서 한 번도 후회해 본적 없다는 이명희 부장. 그는 그저 소박하게, 복지를 계속 하고 싶다고 한다. "퇴직하면 보모를 하고 싶어요. 성장하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 정말 뿌듯하겠죠?"

글·사진=김강진 기자

병고의 고통으로 고생하는 불자님들께
산삼의 인연을 맺어드리고자 합니다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운 약사여래 도량 선광사는 병고의 고통으로 고생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산삼의 인연을 맺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강원도 일대에서 활동하는 16명의 심마니들을 위해 오래 전부터 산삼 감정을 해오고 있으며, 인연 있는 분들께 산삼을 안내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약사여래도량 선광사 주지 도봉 합장
(한국심마니협회 강릉시지부 정회원 – 회원번호 0403)

연락처 : 017-377-0464, 02)886-8655
서울시 관악구 봉천 10동 871-34번지(서울 포교원)
강원도 강릉시 지변동 232-1번지

산삼이란?

• 천종(진종)산삼 (天種, 眞種)
고산지대의 식물의 특성에 의하여 압력이 높고 바람이 세고 습기가 적고 등등으로 고생고생하며 자란것으로 뇌두는 가늘고 싹대 역시 작고 가늘며, 잎수와 가지 숫자도 적다. 열매 또한 작으며 숫자가 적다. 뇌두가 가늘고 길며 약통에서 미가 갑자기 가늘어져 미에 살이 안붙고 힘이 있어, 예쁘고 귀한 티가 난다.
30년 정도는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 자란 연도에 비해 크기가 작고, 잘 크지를 못하며, 제일 커봐야 1냥 2~3돈 정도라 할 수 있다. 작지만 많은 세월이 느껴진다.
오리지널 산삼이란 것이며, 천종(진종)산삼이란 참으로 귀하며 신이 우리에게 내려준 지상최고의 식물인 것이다.

• 지종산삼 (地種)
야생장뇌 산삼에서 씨앗이 떨어져 자라면 씨종이 한단계 진화하며 야생장뇌에서 1-2대 지난것이 지종산삼이며, 뇌두의 굵기가 진종산삼과 야생장뇌의 중간정도이고, 생긴 형태도 중간이다.

• 인종, 야생장뇌 산삼(人種)
야생장뇌란 재배장뇌씨가 새등에 의해 깊은 산으로 옮겨져 자생하는 것으로 생명력이 한단계 진화하며 오래살 수 있는것. 인삼과 많이 닮았으며, 뇌두가 두껍고 미에 살이 많고 귀티가 나지 않는다. 현재 채취되는 산삼의 대부분은 (95%이상)야생장뇌 산삼이나 지송산삼이라고 할수 있으며, 그러나 천종(진종), 지종,야생장뇌의 어디에 속하느냐는 집착할 필요는 없고 야생산삼이며 년조가 같으면 약효는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하다. 같은 년조일때 천종(진종)산삼은 야생장뇌나 지종산삼보다 크기가 작다.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은 스님, 불자님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기 위하여 평촌에 사무실을 개설하였습니다.

부처님 법이 곧 마음법이어서 생활하시는데 걸림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세속의 생활은 마음먹은데로 흘러 가지 않아 각종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이 있고 또한 현실이 그러합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서안은 부처님 법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마음편히 스님, 불자님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서안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변호사 강영화 · 김기현 · 김택선 합장

瑞安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김택선 변호사)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206호

미디어는 佛音의 나투심이다

미디어를 통한 불교의 대중화 선언 · 불교문화연구원 추계 국제학술대회



사진 왼쪽부터 우제선 교수(동국대) 이향순 교수(미국 조지아대) 마크 아메리카 교수(미국 콜로라도대)순.

국내외 미디어학자와 불교학자들이 "미디어를 통한 대중에의 접근은 부처님의 대기설법과 같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10월 26~27일 대한불교조계종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불교의 대중화와 뉴미디어'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는 미디어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예술문화 속의 불교 정신을 찾아 불교미디어 확산의 계기로 삼고자 기획된 이번 대회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혜원)의 주최로 마련됐다.

혜원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매체들과 접속하지 못하고 대중들의 욕구에 다가서지 못한다면, 불교는 상아탑에 갇힌 학문적 불교에 그치거나, 산중의 불교로 곧 화석화되고 말 것"이라며 불교 대중화의 대안으로 뉴미디어를 택하게 된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내외 학자 10명의 발표가 양일간 이어졌다. 2001년 타임지 선정 '100인의 혁신가'에 포함된 초장르 예술가이자 뉴미디어 이론가인 미국 콜로라도대학 마크 아메리카 교수는 '예술가, 매체 그리고 도구'를 통해 "예술가는 각자 자신만이 가진 독특한 창조의 길을 파악해야 한다. 그 길은 끝없이 다양하지만 목적지는 동일하다"는 내용의 발표를 함으로써 예술의 길과 구도의 길이 다르지 않으며 각기 다른 방법이 종국에는 하나의 목적으로 회향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박수호 교수(성균관대)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불교적 성찰과 그 대중적 활용'을 통해 사이버세계와 화엄세계의 유사성을 밝혔다. 박 교수는 "사이버공간을 통한 불교의 대중화가 불교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이버공간에 불교적 이상사회(불국정토)를 건설하려는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동환 교수(한신대)와 정재형 교수(동국대)는 각각 '한국불교문화유산의 세계문화콘텐츠화의 전략적 연구'와 '불교콘텐츠의 영화산업에서의 활용방안'에서 "불교문화사업이 활성화되려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전문가그룹이 필요하다"며 인재육성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이향순 교수(미국 조지아대학교)는 '동승, 향수 그리고 한국불교영화'란 주제를 통해 불교영화 모티브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소재의 특이성이 아닌 불교철학의 보편적인 문제를 소재로 하자는 과제를 남겼다. 마쯔이류우고 교수(일본 용곡대)는 '전후 일본만화에서의 불교'를 주제로 일본 만화 속에 내제된 불교를 조명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또 다른 성과로 꼽히는 것은 백남준, 윤이상이라는 예술계 거장을 불교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용우 前 교수(고려대)와 윤양호 교수(원광대)가 <금강경>과 '공' 사상을 통해 백남준의 비디오예술세계 속의 불교를 조명했고, 홍은미 교수(서울대)와 볼프강슈파러 회장(독일, 국제윤이상협회)은 '무상'과 '원융사상'을 빌어 윤이상 음악세계의 불교적 해석을 시도했다.

한편 학술대회 마지막날인 27일에는 임이조 이사장(한국 전통춤연구회)의 승무와 한량무, 교방살풀이 등 문화공연이 열려 참석자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다. 조동섭 기자

학술단신

■동국대 전자불전 · 문화재콘텐츠연구소(소장 보광)는 11월 2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제9회 전자불전 · 문화재콘텐츠연구소 학술세미나'를 연다.

한국불교전서 전14책의 전산화 회향 고불식을 대신해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불교전서 전산화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다. 연구소장 보광 스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전산시스템 전문가 홍영식 · 이금석 · 이용규 교수(동국대 컴퓨터공학과)가 전자불전 전산화 시스템에 관해 발표한다.

불교학자로는 임종욱 연구원(동국대 전자불전 · 문화재콘텐츠연구소)과 류승주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가 참여한다.

■명상심리치료학회(회장 인경)는 11월 3일 동국대 만해관 모의법정에서 제2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호흡법과 염지관(念 · 止 · 觀) 명상치료'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1부 학술발표와 2부 사례발표로 나뉘어 열린다.

1부에는 원과 스님(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과정)이 '잡아함과 상응부에 나타난 입출식념'을, 이필원(동국대 강사)씨가 '청정도론에 나타난 호흡법'을, 김성철(전남대 강사)씨가 '유가사지론 성문지에 나타난 수식법' 등을 발표한다.

2부에는 오윤경 · 이영순(동방대학원대학 박사과정)씨가 각각 호흡과 염지관명상에 대해 집단상담과 개인상담 사례연구를 내놓을 예정이다.

부산 복천사, '독립운동의 전초기지'로 재조명

부산 복천사가 항일독립운동가 양정욱의 은신처이자 독립운동의 전초기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월 25일 '복천사의 역사와 문화'라는 제목으로 열린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2007년 추계학술세미나에서 경성대 강대민 교수는 양정욱의 항일운동과 그의 활동처였던 복천사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했다.

강 교수는 "독립운동가 양정욱은 학생신분으로 독립운동을 위한 반일활동으로 인해 체포되어 22세의 젊은 나이에 고문후유증으로 순국한 인물이다"며 "전승에 따르면 그의 활동지였던 복천사 뒷산에는 독립투사들이 은신처로 사용한 암굴이 여러 개 있었고 복천암 스님들이 대각사로 내려와 태극기 그리는 법을 몰래 가르쳐 주며 독립 운동을 이끌던 주요 활동지"라고 설명했다.

양정욱은 부산제2상업학교 재학시기인 1928년, 학생 신분으로 동지들을 규합하고 독서회 활동과 민족해방에 기반을 둔 애국활동을 벌인 독립운동가이다. 1920년대는 일제의 노선이 강경진압에서 문화통치 형식으로 변화하면서 그는 민족문제에 큰 책임의식을 지니고 독서회라는 조직을 통해 민족해방운동에 앞장 섰다.

월간지를 발행하여 항일 투쟁을 전개한 흑조회를 이끌던 양정욱은 1929년 9월 2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지독한 고문으로 인해 생명이 위독하여 병보석으로 가출옥하였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곧 병사했다. 그는 고문으로 손톱이 모두 다 빠졌다고 한다. 정부는 1995년 양정욱의 업적을 인정하여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복천사 주지 경호 스님은 "복천사는 일제시기 제국주의 압제에 맞서 독립군을 양성하여 항거한 민족종교도량이었으며 조선 불화의 전통성을 고수하면서 근 · 현대의 불교화단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친 불모(佛母) 완호 스님의 향기가 배어 있는 영남의 불화소이다"며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복천사의 유래와 문화를 계승하고 양정욱 선생의 일대기가 재조명되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하성미기자

"지계가 불교의 희망이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제4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참회합니다." 참회와 자정의 목소리가 봉암사 결사 60주년 기념법회를 통해 한국불교의 탯자리 희양산을 울리고 시방세계로 퍼진 다음날인 10월 20일.

불보사찰 통도사 설법전에서는 '불교 계단의 성립과 전개'를 주제로 출가수행의 규범을 되짚어 부처님 당시 정신을 살리자는 취지의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가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외의 불교학자 등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함께한 자리였다.

"불교가 수천 년을 면면히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엄격한 계단(戒壇)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라며 기조발제를 한 혜남 스님(통도사 율주)과 '한국 불교에서의 계단의 구조와 의미'를 발표한 덕문 스님(통도사 율원장), '인도불교의 교단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백도수 강사(금강대), '신라 하대의 불교와 정치: 분절과 통합의 반증'을 발표한 박희택 교수(위덕대)는 "계단의 모습은 시대를 달리하지만 계율의 정신은 부처님 당시나 현재나 똑같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0월 20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 동아시아 불교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자장과 금강계단'을 발표한 김경집 강사(동국대)는 통도사 금강계단의 조성 배경이 "고구려와 백제의 침략에 시달리던 신라가 불교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 민심을 규합하고자 세웠다"는 견해를 밝혀 계율의 강화를 통해 대중의 화합을 도모해야 함을 피력했다.

'선원청규: 중국불교적제도윤리'를 발표한 황규 연구원(중국 사회과학원)은 선종의 청규와 계율 사이의 관계에 대해 "시대를 지나며 제도개혁의 문제는 항상 존재해왔지만 개혁은 항상 계승을 전제로 했다"며 "선원청규가 계율의 중국문화적 수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나 부처님 당시의 출가정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청규의 계율수용과 변화에 대한 고찰'을 발표한 신공 스님(동국대 박사)은 계율과 청규의 상의상반된 성격에 대해 지적하면서 현대적 선원청규 제정을 통한 종풍 기강 확립을 도모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근현대 한국불교의 네가지 유형의 모델: 제국주의, 한국불교, 그리고 평화만들기'를 발표한 성원 스님(미국, 하와이주립대 교수)은 대중화합을 평화조성으로 개념의 폭을 넓혀 불교가 종교를 초월해 범세계적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새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조동섭 기자

봉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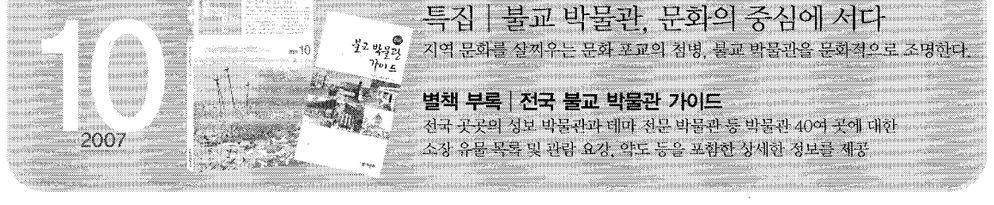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 법당
개원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쌀쌀한 늦은 가을을 맞이하여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큰스님을 모시고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 법당 개원법회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앞으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에 따라 많은 환우님들의 병환을 치유하고 심신의 고통을 소멸해줄 커다란 도량이 될 것입니다.
원만하게 불사를 마칠 수 있게 동참 후원해주신 원내외 불자님들께 직접 찾아 뵙고 감사의 말씀을 올려야 하나, 외람되이 지면을 통하여 감사와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법당 개원식에 참석하셔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일 시 2007년 11월 16일(금) 오후 7시
장 소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 8층 대강당
문의전화 지도법사 : 지 현 011-305-6699
총 무 : 황경임 010-4509-7747

고려대학교의료원 불자회 지도법사 지현, 회장 대휴 합장

이 땅에 불교정신을 구현하고 삶의 위안을 주는 문화 포교지
월간 『불교와 문화』





러브레터 | 사랑, 그 쉽고도 어려운 이야기
사랑이란 이름의 실전 수행 2(자기를 잊어야 비로소 배우자의 마음이 보인다)
소설가 정찬주와 떠나는 명상여행 | 인도에서 본 팔상록 9(녹원전법상)
종범 스님의 재가불자를 위한 기초교리(경전편) | 『법화경』
생활불교 가이드 | 보름 포살 법회란 무엇인가?
연병장에 피어나는 연꽃 | 부산 금련사
문태준 시인의 치유포토에세이 | 이별에게
숲길 10 | 화성 융릉, 건릉의 숲
테마가 있는 사찰, 그곳에 가고 싶다 | 운길산 수종사
집중인터뷰 | 방혜자 화백
드라마작가 정형수가 추억하는 내 기억속의 절밥
잊혀져가는 사찰음식을 찾아서 | 공주 흥복사 도토리 야채 수제비
향기로운 사람들 | 학습지도 자원봉사 불자 · 부처님께 사진 공양 올리는 불자
도쿄통신 | 일본의 '와비사비'
법현 스님의 숫자로 보는 불교 | 여덟 가지 특별한 것을 갖춘 아난
2007 테마로 읽는 좋은 책 | 불교와 박물관

월간 『불교와 문화』 1년 구독료 30,000원(1권 3,000원) 구독문의 : 02-706-1570 (『불교와 문화』 문화사업단) www.buddhistculture.co.kr



배추부처님이 성불하면?

봉은사 외국인 사찰 김치 만들기 현장

"봉선사에서 비빔밥을 먹어봤어요. 조금 매웠지만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 사찰음식을 만들어볼 수 있다고 해서 참석했지요."(미국인 캐리, 삼성전자 근무) 사찰음식이 대중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찰음식을 직접 만들고 먹어보는 기회는 그리 흔치 않다. 사찰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해 발족한 전통사찰음식문화보존회(회장 선재)는 10월 20일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 보우당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禪으로 만나는 사찰음식'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국내에 거주하거나 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40여 명이 참석했다.


사찰음식 체험에 앞서 지철 스님의 지도로 참선하는 법을 배우는 참가자들.

이날 참가자들이 만들 음식은 '홍시김치'. 파, 마늘, 젓갈, 설탕 등을 일체 쓰지 않고 만드는 사찰 김치에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 홍시를 으깨 양념으로 버무린다. 체험에 앞서 선재 스님이 사찰음식에 대한 설명을 풀어놓았다. 이날 통역은 지철 스님(낙산사 교무국장)이 맡았다.

"사찰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동물성 식품과 미원 · 설탕 등의 화학조미료, 오신채(파, 마늘, 부추, 달래, 흥거)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사찰음식은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닌 수행을 도와주는 방편으로서의 음식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체에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씨앗, 즉 불성(佛性)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있는 배추는 '배추부처님'인 셈이죠. 이 배추부처님을 정성을 다해 맛있는 김치로 만드는 것이 곧 배추를 성불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배추부처님(cabbage buddha)'이라는 표현에 참가자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린다. 한낱 야채에 불과한 배추를 '부처'로 여긴다는 발상이 신기했는지 참가자들은 앞에 놓인 소금 절인 배추를 다시 한 번 쳐다본다. 이어 스님은 김치가 익어가는 과정을 수행에 비유했다.

"김치가 땅 속 항아리에서 숙성되어 맛있는 김치로 익어가는 것은, 스님들이 수행을 통해 부처님을 닮아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제 홍시와 무, 고춧가루, 간장 등으로 버무린 양념으로 김치를 담가보겠습니다."

선재 스님이 절인 배추에 양념을 쓱쓱 발라 나가는 모습을 시연했지만,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다. 난생 처음 해보는 김장이 낯선 모양이다. 배추 양념장을 절인 배추의 밑에서부터 발라야 하는지 위에서부터 발라야 하는지, 양념을 어느 정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한 것이 한 둘이 아니다.

비닐장갑을 끼고 절인 배추를 앞에 둔 프란체스카(독일)는 선재 스님의 설명을 듣고 천천히 양념장으로 배추 속을 채우기 시작했다. 한국서 생활한지 두 달 됐다는 프란체스카는 "김치가 세계 건강식품에 선정될 만큼 몸에 좋은 음식이라 알고 있다"며 "처음엔 너무 매웠지만 요즘은 곧 잘 먹는다"고 말한다. 베트남에서 온 관광객 안은 "베트남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에서 김치 담그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며 "직접 만들어보니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한다. 인도에서 온 산디야는 "인도에도 짜므니는 양념에 버무린 피클 같은 것이 있는데, 김치와 비슷하다"고 한다.

김치 버무리기가 끝나고, 각자 만든 김치는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 통에 담았다. "차 안에서 냄새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지철 스님의 충고에 모두들 함박웃음을 터뜨린다.

이제 사찰음식을 직접 맛볼 차례. 전통사찰음식문화보존회원 스님들이 정성스레 만든 사찰음식이 참가자들 앞에 펼쳐졌다. 연잎밥과 두부김밥, 더덕잣즙무침, 우엉잡채, 버섯백김치, 단호박설기, 오색경단화채…. 난생 처음 보는 정갈하고 단아한 음식에 참가자들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음식을 담아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평소처럼 먹을 수는 없다. 이번엔 지장 스님(초의차명상원장)의 '음식명상' 순서다.

"여러분 앞에는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음식이 놓여 있습니다. 이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여러 재료들과 음식을 만든 사람, 물과 불, 그릇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음식의 재료가 있으려면 산이나 바다, 농장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구와 태양계, 우주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음식을 만든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자연 만물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요리는 온 우주를 대표합니다."

음식명상 설명을 듣고 난 참가자들은 포크로 음식을 집어 먹는 흉내를 내 본다. 팔과 턱, 혀의 움직임을 느껴본다. 배가 고픈지 부른지 어떤 느낌인지도 살펴본다. 이제 실제 음식을 먹으며 그 느낌을 관찰해본다. 천천히 밥을 떠서 입에 넣고 30번 이상 씹으며 음식의 맛과 향, 느낌을 천천히 음미하며 식사를 한다. 이제껏 알고 있던 '음식의 맛'을 온 몸으로 느껴보는 시간이다.

음식명상을 마치고 난 후 혜성 스님(한국명선차인회장)이 마련한 찻자리에 둘러 앉아 연잎차와 녹차를 마시며 오늘 체험에 대한 느낌을 서로 이야기했다. 미국인 샘은 "김치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몰랐다"며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오늘 체험한 음식명상의 기억을 되살리게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선재 스님은 "사찰음식을 만드는 방법은 대중화되었지만, 그 속에 담긴 사찰음식의 정신을 알려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험 행사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글=여수령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전통사찰음식문화보존회 스님들이 정성스레 만든 다양한 사찰음식이 펼쳐졌다.


사찰음식을 먹기 전 음식에 담긴 뜻을 되새기며 음식명상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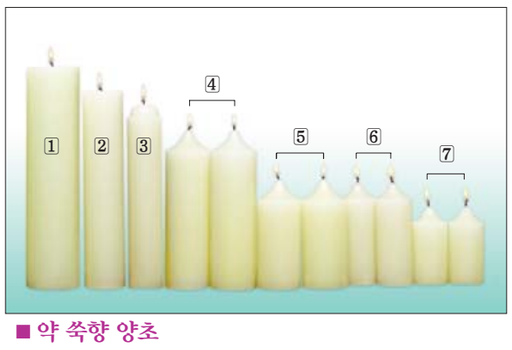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Cm × 29Cm
2 돈타레 5.6ϕCm × 27Cm
3 밀 대 4.7ϕCm × 25Cm
4 1호 5.9ϕCm × 20Cm
5 2호 5.9ϕCm × 14Cm
6 3호 4.7ϕCm × 13Cm
7 4호 4.7ϕ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Φ X 35cm


■ 야광 용초 70Φ X 35cm


■ 원기둥 마패 7.4Φ X 30cm
등신불 마패 4.7Φ X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주소(D) 양초.net

일주문



북한동포·외국인 노동자 돕기 서예전
조계종 원로의원 월서 스님은 11월 1~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전시장에서 '북한동포와 외국인 노동자 돕기 서예전'을 개최한다.



중화종교문화교류협에 <천태종성전> 전달
정산 천태종 총무원장 스님은 10월 30일 중국 북경 영광사에서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 엽소문 회장에게 <천태종 성전> 5000권을 전달했다.



국제포교사 선발고시 실시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10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2회 국제포교사 선발고시를 실시했다. 고시에는 총 41명이 응시했다.



조계종 남북불교교류특별보좌관
前 조계종 사회부장 지원 스님이 조계종 남북불교교류특별보좌관에 임명돼 10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봉은사서 공개특강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10월 30일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한국의 자연과 전통문화-산사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공개 특강을 했다.



장례비지니스프로그램 개설
손동진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2008년 1학기부터 다도 · 사찰음식전공 및 특별과정인 장례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이전 도서총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02)3672-7181 입니다.

社 告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주제 :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접수처 :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마감 : 2007년 12월 17일
●당선작 발표 : 2008년 1월 1일자 본지 및 붓다뉴스
●문의전화 : (02)2004-8282
●이메일 접수 : jygang@buddhapia.com
●시상 부문 -대상(유마상) -우수상(본사 사장상) -특별상

전원주 여운계 선우용녀 약천사 뒤 흔들다

10월 23일 수재민 위로공연서 열창으로 분위기 up

"저 건강해 보이죠? 제주도 와서 열흘 정도 있으니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햇빛 바람 바다 모든게 좋잖아요. 특히 약천사에 와 보니 더 큰 기운을 얻게 됩니다. 이제 곧 연기활동도 할 겁니다. 계속 사랑해 주세요."

최근 신장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탤런트 여운계씨가 제주도 약천사 불자들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 연기 재개를 약속했다. 10월 23일 열린 '제주 지역 태풍 나리 피해 수재민 위로 공연'에서다. 약천사(회주 혜인)가 고승초청 철야 용맹정진에 앞서 마련한 이날 무대에는 불자탤런트 3인방인 여운계씨와 전원주, 선우용녀씨가 나란히 올랐다.

저녁 8시부터 만담꾼 '순이'가 한껏 분위기를 띄우고 대금산조 판소리 '심봉사 눈뜨는 대목' 아쟁산조 등으로 물이 잔뜩 오른 상황에 혜인 스님의 소개로 무대에 오른 3인방은 거침이 없었다.

먼저 마이크를 잡고 불자들의 배꼽을 뺀 것은 전원주씨.

"이렇게 셋이 서면 곤란해. 얘들 둘은 괜찮은데 나는 키가 좀…. 얘, 니들 좀 떨어져 서 봐. 너무 비교 되잖아."


여운계, 선우용녀, 전원주씨(사진 왼쪽부터)

전원주씨의 넋두리에 약천사 지하 공연장은 웃음의 도가니가 됐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여운계씨에게 넘기자 아직 병색이 다 가시지 않은 여운계씨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약천사에서 기운을 받아 더 열심히 살겠다"며 "모든 불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겠다"고 말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선우용녀씨는 "절에서 이런 행사가 많이 열려야 우리 불교에도 미래가 있다"며 "이런 행사야 말로 신행의 양념이니, 우리도 양념 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단한 인사가 끝나자 사회자가 노래 한 곡을 부탁했고 마이크를 받아 든 전원주씨가 특유의 표정을 지으며 "에이그, 웬 노래를 하라고 그러나? 하라면 하지 뭐. 우린 '청실홍실'이야. 나랑 얘(여운계)랑 이 청실홍실로 세계일주를 했다니까. 진짜야. 하와이 대원사가 문을 열었을 때 그때 초청되어서 나랑 여기 이 여운계랑 둘이 '청실홍실'을 불렀는데 그게 아주 히트였다고…. 내가 키나 얼굴은 좀 안 되도 노래는 얘들보다 한참 낫거든." 이렇게 사설을 앞세우는 사이 반주가 나오자 얼른 입담을 수습하고 우아한(?) 무용까지 곁들이며 노래를 불렀다. 세계일주를 했다는 전원주 여운계 듀엣의 노래에서는 녹슬지 않은 옛날 실력이 묻어났다. 이어 선우용녀씨는 '만남'을 열창했다.

참가한 사부대중이 머리위로 손을 흔들며 선우용녀의 열창에 호응했고 이렇게 무르익은 분위기는 약천사 주지 고봉 스님까지 나와서 한 곡 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바라밀예술단의 마술 색소폰 등 공연이 이어지며 흥에 흥을 더했던 약천사의 수재민 위로공연은 밤 11시가 되어서야 막을 내렸지만 불자들과 지역주민들은 발길 돌리기를 아쉬워했다.

제주/글 · 사진=임연태 기자

"더 나은 템플스테이 위해 노력할 것"

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마가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이 10월 17~21일 태국으로 다녀온 '템플스테이 운영자 해외 연수'에 대해 사무국장 마가 스님은 "이번 연수의 가장 큰 소득은 태국의 불교전통과 템플스테이 현황을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우리 템플스테이의 현재 모습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다는 점"이라고 꼽았다.

스님은 "부처님 당시의 전통이 원형 그대로 살아있는 아름다운 불교 전통도 감명 깊었지만 태국의 정갈한 명상센터는 감동 그 자체였다"는 소감을 밝혔다.

태국의 명상센터를 순례한 후 스님은 우리나라 템플스테이 시설과 프로그램 등에 대해 반성하게 됐다며, "템플스테이가 훌륭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운영자들부터 행복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영자들의 질적 변화에 템플스테이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특히 불과 30년 만에 세계 최대 명상센터로 성장한 왓 탐마까야의 운영 사례는 국제간화선센터를 준비 중인 조계종의 입장에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연수를 계기로 더 나은 템플스테이 운영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겠습니다." 태국/글 · 사진=공동취재단

정현 스님 국민훈장 동백장 서훈

조계종 호법부 상임감찰…교정활동 공로로

조계종 호법부 상임감찰 정현 스님이 10월 26일 국민훈장 동백장을 서훈했다. 26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정현 스님은 30여 년간의 교정활동 공로로 대통령 표창인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현재 검찰청 감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님은 "교정활동에 힘쓰고 있는 스님들이 많은데 제가 큰 상을 받게 돼 부끄럽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병원법당, 병원불심 구심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시립북부노인병원 법당 개원한 해성 스님

"질병과 노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습니다."

10월 22일 서울시립북부노인병원에서 병원법당 개원법회를 봉행한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사진)은 밝은 얼굴로 어르신들을 맞았다. "병원법당이 있어야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과 병원불자 직원들의 불심을 모을 수 있습니다.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의미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연화원을 통해 불교전문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으로 호스피스, 간병인 등을 키워온 해성 스님은 앞으로 병원법당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자비행'을 실천하도록 돕겠다는 다짐이다. "환우들은 간절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제 북부노인병원에서도 환우들과 가족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량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김강진 기자



조계종 스님 48명, 호스피스 교육 실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불교회는 10월 23~25일 조계종 스님 48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했다. 지도법사 무구 스님은 "보다 체계적인 호스피스 교육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월악산 덕주사 산사음악회 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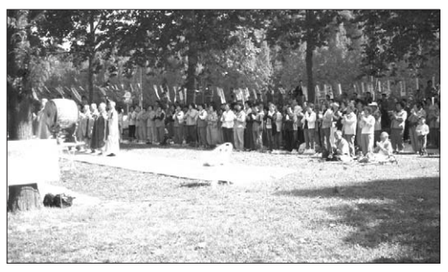
월악산 덕주사가 10월 20일 덕주공주 위령제를 시작으로 흥겨운 산사음악회 한마당을 펼쳤다. 덕주공주는 신라 경순왕의 첫째 딸로 신라가 망하자 월악산으로 들어와 마애불(보물 제406호)을 조성한 인물로 전해진다. 대한불자가수회 김흥국 회장의 사회로 불자가수 웅산, 마야, 데이라이트 등이 출연해 흥을 더했다.

환경수호를 위한 대승보살계 수계법회



대한불교삼론종(총무원장 진봉)은 10월 25일 대전 평송수련원 대강당에서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종정 혜공 스님, 부종정 혜승 스님, 승정원장 대안 스님을 삼화상으로 종단 임원을 비롯해 사부대중 10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수계법회는 환경보호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진봉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후손을 위한 환경보호운동을 펼치는 한편 불교를 비방하는 조선일보 구독거부 운동을 종단 정책차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02)937-0343

전통조계종 수륙재 봉행



대한불교 전통조계종(총무원장 능인)은 10월 9일 청주 대청댐공원에서 수륙재 및 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법주 혜천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했다. 능인 스님은 "일체중생의 화합과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한다"고 말했다.(054)382-3363

봉 대한불교전통조계종 행

총무원 이전 개원 대법회
일 시 : 불기2551년 11월 18일(음 10월 9일) 일요일 오후 2시
장 소 :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 고원사

제1회 종단 종도 연수교육 실시 공고
일 시 : 불기2551년 11월 16일(음 10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
장 소 :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 고원사

제3회 산림 수계 대법회
일 시 : 불기2551년 11월 18일(음 10월 9일) 일요일 오전 10시
장 소 :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 고원사

제3회 법계고시 시행 최종공고
일 시 : 불기2551년 11월 18일(음 10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
장 소 :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 고원사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
법계고시 최고위원회 위원장 각암 총무원장 능인 합장
문의전화 054)382-3363,3397 / FAX 054)383-5005

2007년 불교교육능력평가를 위한

제6회 연합회 포교사 고시 실시 공고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서는 불교교양대학을 졸업한 불자들을 대상으로 불자로서의 기본 소양, 불교교리의 이해, 사회봉사 참여의식, 불자로서의 가치관등에 대하여 불교교육능력 평가고시를 시행하여 실천불교를 위한 정법포교의 선구자역할을 할 불교포교사를 배출하고자 제6회 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공고함

포교사고시 응시대상
· 연합회에 등록된 교양대학(교육과정 1년 이상)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시험일시
· 2007년 12월 2일(일) 오후 1시 ~ 오후 6시
(필기시험 및 면접)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07년 10월 29일(월) ~ 11월 10일(토)

응시장소
· 박문각행정고시학원(서울종로구 조계사입구, 제일은행 본점 뒷편)

포교사 고시 구비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수계첩 사본
· 성적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 사진 4매(반명함판)

응 시 료
· 응시료 60,000원
(국민은행 023-01-0566-256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접수방법
학교별 일괄접수

접수유형
서류전형 → 1차 시험(필기시험 및 면접)
→ 최종합격자발표 → 최종합격자연수 및 품수

합격자발표
· 2008년 1월 10일(개별및 학교별 통지)

문 의
연합회 사무국 TEL 02)734-9595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 신규가입할 교육단체 및 교양대학은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4-9595 FAX 02)732-1207

불교에서 '극단주의' 해법 찾은 독일

e 해외불교칼럼



독일의 청소년들이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에서 다도교육을 받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독일 불교는 1903년 칼 자이덴슈티커가 라이프치히에 백인불교단을 결성하면서 둥지를 틀었다. 이어 독일인 스님이 등장하고 1924년에는 의사 파울 달케가 베를린 북부에 불교센터도 처음 세웠다.

그러나 60년대까지도 불교는 독일의 최고 지식층 사이에 머물렀다.(역자 주;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유럽 최초의 팔리어 경전 전문가로 <법구경>을 독일어로 완역한 칼 오이겐 노이만 및 헤르만 올덴버그 교수, 몽골 티베트 학자 이삭 야콥 슈미트, 소설 <싯다르타>의 저자 헤르만 헤세, 비교종교학자 막스 뮐러, 오케스트라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등) 그러나 이제 불교는 독일사회 중심으로 과감한 행보를 시작했다.

독일불교연맹본부의 헬게 라텐자는 현재 독일인 불제자는 약 13만, 아시아계를 포함하면 약 20만이라 밝혔다. 지난 9월 독일연방 내무성 통계에 의하면 독일 전역에는 55개 불교등록단체와 600여 동아리가 있다.

함부르그의 불교센터에서도 의사, 건설기사, 광고업자 등 100여 명의 불제자들이 매일 저녁 참선을 한다.

가수 니나 하겐, 배우 랄프 바우어, 축구선수 메메트 숄 등 대중스타들을 포함한 독일불자들은 낡은 교회나 조선소 부지 등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불사를 한다.

불교에 대한 관심이 왜 이처럼 고조될까? 샴발라 불교포교원의 슈나이더 지도법사는 불교의 '관용성'이 그 이유라고 잘라 말한다. "역사상 기독교, 이슬람의 십자군 전쟁은 물론 교파 간 유혈참극들이 그침이 없었으나 불교전쟁이란 결코 없었다. 현재도 대부분 종교 내에 광신극렬집단들이 발호한다. 그러나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추구하는 불교에는 광신도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하이델베르그대학의 잉켄 프룰 신학교수는 "불교는 교회와 달리 참선과 체력관리, 불교적 심미의식을 통해 우리 심신을 치유한다"며 불교가 기독교적 배경으로는 전혀 풀 수 없는 모든 의문들에 명쾌한 답변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불제자가 된 폴커 비프레흐트는 불교는 위기의 현대인에 주어진 무한한 선물이라 말한다. "지난 20년 남짓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맨 끝에 불교만이 전적으로 믿을만한 체계임을 깨달았다"는 게 그의 말이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함부르그 티베트 센터는 7년제 정규 불교과정을 운영하고 일부 지자체는 불교를 각급학교의 정규교과목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동양학자인 한스 그루버는 단언한다. "흔히들 행복을 조건이나 외부사물들과 결부시킨다. 그러나 불교는 행복이란 조건과 사물이 아니라 그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에 의해 충족된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불교는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편역=성휴 스님 · 출처:붓다채널

탬슨 워커는 영국출신으로 BBC와 채널4 다큐멘터리를 비롯해 2003년부터 독일의 도이체 벨레 텔레비전, 아르테 텔레비전 등에서 여류 다큐 저널리스로 활약 중이다. <출처 ; 도이체 벨레 월드>

월드 스타 불심도 스타 | 만능록스타 리키 마틴 2

이웃을 위한 아낌 없는 자비행

지난 2004년이 저무는 12월 26일 자정 쯤 서부 인도네시아 인근에서 발생한 해저지진으로 인도양 주변 12개국은 순식간에 생지옥이 됐다. 유엔 공식집계에 의하면, 흔히 쓰나미로 알려진 안다만 수마트라 대참사의 사망, 실종자만도 22만6000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편, 그 대재앙은 전 세계적인 구호 및 자원봉사단체들이 지구촌 이웃의 고통을 나누고자 나섬으로서 인종, 종교, 문화를 초월한 참된 인류애를 확인하는 드문 계기도 됐다. 영국의 경우, 이듬해 1월 17일 200여개 상업방송사들이 정규방송을 전면중단하고 12시간 동안 특별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통해 거대구호기금을 조성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실태파악과 자선홍보를 위해 현장으로 달려간 대스타들 중 맨 처음 현지를 찾은 이가 리키 마틴이다. 그는 이미 두 해 전인 서른한 살 때부터 무려 5500만 장의 앨범이 팔린 그래미상의 메가스타란 스포트라이트를 홀연히 뒤로 한 채 아동매매방지와 고아원, 아동병원 설립 등에 앞장서 왔다.

2004년 츠나미 피해현장 방문
주택 기증 · 교육 지원 등 팔 걷어

국제구호기금 유니세프의 친선대사로 활동하는 그는 쓰나미 최대 피해지역인 푸켓에 도착하자마자 특수 방제복을 입고 부패한 시신들이 뒤엉켜 있는 허름한 목조건물까지 들어갔다. 그 직후 미국의 유명 토크쇼인 오프라 윈프리쇼에 초청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 스스로 자주 묻곤 했죠. 나는 누구인가? 또 왜 이 세상에 있으며, 내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마침내 다시 어린애가 되어 모든 걸 새로 시작하기로 한 거죠."

방청객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는 마치 화두란 반드시 복잡 난해한 것이 아니며, 득도 또한 아득히 먼 길이 아님을 새삼 일깨워줬을 뿐만 아니라, 묵묵히 무한대의 자비공덕마저 더함으로써 대자대비에 대한 무언의 사자후를 토했다. 이내 피해 현장을 다시 찾은 그는 자신이 설립한 리키 마틴 구호재단에서 준비한 조립식주택 200채와 임시막사들을 주민들에게 기증하고, 연말에는 쓰나미 참상을 기리는 추모음악회도 개최했다.

그는 또한 관광휴양지가 완전히 파괴된 현지인들의 생업 터전을 대대적으로 복구하고 홍보하기 위해 파통 비치에서 특별자선콘서트를 가졌다. 쓰나미참사는 분명히 전대미문의 비극이었으나, 그 직후에 피어난 상식적이며 보편적인 인류애로 인해 그 해 겨울은 꼭 춥지만은 않았다.

보이조지와 클리프 리처드는 기금모금을 위한 음반 '슬픔은 날로 새로워'를 발표하고 폴 매카트니, 샌드라 불록, 조지 크루니,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등은 각각 우리 돈으로 수억대의 구호기금을 내놓았다.

자신의 양자에게 몸소 불경을 읽어주고 가르치는 안젤리나 졸리도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아낌없는 자선을 행했다.

2005년 1월 14일 유명연예지 <스카이쇼비즈>는 불제자인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역시 몇 해 전 자신의 영화 '해안'을 촬영했던 현지 피해주민들에게 '막대한 금액'을 희사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조선닷컴 등 국내 언론은 물론 북래그 등 외신들이 '쓰나미 희생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 말한 한국의 어느 교회지도자에 대해 일제히 보도한 것도 바로 그 즈음이다. 참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다. 현재 리키 마틴은 쓰나미 희생자들이 남긴 고아들의 보육과 교육을 집중 지원한다. 그의 재단 홈페이지(rickymartinfoundation.org)에 이런 말이 나온다. '모든 어린이는 놀고 웃고 배우고 튼튼히 자랄 권리가 있다.'

성휴 스님

달라이라마, 美 에머리대학 방문

미국 간디재단의 평화순례상 수상을 위해 지난 일요일 미국 저명 사립 에머리대학에 초청된 달라이 라마는 "교통 통신의 발달로 지구촌이 좁아짐"에 따라 종교적인 상호이해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 대학 석좌교수인 그는 불교개론을 특강하는 자리에서 6세 때부터 수행했던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한참 놀고 싶은 나이에 공부하자니 스승님만 나타나면 해가 지고 밤이 되는 듯 암담했다."

그는 그에 앞서 부시 대통령이 참석한 미국하원에서 개최된 성대한 시상식에서 최고 명예메달을 수상, 이에 중국정부가 불편한 반응을 보인데 대해 자신이 바라는 바는 티베트의 독립이 아니라 완전자치임을 재천명했다.

<출처: AP 통신>

英 아미타 트러스트 생활불교회의 개최



영국 아미타 트러스트의 회원들

유럽불교연맹의 회원조직인 영국 라이체스터셔 나보로우의 아미타 트러스트는 '틀을 깨고 불교의 서구 진출 및 참여'라는 주제로 2008년 4월 26일부터 10일간 제5차 생활불교회의를 개최한다.

불교와 예술 등 주제별 소모임, 다종교 속의 불교 교육 등 사전 행사에 이어 이후 5월 5일까지 기조연설, 본 회의, 워크숍, 전시회로 이어지며, 불교 임상심리, 치유, 자원봉사, 교화, 상조 및 유관사업 등 실용적 측면을 강조한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불교가 정적이며 개인적인 자기수양이란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질적인 서구사회환경에 파고드는 접근방식 등이 논의된다.

영국 전역에 네트워크를 지닌 아미타 트러스트는 지난 15일부터 뉴카슬 지부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미얀마 사태에 대한 침묵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 진흙 속의 연꽃 lotus in the mud 홈페이지>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Because I'm Here – 내가 여기 있으니까요

원문:Because I'm Here

An old monk was sweeping the yard in a monastery under the scorching sun. Another monk passed by and asked him, "How old are you, venerable?"

The old monk silently replied, "I'm seventy-seven."

A bit surprised, he asked again, "You are so old! Why are you still working so hard here?"

"Well, because I'm here."

"But why are you working under the scorching sun?"

"Because the sun is there."

해설:나 여기 있음에

노스님 한 분이 뙤약볕 아래서 절 마당을 쓸고 계셨다. 그 곁을 지나던 다른 스님이 물었다. '스님, 세수가 얼마나 되시는지요?'

노스님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내 나이 일흔 일곱이라오.'

좀 놀란 그가 다시 물었다. '네? 연세가 그리 높으시다구요? 그런데 어인 일로 여태 여기서 힘든 일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필이면 왜 저 따가운 햇볕 아래서 일을 하시는지요?'

'해가 저기 있으니까요.'

大韓護國佛教 彌勒禪宗

종도모집안내

대한호국불교 미륵선종은 중국 숭산 소림사에서 禪의 初祖이신 達摩大師의 法脈을 **소림사 釋永信 방장으로부터 전법 수계받은 제34대 제자 釋延和 총무원장**께서 창종하신 종단으로 한국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종풍을 청정케하고 禪花를 꽃피우고자 분연히 일어선 종단입니다.

이에 뜻을 함께하실 종도들을 모집합니다.

총무원장 德山 釋延和



△총본산 용화사

총본산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암 2리 산 247번지 미륵산 용화사
전 화 : 033)765-0122(스님), 761-7008
02)766-6800 / 011-285-6800
인터넷 : 용화세계 / www.yb108.com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봉 해동불교 무량종 행

창종 발표 및 법회

총무원장 학 성 대종사

창종 법회 일시

■ 일시 : 2007년 음력 10월 7일(양력 11월 16일) 오전 10시
■ 장소 : 해동불교 무량종 총본산 전남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10-1번지 무량사
■ 문의 : 061) 683-7147, 010-3114-4074

해동불교 무량종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⑧
(修習止觀坐禪法要)

總說 6 以此推之 止觀豈非泥洹大果之要門 行人修行之勝路 衆德圓滿之指歸 無上極果之正體也

이상에서 서술한 지관쌍운의 이치로써 관찰해본다면 지관은 위없는 열반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수행문이며, 열반으로 통하므로 수행인에게 가장 뛰어난 수행인지(因地)이다. 다시 말해서 삼계생사를 벗어나려면 따로의 길이 없고 열반에 오르는 것도 지관수행 하나의 문이 있을 뿐이며 다시 모든 공덕까지도 원만하게 귀결하는 곳이기도 하다. 지관이라는 두 법은 주력을 하거나 염불을 하거나 좌선을 하거나 이들 가운데서 어떤 특정한 수행만을 지적해서 따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수행이 이 법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관수행이 아니면 불법을 밝힐 수 없고 또 대승불교의 진수도 드러나지 않는다.

몽매한 마음 열어주고 무상불도를 성취하는 법

若如是知者 止觀法門 實非淺故 欲接引始學之流輩 開蒙冥而進道 說易行難 豈可廣論深妙

여기에서는 소지관을 행해야 하는 까닭을 밝혔다. 가령 지관이라는 두 법을 이와 같이 명료하게 안다면 지관의 의미는 실로 얕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관개요는 처음 발심하여 지관을 배우는 무리들을 인도하여 그들의 몽매한 마음을 열어주고 무상보리의 불도를 전수하게 하려고 앞에서 이 같이 설명하였을 뿐이다.

대체로 지관의 도리는 언어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만 몸소 실천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초학에게 심오한 지관도리를 처음부터 광대하게 논변할 수 있겠는가.

옛말에 "천리 먼 길을 첫걸음에서 시작한다"고 하였는데 소지관에서 이미 광대한 마하지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개요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옛 큰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높은 누각도 흙 한 줌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이는 소지관의 경우에 딱 걸맞는 말일 것이다.

今略明十意 以示初心行人 登正道之階梯 入泥洹之等級 尋者當愧爲行之難成 毋鄙斯文之淺近也

이 대목은 천태지자 대사가 초학들에게 고구정영하게 지관수행에 힘쓰라고 권하는 말씀이다. 앞으로 지관수행의 시종전말을 열 단계로 나누어 드러내 초심행인이 보리의 정도에 올라 끝내 열반으로 진입하게 하려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다.

'정도(正道)'는 무상보리정각의 도를 지적한 것이며 '계제(階梯)'는 수행이 점진적인 순서를 밟아 끝내 심오한 경지에 들어간다는 의미이다.

이상의 두 단어는 이 지관이야말로 불도의 정대광명한 길을 성취하고 역시 무상대열반으로 들어가는 수행단계를 환하게 드러낸 것이다.

'심자(尋者)'는 불법을 배우는 초심인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불도를 수행하고 연구하는 자라면 수행을 성취하기 어려움을 부끄럽게 여겨야지 뜬구름 잡는 식으로 고상함만을 추구하면서 '소지관'의 문장이 천로한 초학을 위해 쓰였다 해서 비루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지관법문은 열반에 드는 요긴한 문 모든 공덕까지 원만하게 귀결시켜

若心稱言旨於一瞬間 卽智斷難量 神解鮮莫測 若虛構文言 情乖所說 空延歲月 取證無由 事等貧人數他財寶 於己何益者哉

가령 수행인의 마음이 여기에서 설명하는 지관에 있어서 언어와 그 의미가 서로 부합하여 그 말에 걸맞게 실천한다면 한 순간에 지덕(智德)과 단덕(斷德)을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성취할 것이다. 지수행을 한다면 모든 번뇌를 끊는 단덕을 성취할 것이고, 관을 실천하면 바로 지덕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번뇌를 끊음으로 해서 법신이 출현하고 지혜가 일어나므로 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공덕이 일어난다.

지덕과 단덕을 점진적으로 심오하게 깨달아 들어가면 끝내는 그 수행공덕이 한량없을 것이므로 그에 따른 신통과 지혜도 자연스럽게 목전에 나타나 이도 역시 그 한계를 헤아릴 수 없게 된다. 이를 중생을 끝없이 제도하는 은덕(恩德)이라고 한다. 이상의 세 가지 덕이 부처님이 구경정각을 성취했을 때 나타나는 열반삼덕(三德)이다.

그러나 부질없이 언어문자만을 추구하고 헤아리면서 진실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지관설명의 본질을 어기게 된다. 이는 부질없이 세월만을 허비할 뿐이니 실로 애석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알아야 할 것은 세월은 신속하여 잠시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찰나의 시간일망정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는 단정코 깨달을 길이 없을 것이다. 종일토록 언어 명사나 분별하면서 이론에 집착하여 불교를 연구한다면 그는 마치 가난한 사람이 하루 종일 남의 재물이나 계산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것이 자기에게 무슨 털끝만한 이익이 있겠는가.

영가(永嘉) 스님은 이런 경우를 두고 "문자나 헤아리는 일을 쉬지 않는다면 마치 바다에 들어가 모래를 세듯 부질없는 수고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이 한 문단은 지자 대사가 철저한 자비심으로 후세에 불법을 배우는 자들에게 한번 따끔하게 경책하고 있다.

'소지관' 전편이 총 10장으로 구성되었음은 이미 서론에서 대략 서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지관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시 좀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1. 구연(具緣)

지관수행을 하려면 첫째 조건이 반드시 내적으로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그 조건이란 첫째 계율을 청정하게 지녀야 하며, 둘째 의복과 음식이 부족하지 않아야 하며, 셋째 고요한 처소에 한가하게 거처해야 하며, 넷째 모든 번거로운 일을 쉬어야만 하며, 다섯째 올바르게 인도해줄 선지식을 만나야만 한다. 지관수행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이 같은 다섯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추어야만 한다.

2. 가욕(呵欲)

이상에서 내적인 다섯 조건을 이미 충족했다면 두 번째로는 외적으로 반드시 다섯 욕구를 꾸짖고 물리쳐야만 한다. 첫째는 외적으로 색성향미촉인 오진경계에 대한 욕구를 반드시 꾸짖고 물리쳐야만 한다.

3. 기오개(棄五蓋)

오욕을 이미 물리쳤다면 다음으로는 마음속에 내재해 일어나는 탐욕과 진심과 수면과 산란심과 의심을 버려야만 한다. 여기까지 도달해야만 내적인 번뇌와 외적인 경계, 이 모두에서 장애가 말끔히 제거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번뇌(煩惱)

중생들은 의식적 · 무의식적으로 욕망과 집착에 사로잡혀 고락(苦樂)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됨으로써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번뇌를 중생을 자유롭지 못하게 속박하고 고통으로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결(結), 결박(結縛)이라고 합니다. 또는 결업(結業)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번뇌로 인해 여러 가지 악업이 발생하므로 그로 인해 얽혀지는 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번뇌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으나 크게 분류하면 근본번뇌(根本煩惱), 수번뇌(隨煩惱), 견혹(見惑)과 수혹(修惑), 번뇌장(煩惱障), 소지장(所知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본번뇌는 모든 번뇌를 파생시키는 근원적인 번뇌로서 탐(貪) · 진(瞋) · 치(癡) · 만(慢) · 의(疑) · 악견(惡見) 등 여섯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악견은 신견 · 변집견 · 사견 · 견취견 · 계금취견 등 다섯 견으로 나누어 앞의 탐 · 진 · 치 등의 다섯 번뇌와 합하여 십 번뇌, 십수면(十隨眠)이라고 합니다.

중생을 속박한다는 의미서 '결(結)' 탐진치 등서 벗어나야 번뇌 끊어져

수번뇌는 근본번뇌에 수반되어 일어나는 종속적인 번뇌로 스무 종류가 있습니다. 수번뇌는 다시 대 · 중 · 소로 나뉘는데 이 세 종류의 번뇌를 '삼수번뇌(三隨煩惱)'라고 합니다. 이는 작용의 범주가 다를 뿐 동일하게 근본번뇌를 따라서 일어나므로 '지말번뇌(枝末煩惱)'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지말번뇌의 근본인 근본번뇌는 수번뇌에 상대적으로 대비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모든 번뇌의 체(體)가 되는 근본번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탐심(貪心, 집착하는 마음)
①자체탐(自體貪) ②후유탐(後有貪) ③사속탐(嗣續貪) ④남녀탐(男女貪) ⑤자구탐(資具貪) ⑥탐탐(貪貪) ⑦개탐(蓋貪) ⑧견탐(見貪)

(2) 진심(瞋心, 증오하는 마음)
①유정진(有情瞋) ②경계진(境界瞋) ③견진(見瞋)

(3) 치심(癡心, 어리석은 마음)

(4) 만심(慢心, 업신여기는 마음)
①아만(我慢) ②만(慢) ③과만(過慢) ④만과만(慢過慢) ⑤증상만(增上慢) ⑥비만(俾慢) ⑦사만(邪慢)

(5) 의심(疑心, 의심하는 마음)

(6) 악견(惡見, 사악한 견해)
①신견(身見) ②변집견(邊執見) ③사견(邪見) ④견취견(見取見) ⑤계금취견(戒禁取見)

■정리=張如舟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시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 (예금주 : 이하림) 카드결제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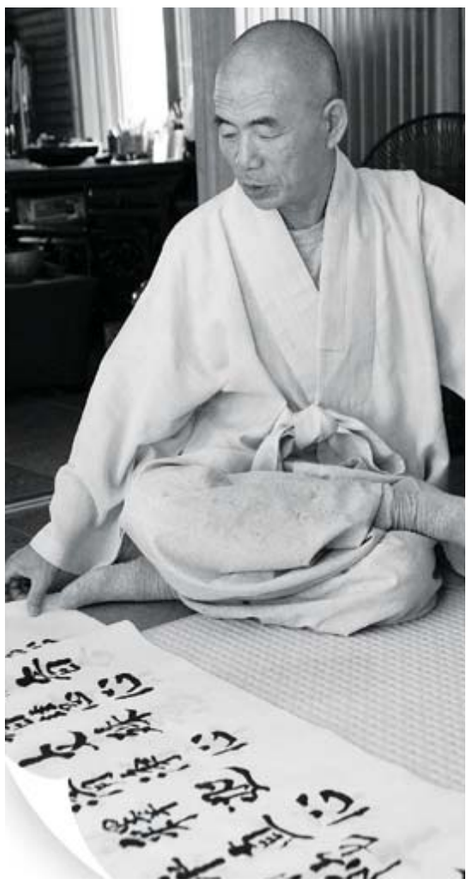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고요함에 이르지 못하면 밝음도 볼 수 없다”


대허 스님 (경주 보문선원 선원장)

선지식을 찾아서 대허

대허 스님은 계룡산 갑사에서 혜원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1965년 범어사 동산 스님께 보살계와 비구계 수지. 묘관음사에서 향곡 스님으로부터, 통도사 극락암에서 경봉 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또 망월사에서 춘성 스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그 외 동화사 선원, 오대산 상원사, 문경 봉암사, 선산 도리사 선원에서 안거를 성만하였다. 23년 전인 1984년 경주 남산 아래 보문선원을 지어 대중들에게 참선을 지도하고 있다.



보문선원으로 가는 길은 아름다웠다. 길가의 벚나무들은 어느새 불그레한 빛을 띠고 있다. 저 멀리 남산이 보이고 거칠 것 없이 툭 펼쳐진 들녘은 노란빛이다. 보문선원에 들어서자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있는 포대화상이 먼저 반겨주었다. 대허 스님의 미소 또한 온화하여 사람을 편하게 해주었다.

대허 스님은 옛날에 불교를 꽃피웠던 경주가 좋아 23년 전에 이곳에 터를 잡았다. 보문선원 부근에는 신라 때 2000여명의 스님들이 살았던 ‘보문사’라는 절터가 남아 있다. 또 보문사 절터 가까이에는 진평왕의 무덤이 있는데, 진평왕은 2000명이나 되는 대중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불사를 하였다고 전한다.

“세상은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은 못 속입니다. 혐존자는 3년 동안 앉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공부하여 도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나는 출가한지 50년이 넘었건만 이루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수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스승 만나는 것이 큰 복인데 일단은 인천(人天)의 스승인 부처님을 만났으니 큰 복이 있는 것이요, 젊었을 때 향곡 스님과 춘성 스님으로부터 배웠으니 복이 많은 것이지요.”

스님은 속가와의 인연은 길지 않았다. 초등학교를 다니던 13세에 가출을 하여 산문에 들었다. 계룡산 갑사에서 머리를 깎고 사미계를 받았다고 하니 불가의 지중한 인연을 짐작할 수 있다.

“돈, 벼슬, 재주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3대 요소이지만, 절에서는 자비와 지혜가 제일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십시(十施)가 있는데, 첫째는 법시(法施)라 하여 중생에게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둘째가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애보시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약을 지어주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는 것 등이 무애보시가 되겠지요. 물질로 하는 재시(財施), 밥을 해 준다거나 청소를 해주는 등 몸으로 하는 신시(身施), 눈으로 미소를 지어 주는 안시(眼施), 얼굴 가득 웃음을 지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안시(顔施), 편안한 자리를 내어 주는 좌시(坐施), 방을 내 주는 방시(房施), 좋은 말을 해주어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언시(言施)가 있어요. 남에게 이익이 되고 깨우침의 길로 이끌어 주는 말은 살아있는 말이요, 남에게 불이익을 주고 마음을 헤치는 말은 죽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마디를 해도 살아있는 말, 기쁨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십시는 마음만 먹으면 실천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말은 화려하게 잘 하는데 실천행이 부족해요.”

선원 옆 땅에서 농사 지으며 ‘자급자족’ 실천
“가능한 일은 스스로 하는 것이 수행자의 삶”

대허 스님은 선원 옆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직접 짓는다.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고 있다. 스님은 50년 넘게 수행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 수행자의 삶이라 생각하고 살아온 것이다.

“19세 때 고봉 스님의 49재를 위하여 서울로 심부름을 오게 되었지. 계룡산 촌놈이 서울에 왔으니 볼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파고다 공원의 원각사탑을 보니 어찌나 맘에 들던지 언젠가는 저 탑을 꼭 한 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본 원각사탑을 잊을 수가 없어서 보문선원 마당에 세워놓았다고 하니 스님의 집념을 알 수 있다. 넓지 않은 마당에 원각사탑을 본 뜬 10층탑과 포대화상이 있다. 그 뒤쪽에는 미리 만든 대허 스님의 부도탑이 있다. 대허 스님은 부처님을 모시고 살아온 자신의 삶을 이렇게 조각으로 표현하였다.

대허 스님은 22세 때 묘관음사에서 향곡 스님을 모시고 공부하였다. 강원을 다니지 않았던 스님은 아는 것이 별로 없어 궁금한 것도 많았다. 향곡 스님께 “600권 <금강반야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라고 청하였더니 이런 대답을 해 주시더란다.

“다른 사람 소견은 모르겠지만, 나는 수보리의 ‘희유세존이여!’ 이 한마디였어.”

향곡 스님의 간단명료한 답변에 대허 스님은 깊은 환희심을 느꼈다고 한다. ‘희유세존이여’ 라는 말은 ‘나는 당신에게 완전히 귀의하겠다’는 항복기심(降伏其心)을 드러낸 말이다.

대허 스님은 참선이 좋다 염불이 좋다고 말하지 않는다.

“참선과 염불은 둘이 아니며 깊이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염불은 최고 진리의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참선이든 염불이든 사경이든 자기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극진히 하면 됩니다. 많은 경전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얼마나 깊이 받아들여 실천하는가가 중요하지요. 도(道)란 거친 것이 삭아져서 고요함에 가닿는 것입니다. 고요함에 이르지 못하면 밝음도 보지 못합니다. 마음을 쉬고 쉬어서 더 쉴 수 없는 곳까지 다다랐을 때 공부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부도탑을 직접 만든 것에 대하여 질타도 하지만, 대허 스님은 당신 손으로 직접 만들고 싶었다고 한다. 스님은 자신의 부도탑에 <금강경오가해>에 나오는 게송 한 구절을 새겨놓았다.

‘역천겁이불고 긍만세이장금(歷千劫而不古 亘萬歲而長今), 천겁을 지나도 이것은 옛것이 아니요 만년을 자라도 이것은 그보다 더 긴 것이다.’ 이 구절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불생불멸의 세계를 뜻하는 것이다. 스님은 자신의 부도탑을 보면서 좀 더 수행에 매진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날마다 새롭게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다짐을 한단다.

대허 스님은 자신은 못난 것이 갖추어졌고 무식한 것이 갖추어졌고 키 작은 것을 갖추었다는 농을 하였다. 그렇지만 사람은 겉모습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 20여년을 향곡, 고봉, 효봉, 춘성 스님을 모시고 공부하였으니 그 수행의 깊이는 감히 짐작할 수 없다. 지금도 선방 수좌들은 경주에 오면 이곳 보문선원에서 묵어간다고 하니, 대허 스님의 수행담이 듣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닌가 싶다.

대허 스님은 <육조단경>의 한 구절을 붓글씨로 써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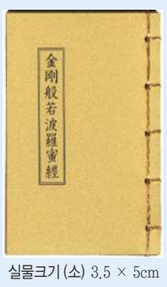
“자비심은 관음이요, 지혜심은 문수로다. 청정심은 석가요, 평상심은 미타로다.”

마음속에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부처님이 다 갖추어져 있음을 뜻하는 구절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잘 단속하는 것이 도에 이르는 길임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보문선원을 나와서 진평왕 무덤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황톳길을 걸으면서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신라의 스님들도 거닐었다고 생각하니, 내딛는 발걸음마다 알 수 없는 그리움으로 가득 찼다.

글 · 사진=문윤정(수필가 · 본지논설위원)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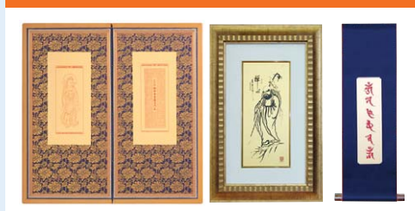

金剛般若波羅蜜經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용 소장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소 병 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메훔족자 60 × 20cm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소)20×12×12cm 9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금강약돌 온열복대를 사용하시면 80℃이상의 열과 생육광선이 발산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생리통, 허리통증완화 허리디스크, 고관절, 어깨 결림등을 자연적 치유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쑥뜸보다 열이 높고 사용이 편리하며 고열의 원적외선 “열침”이 신체 깊은 곳까지 도달하며 70℃~80℃ 이상의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원적외선의 원리로 뜨겁거나 화상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랫배가 냉하신분 ◆손,발이차신분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허약한 氣회복 ◆생리통, 허리통증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 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배, 허리, 발바닥 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다용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73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불교는 시작도 끝도 수행…성불의 씨앗 심어야"

데스크 초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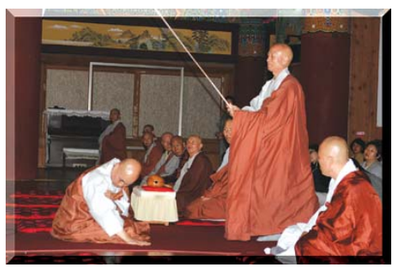
제주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

'고승 초청 대법회' 열고 300여 불자와 더불어 철야 정진

한 도량에 만인이 존경할 만한 큰스님 한 분이 있어도 불자들에겐 큰 위안과 행복일 것이다. 그런데 여섯 분의 큰스님을 모시고 하룻밤을 한 법당에서 정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장엄한 기쁨이겠는가? 10월 23일 제주 약천사(회주 혜인) 극락전은 '극락' 이었다. '고승초청 철야용맹정진 대법회' 가 열렸다.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의 사자후로 시작된 법회는 태풍 나리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하는 공연에 이어 본격적인 철야정진으로 진행됐다.

수덕사 수좌 설정 스님, 前 조계종 종회의장 지하 스님, 지리산 원각사 해동선원장 태응 스님, 백양사 유나 지선 스님,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이 이날의 용맹정진을 이끌었다. 수덕사 총무 무애 스님과 정혜사 입승 선전 스님, 한국미얀마 선원장 산디마 스님도 불자들과 함께 선정 삼매에 들었다. 40분 정진과 20분 방선으로 새벽까지 이어진 용맹정진에는 3000여 불자들이 동참했다.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은 24일 아침 법회가 끝난 뒤 "수행하지 않으면 불교가 아니다"며 "정진의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약천사 고승초청 철야용맹정진 대법회 모습(위사진) 참선 때 경책 받는 법을 시범보이는 혜인 스님(왼쪽)과 설정 스님.

–법회가 아주 엄숙하게 진행됐습니다. 큰스님들을 초청해 이런 법회를 연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지요?

"약천사는 20년이 넘는 기간의 불사를 거쳐 오늘날의 도량을 이루었습니다. 이 도량은 불법홍포와 사회교화 그리고 요익중생과 동성불도(同成佛道)를 활동목표로 삼고 있어요. 이는 저의 은사이신 일타 큰스님의 유지이고 약천사 모든 대중의 뜻이기도 합니다. 은사스님께서는 약천사 불사가 시작될 때 '원만불사도 중생(圓滿佛事度衆生)' 이란 글을 보내셨습니다. 불사를 잘 회향하여 중생을 제도하라는 가르침이었지요. 그래서 4가지의 활동목표를 정하고 수행과 포교의 도량을 가꾸고 있습니다. 큰스님들을 초청해 불자들에게 정진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평생 정진에 매진하시는 큰스님들의 가풍을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수행의 기회야말로 승속을 하나로 융화시키고 지나친 기복의 풍토를 쇄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밤 동참한 불자들은 여러 큰스님들의 흐트러짐 없는 정진력을 보고 큰 감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약천사에서 이 같은 형태의 법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었는데 원만하게 회향되었습니다. 소감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터를 잡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의 단칸집이 전부였어요. 그런 곳에서 20년 넘도록 불사를 추진하며 힘든 일도 많았고 힘들 때마다 뼈를 삭이는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고 불자들과 더불어 정진하는 마음으로 도량을 가꿔왔습니다.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여 도움을 주었는데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까 늘 고민이었지요. 그래서 큰스님들을 모셔서 함께 정진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경전에도 '칠보로 탑을 짓는 것보다 한 구절의 경전말씀을 전하는 공덕이 크다' 고 했잖아요. 큰스님들의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그 앞에서 좌정하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자기의 주인공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 이 하룻밤의 수행 공덕은 성불의 귀한 씨앗을 뿌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인연이 헛되지 않아서 모두 성불하는 도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순간이야말로 불사를 한 보람을 느낍니다."

–아무래도 수행에서 얻는 보람보다 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불자는 수행과 전법이 사명입니다. 여기저기 도량이 거룩하게 지어지는 것도 수행과 전법을 위해서이지 호의호식하기 위함이 아니지요."

–요즘 불교계에는 여러 형태의 수행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수행불교는 지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수행에 소홀하니까 욕심이 생기고 권력과 재물에 집착이 생기면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수행에서 시작해 수행에서 끝나는 가르침입니다. 수행불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님과 재가자를 구별할 것 없이 함께 수행하고 함께 전법하는 기회를 자주자주 만들어야 합니다. 승가는 지나친 권위의식을 버려야 하고 재가는 구복과 기복을 버리고 수행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부대중이 교단을 청정하게 이끌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도량을 둘러보니 곳곳에 스님의 원력과 제주지역 불자들의 불심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여기 지명이 서귀포잖습니까? 서쪽은 극락세계이니 극락으로 돌아가는(귀의하는) 숭고한 곳이 바로 서귀포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고 아미타 부처님과 약사여래 부처님을 모신 이유도 청정불국토를 장엄하는 진정한 수행의 도량이고 극락세계를 열어가는 실천의 도량이고 일체중생의 고통을 제도하는 원력이 큰 도량이란 뜻을 잠시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지역 불자뿐만 아니라 이 도량에 한번이라도 인연을 맺은 사람은 다 성불의 인연을 맺은 사람입니다. 아직 크고 작은 불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불사를 위한 불사가 아니고 수행과 전법의 도량을 일구는 일이므로 불사도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임연태 기자



큰스님들의 사자후

"목숨 떼어 놓고 오로지 정진에 몰두하라"

약천사 '고승초청 철야용맹정진 대법회'를 시작하며 법석에 오른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동국역경원장)은 법어를 통해 "과거와 미래의 시간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고 강조했다. 월운 스님은 "계 정 혜 3학을 부지런히 닦으면 순간순간 안일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흔들림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다"며 "부처님을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베도록 노력하다"고 말했다. 자정부터 용맹정진이 시작되자 큰스님들이 직접 정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자세를 일러주는 등 엄숙하면서도 정겨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수덕사 수좌 설정 스님은 "목숨을 떼어 놓고 오로지 정진에만 몰두하여 삶과 죽음의 경계를 벗어나는 것이 용맹정진"이라며 "한 순간이라도 자신을 속박하는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즐거움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해동선원장 태응 스님도 "참선은 '한다' 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무너져 버리는 것"이라며 '조건도 이유도 따지지 말고 밀어붙이면 누구나 성성적적할 수 있다"고 독려했다. 이날 정진의 유나를 맡은 지하 스님은 "정진 중 일체 묵언하고 옮겨 다니지 말고 경책을 순응하라"며 정진 규칙을 발표했고 지선 스님은 참선의 자세를 아주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입선(入禪)에 앞서 정진중에 경책을 받는 방법을 설명하며 설정 스님과 혜인 스님이 직접 시범을 보여 참가자들이 더욱 분발심을 냈다. 장군죽비를 든 설정 스님은 "경책을 달게 받는 것도 수행"이라며 일념정진을 당부했다. 임연태 기자

"사찰난방
저렴하고 강력한 한열나무보일러가 최고입니다"

초대형 나무보일러는
역시 한열테크가 가능합니다



● 수평형이며 연도가 3패스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옆으로 긴형태의 보일러로써 나무를 태운열기가 앞-뒤,뒤-앞, 다시 앞-뒤로 열기 3번돌아 열효율이 높습니다.

● 룸 스위치가 있어 온도조절이 쉽습니다.
방안의 스위치로 온도조절이 가능하므로 대단히 편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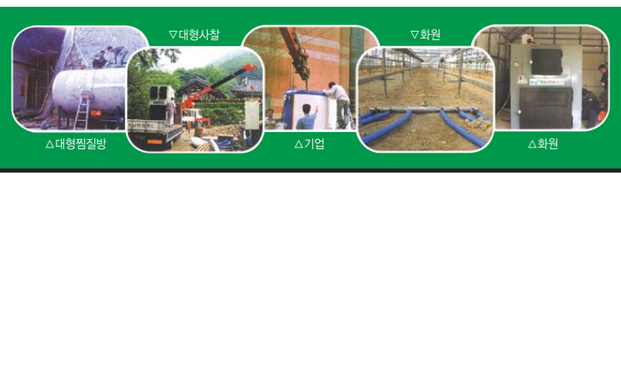
● 화실이 크고 사용하기 편합니다.
화실이 크기때문에 길고 굵은 나무를 넣을 수 있어 난방이 편리합니다.

● 대형사찰, 복지시설등 200평이상 난방 및 온수가 가능한 기술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200평이상의 대형 공간에도 난방 및 온수 사용이 가능한 검증된 기술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 연도구조 청소가 쉽습니다.
나무를 태우면서 생기는 목초액이 연통에 붙어 연도를 막히게 하지만 연도 구조를 간단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청소가 쉽습니다.

2004Korea Consumer Best Awards 한열나무보일러 스포즈서울 라이브쇼장 2004년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2005년 히트상품&서비스경영대상

대한민국 업계 최초 발명특허, 실용신안, 국제표준,
기술평가 결정서를 획득한 기업은 한열나무보일러가 유일합니다.



A/s안내

무상서비스
- 제품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의 보일러 본체의 부품불량 및 문제 발생시 무상수리 및 무상교환 가능합니다.

유상서비스
-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
-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
- 전기사용 잘못으로 인한 고장
- 동파로 인한 고장
- 모타 펌프 이상으로 인한 고장
- 본사의 설치도면을 어기고 개인 설비업자의 임의 설치로 인한 고장

서비스 신청요령
- 매매계약서 보관
- 보일러에 이상이 있을시 설치 대리점으로 문의

HYT 한열나무보일러
주소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 432-29번지
전화 054-482-3339 / 휴대전화 016-255-5191
공장 : 경북 영천시 고경면 용전리 382번지
전화 054-333-5191 / 팩스 054-338-1006
www.hnboiler.co.kr

www.msdfarm.co.kr

"늘 피곤하고 몸이 천근만근"

"마늘 좋은 줄 알면서 냄새 때문에?"

◆1박스(30팩) ₩45,000
◆2박스(60팩) ₩90,000
※2박스 구입시 숙성흑마늘 (판매가 ₩18000) 2×6팩 증정

밀양 신지식인 제1호 이용주가 개발한 흑마늘 진액은 가문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화 했다.
수십종의 건강 식품을 연구 개발하였지만 이처럼 자기 이름을 내건 배짱은 제품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꼼보약방가 제조 공법도 매우 색다른 방법이다. 자연에서 아무런 첨가물 없이 전통 옹기에서 21일간 숙성한 흑마늘은 냄새없고 흡수가 빠르고 그만큼 느낌도 빠르다.

흑마늘 숙성 과정

"숙성 흑마늘"이란? 토종 흑마늘을 자연 숙성 시킴으로서 마늘 특유의 불쾌한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고, 마늘 본래의 유효성을 손상시키는 일 없이, 생마늘에 비해 항산 화력이 거의 10배로 상승하며, 콜레스테롤의 산화 및 활성 산소 발생을 억제 예방하는 폴리페놀의 함유량이 대폭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꼼보약방가 흑마늘" 이래서 믿음이 간다
◆대한민국 토종 흑마늘로 까다로운 미국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일체의 첨가물없이 자기발효시킨 무가당, 무방부제, 무색소!!
◆전통방식의 숙성비법으로 마늘 특유의 냄새를 완벽하게 제거!!

"이것저것 먹어봐도 별로였다"

산삼 흑산고 黑蒜膏
◆1kg(5개월분) ₩398,000

늘 피곤하고 천근만근한 몸으로 무슨 일을 해내겠는가?
내 몸을 위해 딱히 믿고 먹을만한 건강식품의 선택이 쉽지는 않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당신의 몸을 위해 만든 건강 식품이 있다. 바로 배양근 산삼, 녹용, 천마, 토종흑마늘로 100일 동안 숙성 발효한 산삼 흑산고이다.

"간편하고 먹기좋은 "이용주 흑마늘 환"

이용주 흑마늘환 세트
◆4개월분 ₩8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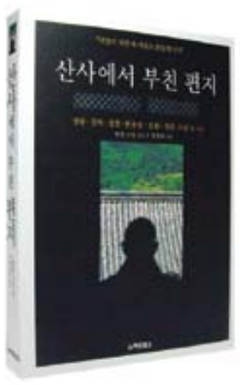
흑마늘, 검은깨, 흑미, 검은 콩으로 천연숙성한 먹기 좋고 간편한 "환"으로 안토시 아닌과 베타카로틴 등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해외로 수출되는 "황제 흑마늘"

황제 숙성 흑마늘
◆1개월분(2×15팩) ₩45,000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시장을 개척한 황제 흑마늘은 전통 방식 옹기 숙성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꼼보약방가 100년 정성으로 엄격한 검수를 거치는 3단계 품질 관리시스템을 적용한 웰빙 식품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100년 전통 100년 정성 명 세 당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35-1
☎ 055)353-5001
농협 946-12-362513(예금주:최경란)
판매문의 : 금강선원 명명스님 017-587-7193
무료전화로 제품신청 080-353-5000



산사에서 부친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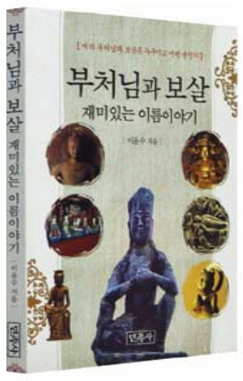
역대 큰스님들이 수행 중에 주고받은 130여 편의 주옥같은 삶의 화두들!

이 책은 통도사 극락선원의 선원장 명정 스님이 본인의 스승이었던 경봉 스님이 남긴 유품 중 50여 명의 고승들이 한자로 쓴 130여 통의 편지를 현대어로 옮긴 것이다. 17살에 출가한 이후 43년 동안이나 경봉 스님을 스승으로 모셨던 명정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주옥같은 화두가 담긴 편지들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에 실린 편지들 속에는 경봉, 경허, 성철, 한용운, 효봉, 청담 스님 등 우리나라 큰스님들이 주고받은 선문답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어 독자들은 불가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의 생생한 선문답의 현장을 엿볼 수 있다.

명정스님 옮김, 정성욱 엮음 / 신국판 / 331쪽 / 13,500원

노마드북스 전화 02-3143-5805



부처님과 보살
재미있는 이름이야기

여러 부처님과 보살은 누구이고 어떤 분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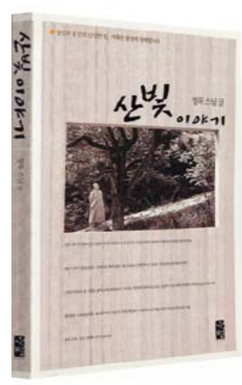
부처님과 보살에 얽힌 재미있는 이름 이야기를 담은 책

불자들은 집이나 절에서 부처님과 보살의 명호를 염송하고 기도하면서 산란해진 마음을 바로잡고 밝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런데 부처님과 보살이 맡은 역할을 정확하게 알기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불자라고 해도 쉽지 않다.

방송작가인 저자가 불심으로 엮은 이 책은, 석가모니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등 불교경전 속에 나타난 부처님과 보살에 관한 이야기를 재미있는 일화를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잔잔한 문체의 해설을 붙여 이해를 도와준다. 또한 부처님의 십대 제자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윤수 지음 / 신국판 / 295쪽 / 값 9,000원

민족사 전화 02-723-2403



산빛 이야기

당신과 내안의 거룩한 불성에 경배를!

오랫동안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온 정목 스님의 『산빛 이야기』

이 책은 저자가 16세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맺은 인연들을 돌아보며 쓴 편지를 담고 있다. 스님이 되기까지의 이야기, 스님이 되어서 만난 인연들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수행자로서 얻은 깨달음 등을 들려준다. 아울러 집착과 분별심에서 벗어날 때 해탈에 이를 수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정목지음/ 신국판 / 221쪽 / 값 9,500원

바움출판사 전화 02-714-2163



무비 스님이 가려 뽑은 명구 100선 세트

무비 스님이 가려 뽑은 명구 100선 완결편 불교의 핵심을 가르는 명구, 명쾌한 해설 한 편 한 편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열린다

한국불교의 강맥을 잇고 있는 전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범어사 승가대학 학장)께서 경전과 선어록 등에서 불교의 핵심을 가르는 명구를 가려 뽑고 명쾌한 해설을 덧붙인 『소를 때려야 하는가, 수레를 때려야 하는가』를 출간, '무비 스님이 가려 뽑은 명구 100선' 완결하였다. 명구집 4권을 한데 모은 '무비 스님이 가려 뽑은 명구 100선' 특별 세트는 마음을 밝히고 불교공부를 하는 이들에게 더없이 귀한 선물이 될 것이다.

무비 스님 / 4×6판 양장본 / 4권 1세트 / 값 35,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320-4200



손가락 하나 제대로보기

손가락을 봐라!

손가락 하나를 세워 눈앞에 둔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찬찬히 살핀다. 발견되는 중대한 사실 하나, 아무리 손가락을 이리저리 굴려 보아도 한 측면밖에는 볼 수 없다. 표면을 볼 때에는 이면 쪽이 안 보이고, 이면을 볼 때에는 표면이 숨겨진다. 왜 우리는 제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볼 수 없을까.

선의 공안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룬다. 왜 사물의 진상을 볼 수 없는지, 어떻게 하면 사물을 전체 그대로 볼 수 있는지를. 이 책은 바로 공간, 선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잡이, 손가락이다. 자, 손가락 하나를 세워 눈앞에 대고, 이게 무엇인지 살펴보자.

이원섭 지음 / 신국판 / 435쪽 / 값 14,500원

불교시대사 전화 02-730-2500

| 부처님 전생이야기 |

자타카의 노래

신간

자타카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를 뜻하는 말로, 자타카에 나오는 부처님의 모습은 왕, 신하, 장자, 서민 같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코끼리, 사슴, 원숭이, 토끼, 공작, 물고기 같은 동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타카의 노래〉는 부처님 전생이야기 스무 편을 가려 뽑아 만화로 엮어서 온 가족이 함께 읽는 재미를 더해 줍니다.

김장열 글 · 그림 | 크라운판 | 올컬러 |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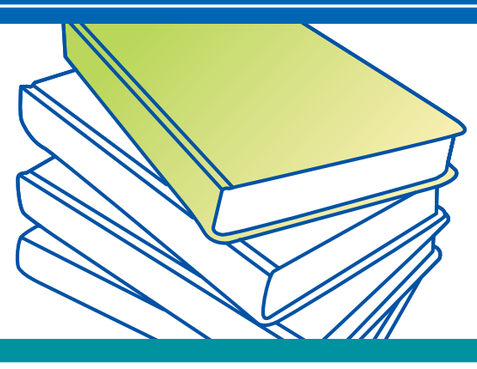


http://www.sol-baram.com 솔바람 Tel. (02)720-0824 Fax. (02)722-8760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13주년 선정

지면에 나온 출판연합서적 구입시 사은품을 드립니다.

- 3만원이상 구매 고객 :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테입세트 Ⅲ (오디오 테이프 4개입) 선착순 100세트
- 7만원이상 구매 고객 :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테입세트 Ⅱ (오디오 테이프 8개입) 선착순 50세트



BEST 추천도서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닷컴 book.buddhapia.com

주문 : 02-2004-8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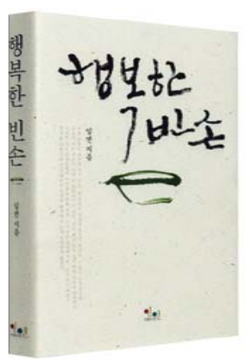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도 길은 있다

삶의 여유가 묻어나는 미소가 아름다운 지현 스님의 소박하지만 소중한 이야기들

지현 스님은 세상에 대한 애정을 시종일관 잃지 않으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는 현실 속에서 베푸는 삶과 나누는 실천을 함께 하고자 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자연이 가르쳐주는 삶의 여유를 배우는 것은 물론, 깨달음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지현 지음 / 신국 변형 / 272쪽 / 값 10,000원

아름다운 인연 전화 02-733-6390



행복한 빈손

"너희는 주불해라, 나는 후불탱화 하련다."

《행복한 빈손》은 척박한 포교현장에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신 일면 스님의 모습과 생각이 진솔하게 담겨 있다.

《행복한 빈손》에는 행동하는 이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간절한 마음가짐과 자취를 살필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자,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권할 만하다

일면 지음 / 신국 변형 / 320쪽 / 값 12,000원

아름다운 인연 전화 02-733-6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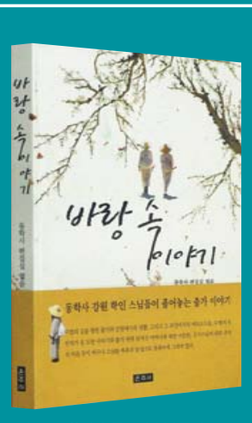
신불교천자문
(쓰기편, 자전편)

불교경전에 수록된 한자 1천자를 망라 해설한 책!!!

한문공부와 불교공부 및 쓰기공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성한 〈불교천자문〉
자전 · 용어풀이 · 중요귀절해설편. 한, 중, 영, 일 4개 국어로 번역해 수록하였다. 한문 글자의 음은 중국 발음, 일본 발음을 적고 영어는 뜻과 음을 모두 담았다. 불교 경전 중 8종 경전에 처음 나온 한자를 뽑아서 자전편에 실었으며, 8종 경전의 대의 정리와 술어 해설을 제공한다.

저자 덕진/감수 백운 / 쓰기편 131쪽, 자전편 291쪽 / 각권 값 7,000원

우리출판사 전화 02-313-5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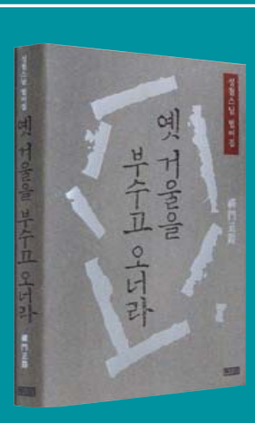
바랑 속 이야기

동학사 강원 비구니 스님들이 은근슬쩍 풀어놓는 마음자리와 출가 이야기

구법의 길을 향한 출가와 강원에서의 생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불허의 에피소드들, 수행의 동반자가 된 도반 이야기와 출가 뒤에 남겨진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 은사스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 등이 비구니 스님들 특유의 감성으로 담백하고 풋풋하게 그려져 있다.

김성갑 지음 / 신국판 / 288쪽 / 값 10,000원

운주사 전화 02-926-8361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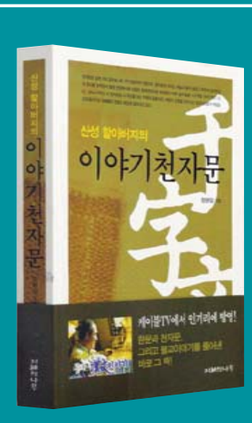
출간된 지 25년 만에 새롭게 만나는 성철 스님의 법어집, 〈선문정로〉!

한국불교계의 돈점 논쟁을 불러일으킨 성철 스님의 대표작,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한국불교계는 돈점(頓漸) 논쟁에 휩싸였다. 돈점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저자가 1981년 출간한 〈선문정로〉로, '돈오점수(頓悟漸修)'에 대한 비판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개정판』에서는 현대인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문장 해석 등을 첨가했으며, 한자는 괄호 속에 넣었습니다. 또한 저자 성철 스님이 1983년부터 〈선문정로〉를 교재로 해인사에서 강설한 내용을 추가하 여 이해를 도와줍니다. 원문 출처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성철스님 지음 / 신국판 / 424쪽 / 값 10,000원

장경각 전화 02-2198-5372



산성할아버지의 이야기 천자문

케이블 TV "산성 할아버지의 신사고 한문 이야기"로 방영된 강의를 엮어낸 화제의 책 !! 붓다의 가르침으로 보는 이야기 천자문 !!

이책은 불지견(佛智見)으로 천자문을 해설하는 책이다.
천자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이 세상을 세간법, 출세간법, 최상승법의 세 가지 차원으로 보는 붓다의 지견에다 저자의 체험적 소견을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케이블 TV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산성 할아버지의 신사고 한문이야기'를 엮은 것으로, 한문과 천자문 그리고 불교이야기를 함께 전해준다.

천명일 지음/536쪽/신국판 / 값 18,000원〈고급양장 값 25,000원 〉

지혜의 나무 전화 02-730-2211



무문관 그 수행 현장과 숭고한 구도 이야기

문없는 문, 빗장을 열다

한 선승(禪僧)의 무문관(無門關) 수행일기 최초 공개

밥구멍 하나 빼고는 사방에 막힌 방에 오직 화두 하나만 들고 참선하는 무문관 수행, 일본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무문관 생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일기가 공개 – 조선일보

무문관 수행자가 참선 중에 겪은 내면의 체험을 가감없이 기록한 일기체의 글은 유례가 없었다. – 문화일보

김성우 엮음
신국판 304쪽 / 값 12,000원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T. 02) 2198-5151 / 051) 244-1251



아토피, 여드름 어성초로 고친다

생즙과 배독법을 이용한 자연주의 치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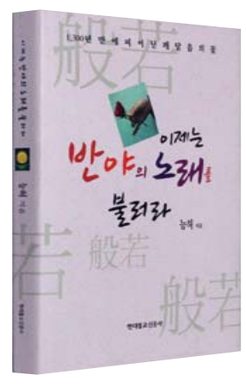
일본 히로시마 원폭투하를 이겨낸 이 시대의 최고의 해독초인 어성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모두 어성초를 먹어야 한다.

오래되고 어려운 질환들도 어성초를 쓰게 되면 증상과 질병이 호전되는 것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아무리 오래된 병도 불과 1-2달 안에 대부분의 증상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이런 치료 속도 또한 놀랍다.

– 본문 중에서 –

어성초한의원 원장 박찬영 지음 / 신국변형판 / 304쪽 / 값14,900

하남출판사 전화 02-720-3211



이제는 반야의 노래를 불러라

1,300년 만에 피어난 깨달음의 꽃

바라밀선원장(能虛)의 구도여정 그리고 깨달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온 까닭은?

"덕산탁발화와 파자소암의 두 공안을 다 통과했으니 내가 인가를 안할 수가 없어 눈 밝은 사람은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당당한 대장부라네. 자네는 재가자로서 1,300년 만에 확철대오의 꽃을 피운 것이네"

– 정일대선사 –

능허(能虛)거사 지음 / 양장본 신국판 / 238쪽 / 값1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2004-8234
(바라밀선원 전화 055-314-0116, 8)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서울 충무아트홀에서는

12월 23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클래식 악기 체험공연 놀자'가 진행된다. 서울 뉴데이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도 듣고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등을 직접 만지고 시연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있다. (02)547-9851

부천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는

11월 3일 교복 차림이거나 학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이유, 무전발악' 행사를 준비한다. 청소년들이 신나게 춤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에서는 댄스파티와 청소년 춤동아리 축하공연도 함께 즐길 수 있다.(032)344-4480

부천 복사골 문화센터에서는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 11월 2~6일 열린다. '학생창작의 힘, 상상쿠데타'를 주제로 한 이 행사에서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든 작품들이 대거 상영될 예정이다. (032)325-2061

완도 국민회관에서는

가족뮤지컬 '춤추는 피터팬'이 10월 31일 오전 10시 10분과 11시 20분, 2차례 공연된다. 환상의 동화나라에 사는 피터팬과 후크가 싸우고 정드는 과정을 코믹하게 그려 온 가족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02)2654-6854

과천환경21실천협의회에서는

이 단체가 주최하는 '해설이 있는 가족 숲속 여행' 11월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과천 청계산을 중심으로 숲생태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숲 해설은 11월 10일과 24일 진행되며, 각각 성인 15명, 학생 15명 모집한다. (02)3677-2729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동화구연, 어디서 배우나요? 사단법인 동련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부산 대한불교교사대학을 통해 전문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각 사찰에서 동화구연을 배우거나 동련(051-864-4569)으로 문의하면 된다.

불교동화와 동화구연의 세계

불교동화가 이렇게 재미있었나요?

"옛~날 옛날에 뚱~뚱한 곰이 살았어요. 뚱~뚱한 곰은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글쎄, 맛~있는 음식을 손으로 덥~석 집어 먹는 게 아니겠어요~."

윗글을 그냥 책 읽듯 죽 읽어보자. 뭔가 재미가 덜하다. 조금 유쾌한 목소리로 '~' 표시마다 길게 늘여읽고 손짓·몸짓을 적절히 섞어보자. 그렇게 동화를 풀어내면 읽는 맛도 좋고 듣는 사람도 신난다. '동화구연'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10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동화구연과 관련된 재미있는 행사가 열렸다. 어린이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사단법인 동련이 제3회 전국불교동화구연대회를 열었다.

동련에서 주최하는 불교동화구연대회는 불교동화, 동화구연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행사다. 올해는 아동부문 11명과 성인부문 15명의 참가자들이 예선을 거쳐 올라왔다. 참가내용은 불교동화가 70%, 전래동화가 30% 정도였다.

그리고 흔히 어린이는 동화구연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동화구연대회에 참여한 어린이들만 봐도 그렇다. 현장에 참여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화구연은 직접 해보면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

멀리 부산에서 올라왔다는 소연(8)이는 무대에서 하나도 안 떨렸단다. 소연이는 "엄마와 한달이 넘게 연습을 했다"면서 자신이 발표한 '아기곰과 보자기' 동화를 너무 좋아한단다.

천안에서 온 다겸(12·쌍정초등 5년)이는 발군의 실력을 뽐냈다. 결국 어른들까지 모두 제친 다겸이는 이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다겸이가 동화구연을 잘 한데는 이유가 있었다. 다겸이가 매주 가는 사찰 하남사에서 뮤지컬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란다. 물론 다겸이가 평소에 말하기를 좋아하고 표현을 잘 하는 것도 있었지만 말이다. 다겸이는 "동화구연을 하다 보니 뮤지컬 실력이 더 늘었다"며 자랑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참 대회에 대해 이야기 하다 갑자기 던지는 질문!

"불교에도 동화가 있나요? 재미없지 않나요? 지루한 설법 아닌가요?"

어린이청소년들의 오해가 있을만한 부분이다. 어른들이 읽는 경전, 스님들의 설법 등을 생각하다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전에도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얼마든지 있다. 비교적 잘 알려진 부처님의 전생 설화, 부처님 일대기는 물론 <아함경>이나 <백유경>등을 토대로 불교동화를 만들기도 한다. 특히 <백유경>은 그 자체가 교훈적인 내용의 98가지 이야기로 엮인 경전이라 불교동화의 단골 소재로 사용된다. 교훈적이라 해서 내용이 재미없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여느 세계명작동화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불교동화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진다.

그러나 불교동화만 생산해낸다고 해서 불교동화가 어린이들에게 잘 다가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에게도 불교동화는 색다른 재미를 준다. 이럴 때 구연이 필요하다. 아직 불교를 이해하지 못한 아이들과 노안으로 책 읽기가 힘든 어르신들에게 동화구연을 통해 불교가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가 동련에서는 요즘 플래시애니메이션도 제작하고 있다. 애니메이션에 동화구연 기법을 담은 소리를 녹음, 몇몇 사찰의 법회 때 상영한다. 요즘 아이들이 영상세대다 보니 그냥 동화구연을 할 때 보다 반응이 괜찮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동련에서 불교동화를 짓거나 동화구연을 하는 선생님들이 모두 13명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 아직은 관심을 가지는 스님도, 불자들도 적다.

그렇다고 해도 불교동화와 동화구연에는 희망이 있다. 이번 대상자가 초등 5학년 학생임을 보았을 때만 해도 그렇다. 앞으로 초등학생은 동화구연에, 청소년들은 동화를 개작하는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찰이 이끌어준다면 어린이를 넘어 청소년에게도 불교동화의 세계를 전달할 수 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동화로 구성해낸 동련동화구연회장 덕진 스님도 불교동화와 동화구연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교동화를 창작하고 동화구연을 통해 부처님의 사상을 널리 알리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눈높이에 맞는 설법'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과 책, CD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불교동화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불교동화창작대회도 열 생각입니다. 동화를 통해 어린이청소년이 불교를 이해하고, 불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동화구연대회 참가자와 관객들의 모습.



전국불교동화구연대회 참가자들의 모습.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대상 수상자 김다겸군에게 시상하고 있다.


동화구연하고 있는 최희주 어린이.

동화구연을 잘 하려면!

1. 동화를 선정할 때 자신과 목소리가 잘 맞을만한 등장인물들이 많은지 살펴봐요.
2. 기존 동화의 문어체를 구어체로 잘 바꿔야 해요. 개작을 할 때는 해설이 1/3, 대화가 2/3가 될 수 있도록 하세요.
3. 동화에 기교보다는 감정을 잘 실어 전달해야 해요.
4. 동작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정확한 몇 가지 동작만 할 때가 더 자연스러워요.
5. 소리를 낼 때, 아빠나 할아버지 목소리는 배에 힘을 주고 목을 끌어당겨서 내는 소리를, 아기·작은 동물 등의 높은 톤의 소리는 목에서 나는 소리를 이용해요.

(도움말: 동련동화구연회 선임연구원 장초희 선생님)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산마다 저렇게 단풍이 아름다운 것은 긴 장마와 무더위를 견딘 나뭇잎들이 '독한 여름'을 건너 온 것을 축하 받는 것이라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시련은 있고 그 시련을 견딘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지요. 학생시절에 받는 고통은 무엇일까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크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면 고통이지만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다면 보다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한 길도 찾아 질 겁니다. 저 어김이 없는 자연의 흐름을 보면서 열심히 일하고 자연을 배워보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요. 가을엔 하늘을 바라보는 날이 많이 있었으면 해요. 바쁜 걸음을 조금 늦추고 자, 오늘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기로 해요.

겹사돈 : 이미 사돈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또 사돈 관계를 맺은 사이. 또는 그런 사람.

눈썰미 : 한두 번 보고 곧 그대로 해내는 재주.(동환이는… 장사에는 도무지 눈썰미가 없어 부친의 눈 밖에 난 자식이었다.)<박완서, 미망>

구성지다 : 천연스럽고 구수하며 멋지다.(독특한 억양을 붙여 꼬리를 길게 늘이며 외우는 노인의 음성은 엄숙하고 구성지게 들렸다.)<한무숙, 어둠에 갖힌 불꽃들>

구순하다 : 서로 사귀거나 지내는 데 사이가 좋아 화목하다.(새사람 들어와서 모처럼 구순해진 집안에 평지풍파 일으키지 말게.)<박완서, 미망>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식민지시대 만주 이주민의 서러운 삶 묘사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김동인 作 '붉은 산'

1932년 <삼천리> 4월호에 발표된 단편소설로 민족주의적 주제를 담고 있어요. 1인칭 관찰자 기법과 사실주의적 기법으로 식민지 시대 만주 이주민들의 고통스런 생활상과 한 떠돌이 인간의 민족애를 그린 작품이에요. 작품에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사람 즉 화자(話者)는 '여(余)'이고 주인공은 '삵'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내지요.

의사인 '여(余)'가 만주를 돌아다니다가 들른 ** 촌에서 겪은 일이다. 조선 소작인들만 이십여 호 모여 사는, 비교적 평화스런 동네인 그 마을에 '삵'이란 별명으로 불리는 정익호가 들어온다. 출신도 고향도 알 수 없는 그는 생김새나 행동 모두가 지극히 불량하고 난폭하여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미워한다. 너무나 난잡한 패륜아여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마을에서 내쫓고자 하나,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그저 암적인 존재로만 대할 뿐이다. 그러나 '삵'은 태연하게 이 동네에 묵게 된다.

'여'가 이 마을을 떠나기 전날, 송 첨지라는 마을 노인이 소작료가 적다는 이유로 만주인 지주에게 얻어맞아 죽는 일이 발생한다, 마을 사람들은 분개할 뿐 누구 하나 앞장서서 송 첨지의 복수를 하고자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여'는 의사라는 직업상, 송 첨지의 시체를 검시하고 돌아오는 길에 '삵'을 만나 송 첨지의 죽음을 알린다. '삵'의 얼굴에 나타난 비통한 표정을 보게 된다.

다음 날 '삵'이 죽어 간다고 깨우러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여'는 눈살을 찌푸리며 동구 밖으로 달려간다. 동구 밖에 쓰러져 있는 '삵'의 입을 통하여 그가 혼자 몸으로 만주인 지주에게 대항하다가 그렇게 되었음을 알게 된다.

'삵'은 '여'에게 붉은 산과 흰 옷이 보고 싶다며 애국가를 불러 달라고 한다. 광막한 겨울의 만주벌 한편 구석에서 '삵'의 죽음을 애도하는 숭엄한 노래가 퍼진다. 그 속에서 '삵'은 숨을 거둔다.

소외된 자의 죽음은 '강한 저항정신'
붉은산과흰옷,민족애와조국애상징

'삵'의 본명은 정익호. 초반부에서는 매우 교활하고 패륜아적인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나, 송 첨지의 죽음을 계기로 마지막에 감동적인 민족애를 보여 주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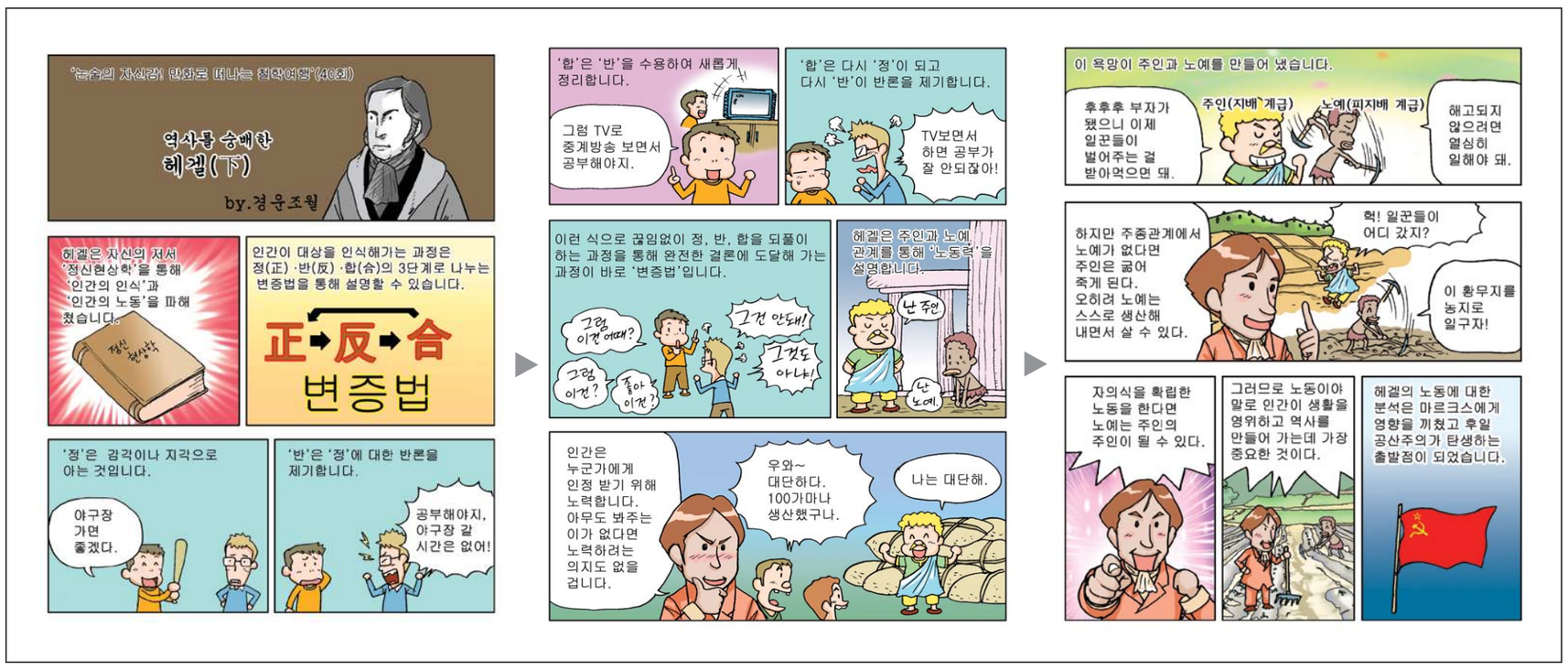
이 작품은 '어떤 의사의 수기'라는 부제가 말해 주듯이 어떤 의사의 목격담을 적은 수기 형식으로 되어 있지요. 이러한 방법은 이 작품의 사실성 확보에 매우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작품은 비도덕적이고 몰염치한 인물인 '삵'까지도 숭고한 민족정신을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지요. 또한 그가 죽어 가면서 '붉은 산'과 '흰 옷'이 보고 싶다는 말을 남기는 대목은 이 작품의 주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요.

'삵'은 고국을 떠나 유랑하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고 있으며, 송 첨지의 죽음은 만주에 흘러들어 가 사는 우리 동포의 비극을 나타내죠. '삵'은 마음속으로만 비분강개할 뿐인 백의민족의 무기력함을 박차고, 만주인을 향하여 복수를 꾀하고 있어요. '삵'이 임종할 때 하는 말 중에서 '붉은 산'과 '흰 옷'이 보고 싶다는 것은 우리 국토와 겨레를 그리는 것으로 조국에 대한 애정과 향수를 나타내죠.

전체 작품의 약 절반 분량을 '삵'의 인간 됨됨이와 그에 대한 타인들의 태도를 서술하는 것에 할애하고 있어요. 이것은 뒤에서 '삵'이 보여 준 돌발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의 의미를 더욱 뚜렷이 부각시키는 효과를 지니죠. 어떤 인간에게나 마음 속 깊숙한 곳에는 순수하고 숭고한 인간애의 단면이 들어 있다는 것을 '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하네요. 남의 나라에서 함께 불행하게 살아가는 동족에 대한 동포애, 나아가서는 떠나 온 조국 산하와 민족에 대한 애정과 향수로 발전되고 있지요.

붉은 산에 푸른 기운이 넘치는 날, 우리 민족의 광복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조국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나 서술자인 '여'의 태도가 지나치게 방관자적 입장에 처해 있으며, 마지막 '삵'의 죽음 부분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감동적이라 할 수 있으나, 너무 낭만적인 대화로 처리한 듯하여 아쉬움도 남지만요. 아무튼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의 민족애를 한 번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술주정이 심한 아빠가 너무 싫어요

요즘 부모님 얼굴도 보기 싫고 특히 우리아빤요 술주정이 너무 심해요. 공포스러울 정도입니다. 실망을 넘어서 아버지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못 참겠어요. (ID:rurarur)

힘들때일수록 침착하고 냉정함을 잃지마세요

아버지께서 집안의 중심축으로써의 그 몫을 다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텐데 이와는 반대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술로 생활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일시적으로 감정이 폭발할 때에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와 계속적으로 마주대하기 보다는 그 속에서 벗어나 다른 행동을 통해 그 감정들을 발산하기를 바랍니다.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마음껏 소리 질러 본다거나, 운동을 통해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한 가지 일에 몰두할 수 있다면 좀 전과 같은 상황에서, 다스리기 힘든 감정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힘든 일, 어려운 문제를 혼자만 짊어지고 가기보다는 주위의 친구나 삶의 경험이 풍부하고 그로 인해 충분한 도움과 조언을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가 의논해 보세요. 좀 더 많은 사람의 의견과 도움이 더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 전체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아버지에게 전가시키고 나머지 가족들만이 뭉쳐서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자신들이 갖는 고통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상담기관을 통한 도움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사이버청소년상담실)



세계 최대 와불(열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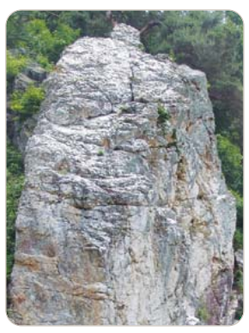
소원 성취 기도도량 계향산 미암사 성지순례

국운융창, 국민화합,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최대 석가모니부처님 열반상을 충남 부여군 미암사에 모셨습니다.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부처님 열반상이 노천불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불교성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요.



세계 최다층 진신사리탑
(33층)

세계 최다층 탑인,33층의 불사리 탑은 진신사리 1과가 자연 3과로 분과된 신비하고 영험이 있는 진신사리가 봉안되었습니다.



쌀바위 전설
(충남지방문화재 제371호 지정)

백제 침류왕때 유씨 할머니가 공들여 쌀도 나오고 자손도 얻어 미암(쌀바위)이라불렀으며, 바위에서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건강한 기운을 느낄수 있게 해줍니다.

국가안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적멸보궁 미 암 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 041)832-1188,1189 www.ssalbawi.com(또는, 한글로 미암)



관음기도 영험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산 천주사 한글주소: 천주사

참 생명의 모습을 나툴 수 있는 영원(永遠)의 길지(吉地)!
"하늘을 바치는 산" 이라고 하는 천주산(天柱山),
천주봉(天柱峰) 아래 천주사(天柱寺)!





천주산(天柱山)은 '하늘을 받치는 산' 또는 '하늘을 여는 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바라보면 그냥 오르고 싶어집니다.
이는 무한히 전진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상과 기상이 활달 자재한 대광명의 세계에 이르고자함입니다. 천주산 천주사는 중생의 막힌 삶의 모든 부분을 부처님의 지혜와 관음보살의 대자비로서 밝고 훤하게 열어 줄 것입니다.

■ 천주사에 전화 주시면 찾아오시는길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소요시간 : 서울 2시간 30분, 대구 1시간 30분, 부산 4시간)
성지순례 사찰
홈페이지 www.chunjusa.org 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기도문의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
경북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산 257-1번지

경북 문경에 위치한 가족 납골탑 묘원 천주산 천주사 관음영탑 공원



더 이상 명당(明堂)을 찾거나 묘지(墓地)문제로 근심 걱정하는 일 없이
자손만대(子孫萬代)로 이어지는 효(孝)의 실천(實踐)을 이룩하기위한
천주산(天柱山), 영산(靈山), 명지(明地)의 관음영탑묘원(觀音靈塔墓園)

우주일심(宇宙一心)이요, 천지일심(天地一心)이며, 세계일심(世界一心)이니,
자타(自他)가 곧 한마음이라 영(靈)과 육(肉)이 또한 둘이 아니니
생사가 본래 둘이 아닌(生死佛二)까닭입니다.

영탑은 불교스님들의 장례법으로 천주산 천주사에서 영탑을 조성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 분양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전강 스님(4)

만공, 어묵동정을 여의고 일러보게
전강, 어묵동정을 여의고 무엇을 이르라는 말입니까
만공, 옳다, 옳다

어느 날 용성 스님은 만공 스님에게 넌지시 "어묵동정(語默動靜)을 여의고 이르시오" 하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만공 스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하였다.

용성 스님이 "양구(良久: 한참 말없이 있는 것)인가?" 하고 다그쳐 묻자, 만공 스님은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다.

얼마 뒤, 이 법거래(法去來)를 전해 들은 전강(田岡, 1898~1975) 스님은 만공 스님을 찾아 뵙고 "두 큰스님께서 서로 멱살을 쥐고 흙탕에 들어간 격입니다" 하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자 만공 스님은 "자네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는가?" 하고 반문했다.

용성·만공 두 큰스님 법거래에
자신의 견해 피력하는 패기 발휘

"스님께서 용성 스님이 질문한 것을 저한테 물으십시오."

"어묵동정을 여의고 일러보게."

전강 스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어묵동정을 여의고 무엇을 이르라는 말입니까?"

지그시 눈을 감고 있던 만공 스님은 "옳다, 옳다" 하며 긍정했다.

위 문답에서 '어묵동정(語默動靜)'이란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상태를 말한다. 용성 스님이 '어묵동정을 벗어나서 말하라'고 한 것은 말과 생각에서 벗어나 본래면목을 드러내라는 뜻이다. 육조 스님이 혜명 수좌에게 던진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不思善不思惡), 그대의 본래면목은 무엇인가?" 라고 한 공안과 같은 질문이다.

이에 만공 스님은 세존의 양구(良久)로 답을 대신한다. 세존에게 어느 외도가 묻되 "말 있음을 묻지 않고 말 없음을 묻지 않습니다" 하니, 세존께서 양구(良久) 하셨다. 이에 외도가 찬탄하되 "세존께서 대자대비하여 저의 미혹의 구름을 열어주어 깨달음에 들게 하였습니다" 하고 물러갔다는 내용의 공안이다.

원오 선사는 '세존 양구' 공안에 대해 "세존께서는 '기틀 바퀴(機輪)'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유(有)와 무(無)로 향하지도 않았으며, 얻고 잃음에도 떨어지지 않았고, 범부와 성인의 경지에도 얽매이지 않아, 양쪽을 일시에 꼼짝 못하게 했던 것이다"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용성 스님이 '세존의 양구냐?' 하는 다그침에, 만공 스님은 그것도 아니라고 시치미를 뗀다. 양구를 양구라 하면 이미 양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문답을 전해들은 전강이 패기 있게, 만공 스님을 찾아가 따진다. '세존 양구'로 답한 것에 대해 '그것이 양구냐?', '아니다' 하며 시비분별에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 선지식 답지 못하다는 표현일까. 젊은 수좌의 기백에 내심 기뻐한 만공 스님은 어묵동정을 여읜 전강의 답을 기다린다.

그의 대답은 "어묵동정을 여의고 무엇을 이르라는 말입니까?" 라는 절묘한 언구이다. 어묵동정이 일어나는 성품(性品) 자리에는 본래 한 물건도 붙을 수 없지만, 어묵동정이란 그림자가 동시에 성품과 둘이 아니다.

<금강경>은 "일체의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줄을 알면 그때에 바로 여래를 본다"고 했다. 이런 도리를 깨달으면 보이는 그대로가 실상(實相)이어서, 눈앞에는 청산이 가득하다(滿目靑山).

김성우 객원기자

"맑은 거울 같이 고요한 마음의 길로"

하남시 임제선원 철야정진 회향 현장

10월 20일 저녁 8시, 하남시 하산곡동 검단산 아래 자리잡은 임제선원(선원장 법현)의 법당에는 빨간 연등이 환하게 빛을 밝히고 있었다. 넓은 주차장과 아담한 정원을 갖춘 임제선원 2층 법당에 들어서니, 숨소리 하나 없는 정적이 흐른다. 토요일이라 교통이 막혀 10분 늦게 참선법회에 참석, 조용히 빈자리에 앉았다. 하남시에서도 다소 외진 곳, 그것도 늦은 밤에 참선정진을 위해 마음을 낸 불자들은 20여명. 다른 절과 달리 듬직한 거사들이 태산처럼 앉아 있으니 든든하기만 하다.

모처럼 철야정진에 동참해 보니, 역시 집에서 혼자 하는 정진보다 훨씬 수월하다. 도반들이 정진의 절반이상을 해준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이뭣고?' 화두와 함께 40분이 순식간에 흘렀다.

이어 선원장 법현 스님이 참선법문을 시작한다. 지난 5월, 서울에서 하남으로 선원을 이전한 뒤 처음 갖는 철야정진이다 보니, 낯선 불자들이 적지 않다. 필시 화두 드는 법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수행자들이 있을 터이기에, 스님은 '명경(明鏡)'을 진여자성(眞如自性)에 비유하며 참선법을 일러준다.

"화두는 일체 망념이 다 떨어진 진실한 마음이므로 성성적적(惺惺寂寂: 또렷하고 고요함)해야 합니다. 화두를 들고 명경과 같이 밝고 고요한 마음의 곧은길로 가는 것이 '성성적적'인 것입니다. 마음거울과 화두의 심이 딱 하나가 되면, 세상만사가 거울 앞을 스쳐지나가는 그림자가 될 것입니다."

본래마음 즉, 진여자성은 '크고 둥근 거울(大圓鏡)'처럼 빛나서 분명하게 온 세상 사람마다 본래 구족하여 있지만, 한 생각 어긋남으로 인해 만 가지 모양으로 분별하여 나타나게 된다. 한 생각 어리석음으로 명경 위에 비치는 영상을 쫓아가지 않고, 화두 일념으로 밝게 빛나는 명경을 회광반조 하는 것이 바른 공부 길이다. 때문에 스님은 "참선공부의 핵심은 헤아려 생각하지 않는 도(道)에 통달하는 것"이라 말한다. "마음이 태허공(太虛空)처럼 크게 비어서 본래 한 물건도 없음을 알면 헤아려 생각하는 주관과 생각하는 대상의 경계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착하고 악함도 없다"는 것이다.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이 거울을 들어 보이며 참선법에 대해 법문하고 있다.

"우주와 인생의 근본인 마음을 밝혀 자성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오직 본래 청정한 자기의 진여심경(眞如心鏡)만 생각할 뿐, 마음거울에 비치는 경계와 남의 크고 작은 허물의 겉모습인 영상(影像)에 집착해선 안 됩니다."

자기의 진여본성은 본래 청정하여 오염이 없는 줄 알면 경계를 대하여 일어나도 거울 위의 영상과 같아서 집착할 필요도 없고 끊을 필요도 없다. 여기에 무슨 끊을 망상이 있고, 자라날 보리(菩提)가 있을 것인가. 신수 대사가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서 티끌이 끼게 하지 말라"고 한 반면, 육조 스님은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어느 곳에 티끌이 일어나리요(本來無一物 何處惹塵埃)"라고 한 게송이 바로 이것이다.

법현 스님은 생활 속에서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수행하는 법을 자세히 설한 후, 이번에는 보너스로 몽산 선사의 <휴휴암주 좌선문(休休庵主 坐禪文)>을 원문으로 강독해 준다. 어느 절에서도 듣기 힘든 선법문이다.

"바깥 경계 흔들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면세계 고요하고 동요 없음이 '좌(坐)'이고, 회광반조(廻光返照)로 언제든지 내면세계 돌아보고, 법의 근원 사무침이 곧 '선(禪)'이다."

늘 명경 자리에 머물러 회광반조하면 마음거울에 비치는 그림자(경계)에 속지 않아서 분별 · 망념이 없는 평상심으로 살 수 있다는 법문이다. 몽산 선사는 이렇게 좌선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부처님의 선정(那伽大定)'에 들어 진여묘체(眞如妙體)에 계합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부처님의 선정이란 정(靜)과 동(動)이 본래 없고, 진여묘체에 들어가면 불멸이고 불생이라. 보되 보지 아니하고 듣되 듣지 아니하며, 비어있되 비지 아니하고 있되 있지 아니하여, 크기로는 밖이 없는 태허계를 둘러싸고, 작기로는 안이 없는 밀밀계에 들어가니, 신통지혜 광명수량(光明壽量) 큰 기틀(大機)과 큰 작용(大用)이 무궁무진하여 헤아릴 수 없느니라."

진여자성과 하나 되면, 삼계 속에 있으면서도 삼계를 벗어난 대자유인의 삶을 살게 된다. 한 물건도 없는 본래의 마음자리(大機)를 깨닫고,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 수 있다(大用)면 일체만법이 자성을 여의지 않았음을 완전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1시간가량의 참선법문이 끝나자, 다시 좌선이 50분 간격으로 이어진다. 새벽 3시 30분, 아침예불에 이은 108배 참회정진까지 조는 사람 하나 없이 신심나게 철야정진을 회향한 것은 법현 스님의 마음거울 법문과 1대 1 점검이 길잡이 역할을 한 것이 분명했다. 길을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에 따라 서울 가는 길도 삼천포로 빠지고 만다. 성철 스님이 수좌들을 상대로 백일간 법문을 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선(禪) 도리를 알고 화두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법현 스님의 체험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출가 전부터 나름대로 참선을 해온 법현 스님은 서옹 대종사의 인가제자인 임제선원 조실 종성 스님을 시봉하며 비로소 제대로 된 참선 지도를 받았다. 30여년의 수선정진 끝에 '파자소암(婆子燒庵: 노파가 암자를 불태우다)' 공안을 타파하고 종성 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그는 스승의 뜻을 이어 참사람 결사를 주도하며 임제종지(臨濟宗旨)를 펴고 있는 것이다.

임제선원은 매주 금요일 오후 8~10시 참선실수, 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11시 유마법회, 둘째 수요일 마야법회, 넷째 일요일 법조인법회(임제회)를 연다. (031)792-8825

하남=김성우 객원기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수행게시판

● **선정삼매 수행**=정명 스님(열린선원 상임법사)은 11월 10~14일, 4박 5일간 충북 괴산 다보사 다보수련원에서 제2기 선정삼매수행(사마타 위빠사나)을 실시한다. (043)833-7789

● **유식(唯識) 법문 강독**=원조 박건주 거사는 매주 수, 오후 7~9시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에서 〈결정장론(決定藏論)〉〈전식론(轉識論)〉〈무상사진론(無相思塵論)〉 등 유식 논서를 강독한다. (016)776-7131

● **12연기 통찰수행**=한국위빠사나선원은 11월 20일부터 매주 화, 오후 2~5시 묘원 법사 지도로 '모곡 사야도의 12연기 법문과 위빠사나 수행반'을 연다. (02)512-5258

● **고엔카 위빠사나**=한국위빠사나운영위원회는 10월 31~11월 11일 경북 문경시 산북면 김용초등학교에서 고엔카 위빠사나 명상 10일 코스를 개설한다. 신청은 이메일(dhammakorea@hanmail.net)로만 가능.

설법 연수 무료특강
15년의 전통을 지닌 본원에서는 "실기위주의 맞춤식 개인지도"를 원칙으로 하는 연수생을 모집 합니다.
■ 교육목표
◇나의 발견 ◇나의 계발 ◇나의 실현
■ 교육내용
◇설법을 잘 하기 위한 대인불안, 공포해소, 표현력, 설득력, 호소력, 화술
◇인사말, 축사, 주례사, 토론, 회의진행법 등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특강에 오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매주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 6시
무료강좌 / 선착순 15명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한국인성개발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신수비결"
2008년 무자년의 나의 운세
●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 집에서 2008년의 운세를 볼 수 있음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상호, 법명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 (정가 30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고 만행화
사계절 단화
풍산동 99%
지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발,마춤형 제작
특 · 무명
풍산동 99%
지압식 깔창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진회색, 검정
최고의 선물
조각 · 무명
풍산동 99%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무명
미끄럼 방지 (논스립 우레탄)
방한용 털신
털 깔창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진회색,검정
지압깔창
발명특허원41435
풍산동 99%
• 가격 : 10,000원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요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전주 상운각 063)274-6639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경북(예천) 붓다불교점 054)655-2525

어떻게 공덕을 돌려주고 계신가요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㊱ 남을 위하는 일이 나를 위하는 것

타인을 돕고 보니

"이전에는 장애우들을 보면 참 안됐다는 생각은 들지만 선뜻 먼저 다가가기가 어려웠어요. 사실은 제 마음 속에 장애우를 꺼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에 과거 전생에 누구나, 저나 제 가족도 장애우였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마음을 바꿨어요."

대학생인 B군은 얼마 전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올라가려다가 휠체어를 타신 장애 할머니를 보았다. 할머니는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려고 작동 버튼을 눌렀는데 작동이 되지 않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것이다. 이번에는 '만일 내가 저 입장이라면' 하고 생각해 보니 여간 당황하고 난처한 느낌이 아니었다.

할머니에게 다가가 "제가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고마워, 학생" 하였다. 그러나 혼자서는 힘에 부칠 것 같아서 주위에 지나가는 다른 남자들에게 도와드리자고 부탁했다. 여럿이 휠체어를 옆과 뒤에서 들어 올려 무사히 계단 위까지 할머니를 모셔다 드렸다. 마음이 정말 뿌듯하고 기뻤다.

"그전에는 봉사가 거창하고 힘든 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작은 일이라도 진심으로 남을 도와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보다 도와 드린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타인을 위해 기도해 보니

"처음에는 왜 남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가? 나 살기도 바쁜데, 나 잘 되기도 힘든데,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 봉사는 힘든 일로만 생각
> 남 위해 기도하다보면 뿌듯
> 인간은 다른이를 위해 존재

남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 오히려 제 자신이 좋아지던데요." 대학생 S양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소감을 계속 이야기했다.

최근에 부처님 말씀을 따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평생 동안 나 자신만 생각하면서 22년을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기도를 드리게 되니 새로운 느낌이었다. 나 자신만의 이익만 생각할 때는 항상 경쟁심이 일어나고 남이 나보다 잘 하면 어쩌나 하고 불안했다. 그런데 남을 위한 기도를 해보니 놀랍게도 내 마음 속의 고통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무엇보다 예전에 남을 증오하고 미워할 때보다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또 생활도 변하고 있다. 그 동안 무의식적으로 남을 질투하고 미워함으로서 부정적인 마음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항상 내 주위에는 나쁜 일들이 많았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을 통해 내 마음이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서서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다.

남을 위하는 공덕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여 20세기 과학의 역사를 바꾸어놓았고 천재로 인정받고 있는 아인슈타인은 불교에 심취한 적이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할 사실은 인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적 외적인 생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 위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깨닫는다. 그리고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가를." 불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공덕을 돌려주고 계신가요.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신행게시판

*** 제6회 청담문화제=**호국참회 관음기도도량으로 유명한 서울 도선사가 11월 3일 제1145주년 개산대재 및 제6회 청담문화제를 개최한다. 도선사가 마련한 가을축제인 청담문화제는 머루의 사회로 현철, 장미화, 김태곤, 한영주, 이솝 등의 불자가수를 비롯해 경희대 음대 박정희 교수 등이 출연해 흥겨운 한마당 공연을 펼친다. 올해로 세 번째 치루는 개산대재는 도선사 창건주 도선 국사의 뜻을 기리고 업적을 되새기는 자리. 개산대재를 통해 지금까지 도선사를 가꾸어 온 많은 사부대중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불법 홍포 교육 복지 도량으로서 도선사의 역할을 다짐할 계획이다. (02)993-3161

*** 금산사 산사체험=**김제 금산사가 최근 넓직한 마당과 전통 한옥식 건물에 현대식 샤워장, 화장실을 갖춘 템플스테이 전용 건물을 신축하고 11월 9~11일 산사체험 63기를 모집하고 있다. 금산사의 산사체험은 사찰예절 습의, 예불, 108배, 참선, 반야심경 사경, 발원문 작성, 다도 및 차밭 운력, 야생차 만들기, 108염주 꿰기, 도량 운력, 산행, 스님과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으로 2박 3일 동안 운영된다. (010)6589-0108

*** 불광계단 제33회 수계법회=**서울 불광사는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 보광당에서 제33회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수계 동참비는 1인당 2만원. 11월 4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10일 오후 1시 수계교육이 이뤄진다. 수계교육을 받지 않으면 수계법회에 동참할 수 없다. 수계신청서는 사무실에서 배포한다. (02)413-6060

*** 제1회 한국불교대학 초·중·고 무용경연대회** 한국불교대학이 제1회 초·중·고 무용경연대회를 11월 11일 개최한다. 오전 10시 개회식과 사물놀이 시범공연 등의 식전행사를 마치면 오후 1시 현대무용, 오후 3시 생활무용 경연이 단심으로 펼쳐진다. 한국무용은 전통과 창작, 현대무용은 창작 분야만 심사하며 생활무용은 재즈, 비보이 등이 가능하다. 발레는 이번 경연에서 제외됐다. 접수는 11월 7일까지. (053)473-8227

*** 월정사 성지순례=**평창 월정사가 11월 28일~12월 3일 스리랑카 불교성지순례를 떠난다. 모집인원은 30명. 월정사성보박물관 부관장 해운 스님이 인솔하는 성지순례단은 보리수 사원,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모시고 있는 불치사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11월 10일까지 신청 받는다. (033)334-1817

*** 조상영가천도재=**서울 조계사가 11월12일 시월상달 조상 영가 천도재를 봉행한다. 음력 시월상달은 햇곡식을 부처님전에 올리고 조상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 좋은 달이라 전해온다. 친가·외가 모두 접수 가능하다. (02)732-2115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33>

행동주의와 불교-1

상담심리학의 여러 이론을 열거할 때 역사적 발생 순서를 따르는 경우도 있고, 치료적 깊이에 따라 배열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심리학의 제1세력인 정신분석, 제2세력인 행동주의, 제3세력인 인간중심접근을 논하고, 최근에는 제4세력을 자처하는 자아초월심리학을 추가하기도 한다. 인지치료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행동주의와 유사하거나 둘이 공유하는 이론과 기법이 많아 인지-행동주의로 묶어서 다루는 경우가 많다.

치료적 깊이로 보았을 때는 표층에 드러난 심리에서부터 내면 깊숙이 들어 있는 심층심리로 접근해가는 심도를 기준으로 순서를 짓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행동주의→인지치료→인간중심→정신분석의 순이다. 행동주의는 겉으로 드러난 인간의 행동을 대상으로 삼고, 인지치료는 생각을 주로 다루며, 인간중심은 정서를 중히 여기고, 정신분석은 무의식을 파고들어가기 때문이다. 상담심리학을 공부할 때 위와 같은 순서대로 배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 심도를 기준으로 순서 짓는 것이 일반적
> 행동주의, 겉으로 드러난 부분을 다루는 학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동주의는 인간의 표층, 즉 겉으로 드러난 부분을 다루는 학문이며 기법이다. 행동주의는 본래 무의식을 강조하는 정신분석에 반발하여 일어난 세력이다. 정신분석이 성격의 구조나 발달, 성격의 역동성, 무의식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행동주의는 겉으로 드러난 구체적인 현재의 행동을 강조한다. 또한 심리학은 철저히 과학적이어야 하고, 과학은 관찰이 가능해야 하므로 무의식과 같이 모호한 영역에 대해서는 노코멘트하자는 게 기본 생각이다. 즉 인간의 행동 과정이 '자극(stimulus)→■(블랙박스)→반응(response)'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할 때 겉으로 드러난 자극과 반응은 연구 대상이지만, 인간의 내면에서 자극이 어떻게 처리되고 어떤 과정을 겪어서 반응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블랙박스(black box)'라 하여 아예 거론하지 않는 것이다. 행동주의의 발생 초기에는 이러한 개념이 매우 강력해, 초기의 인간관을 '기계론적이고 결정론적'이라고 한다. 초기 인간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은 좋지도(good) 나쁘지도(bad) 않은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인간은 환경의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유기체다. △인간의 행동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인간의 행동은 학습된 부정적 혹은 긍정적 습관으로 구성된다. △인간의 행동은 생활환경이 제공하는 강화의 형태와 그 빈도에 의해 결정된다.

후기에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강조하는 경향이 생겨 인간관도 상당히 바뀌었다.

△인간의 행동은 부분적으로나마 환경을 창조할 수 있고 환경도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간은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환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인간은 자기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행동주의는 인간에서부터 출발하여 인간의 의지로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벗어나 깨달음을 이룰 것을 목적으로 삼는 불교와는 매우 상반돼 보인다. 기본적 전제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만, 행동주의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불교와 만나는 지점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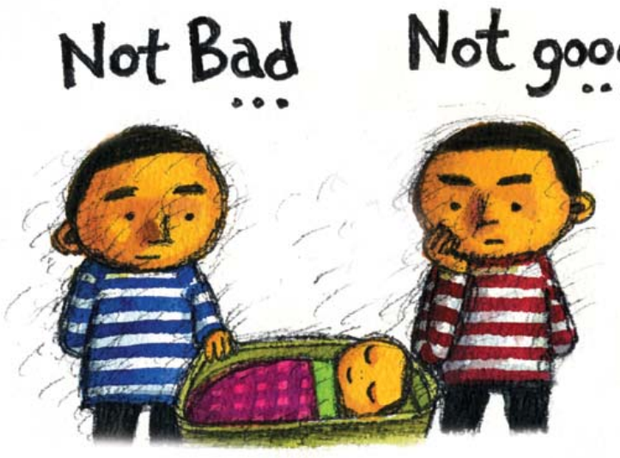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30년 전통의 맥을 이어오는 목탁제조전문
영천목공예사
http://www.ycwoodart.co.kr
실용신안등록 · 디자인등록
2007년 한국불교박람회 출품작품
영천목공예사의 목탁은 자연 그대로를 살려주며 절대로 벗겨지지 않아 반영구적인 제품입니다. 국내산 살구나무로 제작한 수작업 목탁은 실용신안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죽비
옻칠 수작업 목탁
수작업 목탁
수작업 목탁에 사용한 옻칠은 생칠로 일반적으로 바르는 방법이 아닌 나무 속까지 침투시키는 칠을 먹이는 방법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나무결을 자연그대로 살려주며 절대로 벗겨지지 않아 반영구적입니다.
목탁제작 35년 경력에도 불구하고 맑고 청아한 목탁소리를 찾기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작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약 100년~300년된 산살구나무로 작업한 제품
경북 영천시 언하1동 167-1번지 054)334-9757 / 011-540-9757
[농협 757-12-096397 안종식]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옥석공예사
불상. 석탑. 건축. 자연석. 석물. 납골당
수십여 년의 불사경험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정진하는 자세와 장인정신으로 원만한 불사의 주춧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덕 큰스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옥석공예사 대표 임상균 합장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60-2
031)859-5689 / 011-353-3622

연극으로 보는 작곡가 윤이상의 삶

'윤이상, 나비 이마주-어느 작곡가의 기억', 대학로 정미소 극장서 11월 18일까지



탄생 90년을 맞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1917~1995)의 파란만장한 삶이 한 편의 연극으로 옮겨진다. 11월 18일까지 서울 대학로 설치극장 정미소에서 공연되는 '윤이상, 나비 이마주-어느 작곡가의 기억' (홍창수 작, 윤우영 연출, 은세계 씨어터컴퍼니 제작)이 바로 그것이다.

윤이상은 1956년 뒤늦게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이듬해 독일 서베를린 음대에 입학한 후 천재적인 음악적 재능을 발휘해 주목을 끌었다. '나비의 미망인', '류퉁의 꿈' 등을 잇달아 발표하며 생존 당시 '현존하는 유럽의 5대 작곡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뮌헨 올림픽 축전에서는 정중동의 동양적 정서를 담은 오페라 '심청'을 선보여 호평 받았다.

하지만 화려한 음악적 성과와는 달리 한 인간으로서는 행복하지 못했다. 남북 분단의 비극을 온몸으로 겪었으며, 동백림 사건 때 간첩으로 몰려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납치돼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생전에는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다.

대충 그의 삶을 들어보면 연극적 요소를 굳이 가미하지 않더라도 삶 그 자체가 영화고 연극이다. 이번 연극 '나비 이마주'에는 부제가 붙어있다. 어느 작곡가의 기억이다. 관객들에게 작곡가가 죽는 날까지 고향에 갈 수 없었던 아픔을 전달하려는 작가의 계산이다.

연극은 윤이상을 지배했을 법한 기억들이 그가 만들어낸 음악과 어우러져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동백림 사건 때 간첩으로 몰려 고문을 당하고, 베를린 망명 도중 고향 통영을 끊임없이 그리워하는 등 선생의 삶과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간다.

배우 최홍일이 윤이상, 유화영이 윤이상의 부인 이수자, 박경근은 윤이상을 감시하는 요원 박성만 역을 맡아 극을 이끌어간다.

바이올린과 첼로, 플루트, 오보에 등 현악기와 목관악기로 구성된 4중주단이 '고풍의상', '나그네' 등 윤이상의 초기 가곡과 대표작 '이마주(Images)', '무악', '첼로협주곡' 등을 연주하며 연기자들과 호흡을 맞춘다.

작곡가의 삶을 형상화한 작품답게 윤이상의 음악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인물 위주의 시간 흐름에 따른 전개를 피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윤이상의 기억을 입체적으로 재현해내기 위해서 3차원 영상이 도입됐다. 윤이상이 북한 방문 때 보았던 강서고분의 사신도, 외신으로 접한 1980년 5월 광주의 기억이 영상과 배우들의 몸짓으로 표현되며 끝내 고국에 돌아올 수 없었던 그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한다.

작품은 윤이상이 베를린 작업실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사모곡을 작곡하던 중 납치되는 것으로 시작, 그의 음악적 열정과 상처입은 삶을 감동적으로 전한다.

음악감독 정진현, 무대디자인 김진홍, 조명 김철희, 영상 김진태, 의상 송은주, 분장 안경순, 조연출 이은주, 무대감독 안지애, 프로듀서 이동준, 사진 박성준 등이 각각 맡았다.

평일 8시, 토 4시 · 7시30분, 일 3시. 1만 5000~3만원. (02)747-2250

김주일 기자





부석사 괘불 특별展

국립중앙박물관 내년 4월17일까지

괘불(掛佛)은 야외 의식에 걸기 위해 제작한 불화를 뜻한다. 대부분 탁 트인 실외에서도 주변을 압도할 수 있는 큰 화폭에 그려졌는데 몇몇은 높이가 10m 이상인 경우도 있다. 1684년 조성된 '부석사 괘불(사진)' 역시 펼친 높이가 9.25m, 너비 5.77m에 이르는 초대형 괘불로 70여 명의 인물이 모여 설법회를 갖는 장면이 화폭에 가득 담겨져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홍남)은 내년 4월 27일까지 박물관 2층 불교회화실에서 부석사 괘불 특별전을 마련한다. 부석사 괘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화면 가운데 배치하고 설법을 듣기 위해 영취산에 모여든 청중의 모습을 재현했다. 그 뒤에 다시 세 명의 부처님을 표현했는데 이는 '부처는 무수히 많으면서도 사실은 하나'라는 부처관을 담고 있다.

괘불의 화기(畵記)에는 1745년 이를 보수해 청풍 신륵사로 보낸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부석사는 이 괘불을 보수하면서 또 다른 괘불 한 점을 조성했는데 이 괘불 역시 높이 8.1m에 달하는 대형으로 현재 부석사에 보관돼 있다.

중앙박물관은 이번 전시에서 1684년 작 부석사 괘불의 안료와 화폭, 채색층과 채색기법 등을 조사한 결과를 도록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02)2077-9000.

조동섭 기자

詩畵로 떠나는 암자기행 ㉕

영축산 자장암

장인성 시인



자장암(慈藏庵)-통도사 부속암자로 불쑥 솟은 암벽에 붙여 세운 법당이 흡사 바위가 피워든 꽃처럼 보인다.
그림 : 이상배 화백

영축산 자장암을 한바퀴 둘러보다
참참한 바위돌이 제 몸을 열고

꽃모가지 환하게 피워낸 걸 보았다.
바위도 나이가 지긋해지면

꽃갈던 옛날이 저렇듯 그리울까
꽃송이를 끌어안은 단단한 어깨가
살아서는 절대로 풀릴 것 같지 않다.

오케스트라 선율에 실은 사랑

니르바나 필하모닉 자선음악회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가 소아암으로 고통을 겪는 어린이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다섯 번째 '소아암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11월 7일 오후 7시 30분 KBS홀에서 열리는 연주회는 지휘자 장문학씨가 지휘봉을 잡았다. 이익선 아나운서가 사회를, KBS어린이음악회를 진행하고 있는 이지해씨가 프로코피에프의 '피터와 늑대' 내레이션을 맡아 생동감 있고 즐거운 음악회로 꾸밀 예정이다.

이태리 '올해의 음악가상'에 빛나는 피아니스트 김성희씨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1번 2악장', 색소폰 연자주 이인권씨의 'Going home' 등도 관객을 반긴다.

니르바나 오케스트라는 지난 4년 동안 네 번에 걸쳐 자선음악회를 열어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치료비와 수술비를 지원해왔다.

강형진 단장은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소아암 어린이와 그 가족을 향한 관심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소아암 어린이에게 완치의 희망을 주고, 그의 가족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도움을 드림으로써 '따뜻한 나눔의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정규 프로그램 외에 깜짝 이벤트도 마련돼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02)718-4599

강지연 기자

현대불교문인협회 가을창작수련회

현대불교문인협회(회장 수완)와 계간 <불교문예>가 11월 3~4일 전남 광주와 지리산 일대에서 가을 창작수련회를 연다.

현대불교문인협회 광주전라지회(지회장 김기리 시인, 광주극장 회장)의 창립을 기념해 마련한 수련회는 광주 광제사와 무등산, 담양 죽록원, 구례 죽림정사, 지리산 천은사와 화엄사 일대를 돌아볼 예정이다. (017)227-8084

강지연 기자

석청은 빵에다 발라먹는 일반 꿀이 아닙니다.

네팔산 석청은
수백년 산삼에 버금가는
약효가 있다고 합니다.



석청은 네팔 히말라야의 고산지대에서 채취되는 "꿀"을 말하며 깊은 산의 절벽이나 바위틈에서 "아피스 라보리오사"라는 왕벌이 만들어 내는 야생 꿀이다. 네팔과 티벳의 접경지역인 해발 3500-4000m의 고산지대에서 주로 벌이 서식하며 세계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사나운 벌로서 꿀을 만들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신비의 물질로 알려져 왔으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 한다. 고질병 치료, 강장식품이며 세포생성, 노폐물 제거등 명약으로 알려져 네팔왕국에서 국가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게 답례품으로 이용하고 있다.

공 급 처 : 네팔왕실-국립히말라야 석청연구소
국내보급처 : 한국불교사암총연합회, (사)호국불교단체협의회

히말라야 석청이란?

히말라야 석청(WILD HONEY)은 네팔과 티벳의 접경지역인 해발 3000m-4000m의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고산지역의 수백미터에 달하는 기암절벽에서 채취하는 꿀로써 성경과 불경에도 이 꿀을 약용 또는 참선시 음용하는 신비의 품질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만을 찾아 아피스라보리오사(APIS LABORIOSA)꿀벌이 집을 짓기 때문에 석청을 얻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기암절벽에 집을 지으면 수십년-수백년 동안 그 지역에서 서식을 하며 300년 이상 된 것도 있어 이런 곳에서 채취하는 석청을 효험이 큽니다.

*300년 이상 된 석청은 네팔 내에서도 구경하기조차 힘이듭니다. 아마 한국의 심심산골에서 몇 백년 된 산삼을 찾는 일에 버금가는 희귀성이 있을것입니다.
가격 또한 엄청나서 이런 석청을 발견하면 빠랑게가 사는 고산족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바뀝니다. 다만 워낙 귀한 꿀이라 네팔 전역에서 1년에 한 두번 발견되는 것이 고작입니다. 네팔에서는 참석청을 구하기 힘듭니다. 참석청은 1kg에 250만원정도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취급하는 석청은 등외급입니다.

● 서울 02)3436-7845 ● 중부 031)634-3519
● 대구/경북 054)464-4735 ● 부산/경남 051)782-9386
문의 010-2039-5288, 010-5031-1355

보급가액 500g ₩ 500,000원

석청판매 수입금중 일부는 네팔 불우청소년들을 위해 적립됩니다.
석청3명 이상 구입시 석청 채집 CD 1장을 보내드립니다.

2007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시회를 다녀와서

넓고도 깊은 책의 바다를 유영하다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으로서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은 가슴 속에 오랫동안 품어온 열망이었다. 세계적인 문호 괴테의 고향에서 벌어지는 책의 향연! 디지털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쇄매체의 위기를 거론할 때마다, 이 유서 깊은 도서전은 종이책이 지닌 아날로그적 매력과 그 오랜 생명력을 믿어온 스스로에 대한,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한 희망의 증거가 되어 준 것이다.



세계 최대 책의 향연

2007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이 열린 지난 5일간(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그 '넓고도 깊은 책의 바다'를 유영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얼마 전 막을 내린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서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화'라는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양한 디지털 도구와 텍스트의 만남이라 할 수 있겠다. 책은 지구촌 인류의 지성과 문화의 총체이다. 그러한 총체를 담는 본질이자, 도구이다. 다행스럽게도, 당대의 책은 이러한 본질과 도구적 측면에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넘나들며 그 사이에서 묘한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 듯하다. 디지털 시대의 위기감을 넘어서, 디지털을 도구화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책이 지닌 아날로그적 매력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최고의 참가(총 7448 업체) · 전시(총 39만1652권) 기록을 달성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린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의 향연장이자, 세계 도서저작권의 30% 가량이 사고 팔리는 최대의 저작권 거래시장이기도 하다. 세계 출판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교류의 장이자, 선의의 경쟁시장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책 '국력'

국제도서전에 가면 무엇보다도, 그 스케일에 압도된다. 매년 국제도서전이 열리는 상설전시관은 우리나라 박람회장의 10여 배에 달하는 규모로 1관부터 8관까지 나라별 혹은 장르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시장 간 이동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할 정도다. 전시회 기간 동안 쉬지 않고 다닌다 해도 한 부스도 빠짐없이 다 둘러보기란 녹록찮은 일이다. 도서전의 질적 수준 또한 스케일에 못잖다. 노벨문학상 수상에 빛나는 세계적인 작가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이와 같은 작가들과의 만남을 비롯한 출판 관련 이벤트가 2500여 가지에 이른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책' 등 수천, 수만 유로에 달하는 문화재급의 진귀한 고서들을 전시하는가 하면, 작가와의 만남, 이야기 낭독, 대담, 인터뷰 등 각종 이벤트와 생방송이 동시다발로 진행되어 지성의 향연이 벌어진다.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그야말로 세계 최고 · 최대의 국제도서전임을 인정하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만하다.

'책은 곧 국력'이라는 명언은, 이곳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시회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세계 110여개 유수의 기업들이 참가하지만, 3%의 대형출판사들이 80% 이상의 책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들 세계 3%, 미국의 대형 출판업체나 유럽권의 유서 깊은 출판사에서 내놓는 책들은 그야말로 세계를 움직이는 책이다. 일부에서는 도서전시회가 대형출판사들의 힘에 눌려 작은 출판사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한 손바닥 안의 일이 아닐까 싶다. 세상을 움직이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속에 결국 보이지 않는 힘의 논리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언어 장벽 못 뛰어 넘은 한국

그러한 세계 출판시장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출판계, 그리고 불교서적의 위상을 돌아보게 된다. 8000여 개에 육박하는 부스 가운데 한국, 그리고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도 미미하다. 국내 서점가에는 깊이 있는 불교입문서와 연구서들이 지속적으로 출판되고 있지만, 제대로 번역된 책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세계시장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번역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번역본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한 번역의 한계, 더불어 세계적인 흐름을 읽어내는 진취적인 불교서적의 출간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불교는 인류를 '고(苦)'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비와 희망의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교를 작은 틀안에 가두어 놓고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돌이켜볼 일이다. 앞으로 불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 불교 입문서, 나아가 불법의 정수를 담아낸 좋은 책들이 더욱 많이 출판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그런 양서들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개구리가 앉은 작은 우물 안에 파문을 일으키고, 저 넓고도 깊은 책의 바다 속을 힘껏 유영하기를!

정혜영 <한마음저널 부편집장>

불교방송 프로그램 '행복한 미소' 책으로

미소로 모두에게 행복 전달



행복한 미소
성전 스님 지음
개미 펴냄 | 1만원

악수를 합니다. 악수는 그냥 손만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악수는 마음까지도 내미는 것입니다. 내민 손에 마음까지 듬뿍 담아 내밀 때 진정한 악수가 됩니다.

악수를 하며 손을 잡는다는 것은 신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함께 하자는 행동의 신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갑니다. 악수는 그 각자 길을 가는 사람들을 불러 세워 손을 잡는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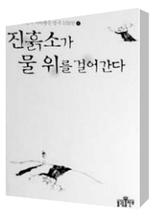
내가 그대 곁에 있다고 일깨우는 일입니다. <후략>

오전 9시 5분부터 10시까지 불교방송을 켜면 성전 스님을 만날 수 있다. '미소 스님'으로 통한다. 프로그램 이름이 '행복한 미소'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성전 스님은 늘 미소를 띠고 산다. 행복하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복이라는 다리를 놓는 불사를 하는 동안 스님은 스스로 '미소'가 되어 버린 것이다. <행복한 미소>는 성전 스님이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같은 이름이다. 라디오를 진행하며 매일 청취자들에게 보내는 '오늘의 발원'을 추려 담은 책이기 때문이다. 스님은 이 책을 낼 계획이 없었다. 그런데 방송국에서 가끔 만나는 할머니 한 분이 스튜디오로 찾아와 '오늘의 발원'을 책으로 묶어 달라고 요청해 책을 낼 생각을 냈다고 한다.

매일 하나의 발원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 발원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 이보다 행복한 일이 있을까? 진정한 불자라면 거창하게 수행을 하거나 공부를 한다고 폼 잡을 일이 아니다. 그저 한 번의 미소를 지을 줄 알고 그 미소로 자신이 행복해지고 남을 행복하게 하면 된다. 그렇게 행복한 미소를 온 세상에 가득 채우는 힘, 그것이 진정한 불자의 살림살이다. 성전 스님은 행복, 사랑, 그리움, 인연, 인생, 깨달음 등 6가지의 주제를 통해 참다운 행복의 길로 안내한다. 임연태 기자

불교에 다시 눈 뜨면서 경전 어록 보며 명구 기록

무비 스님이 가려 뽑은 명구 100선



소를 때려야 하는가 수레를 때려야 하는가
무비 스님 엮음
불광출판사 펴냄
각권 9000원|4권 1세트 3만5000원

'무비 스님이 가려 뽑은 명구 100선'이 완결됐다. 지난해 봄 첫 출간된 1권 <진흙소가 물 위를 걸어간다>를 시작으로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무쇠소는 사자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소를 때려야 하는가 수레를 때려야 하는가> 총 4권이 2년여의 작업 끝에 마무리됐다.

무비 스님은 "십대시절 불국사 말사인 영덕 덕흥사에 갔을 때 또래 동자승이 일러준 '삼일수심 천재보(三日修心 千載寶:사흘 닦은 마음은 천 년의 보배)요, 백년탐물 일조진(百年貪物 一朝塵:한평생 탐해 모은 재산은 하루아침에 먼지가 된다)'라는 <초발심자경문>의 구절을 듣고 감동해 출가를 하게 됐다"며 "촌철살인의 명구 하나가 큰 감동을 주기에 책을 펴냈다"고 밝혔다. "5년 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불교에 대한 눈을 다시 뜨면서 경전 어록을 보며 명구를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스님은 임제스님을 마음의 스승으로 생각한다. 스님이 최고로 여기는 명구는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내가 있는 이곳 이 순간이 진실한 행복이기에 철저히 살고 철저히 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지연 기자

미얀마 사진과 함께 '진정한 행복이란' 질문

책 곳곳 '알아차림'으로 인한 즐거움 설파



물 위에 떠있는 공처럼
묘원 지음
행복한 숲 펴냄 | 1만원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데 있다." '알아차림'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해탈로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한국위빠사나선원 원장 묘원 스님이 한국위빠사나선원 인터넷 카페의 옹달샘 코너에 올린 글을 모아 <물 위에 떠있는 공처럼>을 엮었다.

"모든 것이 괴로움뿐이라서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괴로움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 괴로움은 소멸된다"며 묘원 스님은 '알아차림'을 강조한다.

'화'가 많은 현대인에게 전하는 글도 있다. "먼저 화를 낸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화를 낸 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런 뒤 가슴에서 화로 인해 생긴 느낌을 주시한다. 가슴의 고통을 확인하게 되면 언젠가는 화를 내지 않는다."

스님은 책 곳곳에서 '알아차림'으로 인한 즐거움을 설파한다. 돈, 교육, 사랑과 죽음, 화려함, 성공 등 현대인들이 바라고 고뇌하는 모든 것을 '알아차림'으로 이끌어내는 스님의 잔잔한 게송들을 읽다보면 마음이 가라앉고 평안해진다. 책 곳곳을 메우고 있는 수행의 나라 미얀마를 담은 사진들과 함께 '진정이 자리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잔잔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강지연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사찰 100미 100선	허균	불교신문사
2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5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6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7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8	부처님과 보살 재미있는 이름 이야기	김윤수	민족사
9	생명의 고향,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가르침	청화	상상예찬
10	산빛이야기	정목	바움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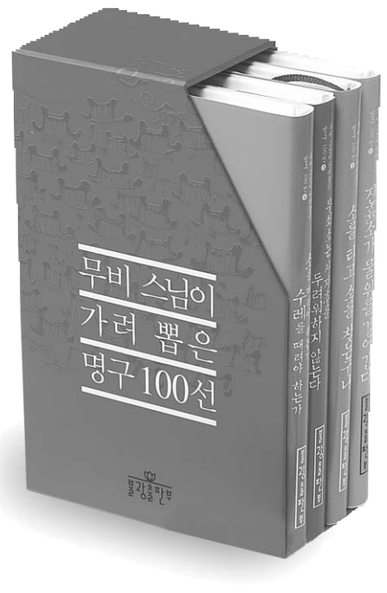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무비스님이 가려 뽑은 명구 100선 4권 1세트

깊어가는 가을, 삶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더없이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을 가르는 명구, 명쾌한 해설-한 편 한 편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열린다.

일상생활 틈틈이 이 작은 책을 거울 삼아 어지러운 마음을 비춰보고, 그 중에 특히 마음에 드는 구절을 적어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고 새김질해보라. 어느새 지혜와 해탈, 대 자유, 대 평화,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음을 자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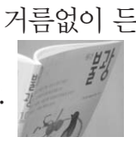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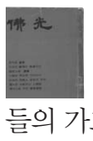
● 4×6판 양장본 | 각 권 값 9,000원
● 4×6판 양장본 | 4권 1세트 | 값 35,000원

제1권 ◉ 진흙소가 물 위를 걸어간다
제2권 ◉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제3권 ◉ 무쇠소는 사자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4권 ◉ 소를 때려야 하는가 수레를 때려야 하는가

불광출판사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5-14 | 전화 (02)420-3200 | 팩스 (02)420-3400 | http//www.bulkwang.or.kr | 도서출판 한강수는 불광출판사의 자매회사입니다. 도서출판 한강수

새불교, 새물결의 기수 – 월간 「불광」 33주년



월간 「불광」은 1974년 11월, 순수불교에 입각한 참된 생명가치의 자각을 기치로 내걸고 현대적인 포교의 의지로 창간되었습니다.  수많은 불교잡지가 창간과 폐간을 거듭하는 동안, 월간 「불광」은 33년 동안 한 호도 거름없이 든든하게 불자 여러분 곁을 지키며 불교를 대표하는 잡지로 성장하였습니다.  참진리의 빛을 생활 속에 드러내며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기획추진력으로,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현대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삼세제불과 여러 독자님들의 가호와 격려를 바라며 33년의 역사를 딛고 다시 50년,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나갈 활기찬 미래를 약속드립니다.  "Here & Now", 무한 행복 질주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행복 팍팍!

구독문의_ 02-420-3300 ◉ 1년 구독료 : 38,000원 ◉ 2년 구독료 : 70,000원 ◉ 3년 구독료 : 100,000원 www.bulkwang.org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우리 마음은 체가 없어서 자유스럽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한자리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과거 생이나 미래 생이나 일체제불이 다 함께 한자리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 동서남북, 모든 생명들이 다 함께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만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습 아닌 바로 여러분이 같이 하고 계시고, 일체제불과 더불어 일체 보살도 다 같이 하신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사실이 그러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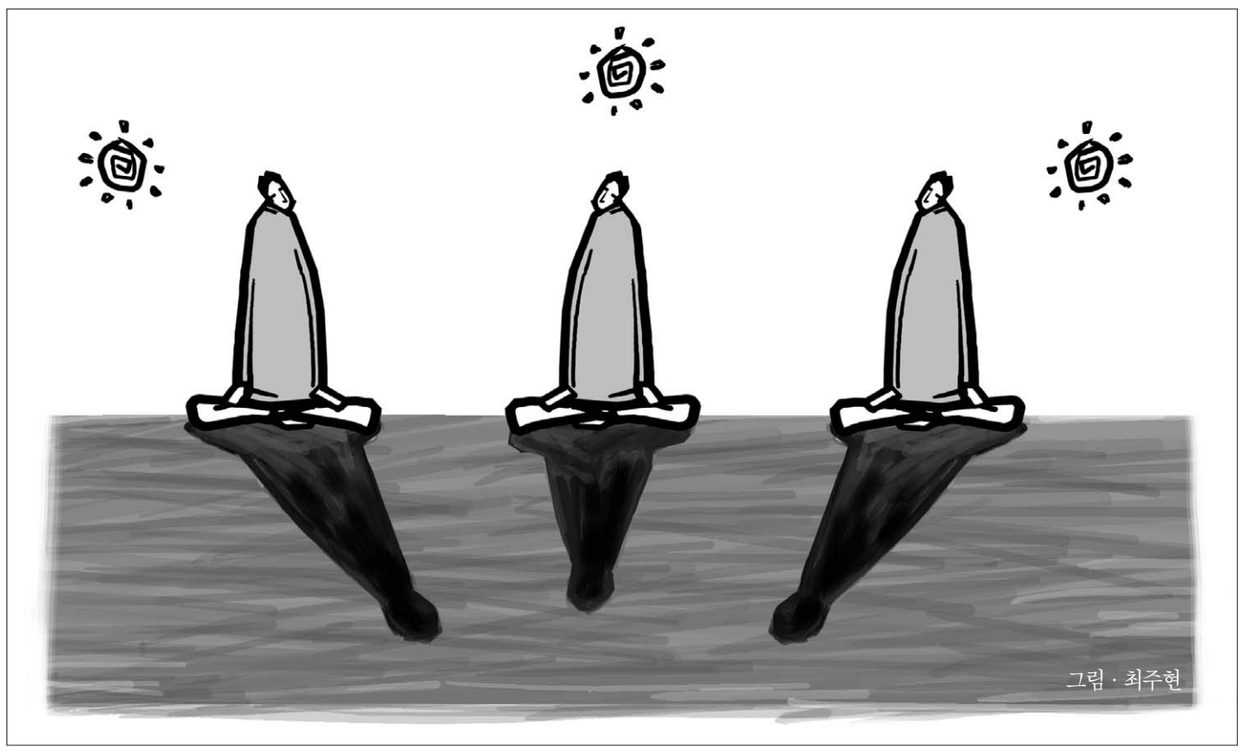
그러면 질문부터 하실까요?

▶질문자1(男): 제주지원에서 왔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주여고에 재직하면서 2년 전에 3학년 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대학 진학을 발원하는 마음에,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출근하는 차 속에서 1년 가까이를 매일 주인공을 관하고 오분향례, 반야심경을 봉송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학교에서는 제주도 여학생 수학능력시험 전체 수석, 개교 이래 명문대학 최다수 합격 등 좋은 입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하고 나니 이제는 습관이 되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관을 할 때는 '주인공의 나툼으로, 지혜로움으로 모두 이익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생활 속에서 관이 잘 안되는 경우, 스님께서 수많은 설법을 통하여 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편 아닌 방편은 필요하지 않은지 듣고 싶습니다.

▶스님: 우리가 살아나가는 게 다 방편이죠. 방편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방편이지만 그 방편도 없어서는 아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하는 것이 모두 함이 없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편은 필요한 것입니다. 방편이나 방편이 아닌 것이나 올바로 하면 방편 아닌 그대로 실천이죠.

▶질문자1(男):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작년에 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됐던 소설 중에 『하늘이여 땅이여』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 조선 오백여 년 동안에 왕위 계승과 당파 싸움으로 인하여 왕손뿐 아니라 왕후들의 원혼을 잘 달래지 못해서 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제국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삼각산 아래에서는 누구도 끝이 좋지 못하므로 왕가의 원혼을 달래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저도 끄달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한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불제자들은 사회의 안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 · 최주현

▶스님: 그러면 그것과 관련하여 뜻으로 몇 마디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전부 필요한 점이니까요. 서방정토에 아미타불이라고 합니다. 또 화엄경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화경은, 즉 말하자면 무아의 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부처님 이름들도 수많지만, 우리 살아나가는 생명들도 천차만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또 천차만별의 차원이 있고요. 그 가운데는 천차만별의 업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업보라는 건 무엇인가. 업보라는 것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없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하도록 하고….

부처님 이름을 여래니 부처님이니 또 아미타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두 이걸 깨닫지를 못해서,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이제. 즉, 일체 깨쳤다, 서방정토 아미타불이다, 부처님이다, 여래다, 비로자나불이다, 이렇게 부처님들 이름이 수없이 많지만 그것은 모두 그때그때에 따라 적합한 방향으로 모두 이름을 지어 놓았다는 겁니다.

경전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부처님께서 처음에 화엄경을 말씀하신 거는 살아나가는 도리를 주로 전파하신 거죠. 생략해서 이렇게 간단히 말합니다. 금강경이다 하는 것은 이게 선(禪)으로 가는 법이죠. 즉 무(無)의 법으로서 선법으로 가는 것이고, 또 법화경이라는 것은 선법이나 물질로 사는 사람들의 법이나 똑같이 굴러간다는 그 뜻으로써 법장(法藏)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고 본다면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것을 만약에 이루종차 전부 학으로 말을 한다면 지금 내가 한마디 말한 것이 책 한 권이 되는 것입니다, 한 권이. 그러니까 말로 배워서는…, 말을 들었다 하면 그냥 잊어버리고 몇 마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정토 부처님이든 어떤 부처님이든, 이 부처님 이름들이 수많다고 하더라도, 허공에 꽉 찼다 하더라도 그냥 한 부처님으로 섬깁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은 전체에 비유를 해서 전체에 없는 게 없는 것이고, 또 아니 비치는 게 없는 것이고, 아니 하시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인간들의 생산처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우주에서 별성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생산하는 일체의 생산처입니다. 또한 북두칠성에서는 살아나가는 도리를 관리하는데,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들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들만 산다고, 내 자유대로 산다고 이렇게 말은 못할 겁니다, 아마. 자유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긴데 모두가 일불(一佛)입니다. 여러분한테 일불로, 자신의 자불(自佛)로 가르칩니다, 지금. 자신의 자불 하나에서 수많은 부처님이 나옵니다. 수많은 차원에 따라서 수많은 중생들이 나오고 수많은 생명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 자불 하나에서 그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동적인 컴퓨터가 제가 끔들 다 하나씩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거기에 집어넣으면 그것이 순탄하고 순리적으로 다 해결이 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전국이든 세계든 다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이 우주 전체에 전파를 하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결단코 정말이지 진짜로 믿으십시오. 하찮은 나무들을 보세요. 제 뿌리 없이 그냥 모습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뿌리를 모두 다 가지고 사느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전부 뿌리 없는 게 없더라, 그리고 씨가 없는 게 없더라, 씨를 심어야 먹더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볼 때에 죽었다 해서 씨가 없는 게 아니죠. 그러니 영령들이 곳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이 날 때 그대로 거기에다가 놓는다면 입력이 돼서 그냥 전파가 되고 그냥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잘 써서 잘하고 나가는 사람이 할 때는 그냥 진화가 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았으면 착하게 진화가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배우는 이 법은 악하게 살았든 선하게 살았든 무조건이다라는 얘깁니다, 무조건!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들이 저지른 것은 모두 자기 자신들이 해결을 해야 하니까, 그것은 사람을 어디다가 갖다가 놓고서 '이제 너를 올려놨으니까 앞으로 그걸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잘해라.' 이럭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 하나도 할 게 없어요. 부처님의 대승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대승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승의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대승의 도리니 소승의 도리니 중승의 도리니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공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한생각에 그렇게 적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생각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그걸 알면 '내가 했다. 내가 산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앞으로도 이걸 잘해야지.' 이런 게 스스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 도리를 모르니까 '내가 했다. 내가 이걸 안 나가게 해야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만약에 그 도리를 안다면 그런 생각조차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마지막에 물으신 거를 생각해 볼 때

☞21면으로 계속

한국불교여래종 종도와 사부대중 여러분앞에 참회의 예를 올립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법룡) 총본산 옥천 금강 대약사사 는 2002년부터 대웅전 불사를 시작하여 2007년 12월 낙성 대법회를 준비하던 중 2007년10월1일 새벽 화마로 대웅전이 전소하는 시련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래종 전 종도는 가람수호를 하지 못한 점 깊은 참회의 말씀을 올립니다. 화마로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전 종도에게 한국불교 여래종 종정 인왕큰스님께서는 유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전 종도는 합심단결하고 하루빨리 대웅전 복원불사를 시작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 더 큰 발원의 계기로 삼아 심기일전으로 환희심의 불도량을 이룰 수 있는 신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복원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대웅전 복원불사에 불자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우체국 301119-01-001223 예금주 : 여래종 총무원)

■ 문의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 71번지
전화 033-734-1077. 011-369-4154 총무부장 송운

2007년 10월 10일

한국불교여래종 총본산 옥천 금강 대약사사

생활하면서 함이 없이 한다면 그대로 벗어집니다!

☞20면에서 계속

에 온 누리에…, 오늘 개천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말입니다, 단군할아버지라고 그러지만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셔도 불성은 부처님과 이 중생들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불성을 싸고 있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 여러분의 영혼이 그 불성을 싸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싸고 있으니까 그 영혼을 제쳐 버려야 되는데 그 영혼을 제쳐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쳐 버리려면 다 버려야 하는데,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함이 없이 한다면 그대로 벗어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노릇을 하고 남편 노릇을 했는데 어떤 노릇을 할 때에 내가 했다고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24시간 살아나가는 데 내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내가 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24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봤고 얼마나 많이 들었고 얼마나 많이 만났고 이런데, 내가 어떤 거 만났을 때 내가 했다고 그러며, 어떤 걸 봤을 때 내가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한 무더기로 그냥 공했다! 내가 하지 않았어도 운전수가 끌고 다니니까, 운전수가 즉 자기니까, 운전수가 자기를 끌고 다니고 모두 보게 하고 듣게 했으니까 운전수한테 다 감사하게 맡겨야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생활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는 그 생활 속에서 둘이 아니게 공심(共心)으로, 공생(共生)으로 살 수만 있다면, 생활하는 것이 공해서 함이 없다는 도리를 알고 넘어간다면, 그냥 편안하고 믿게 되고 그냥 놓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시쳇말로 정말 '왔다'죠.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대로, 진정 한생각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부처님의 이름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주인공으로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용도에 따라서 '지장이다' 이런다면 죽는 사람을 좋은 데로 가게끔만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어느 보살이나 있지만 그 용도로 이름을 지어 놓은 것이죠. 즉 말하자면 일체를 다 알아야 보살이 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無)의 법도 그렇지만, 유(有)의 법에서 요만한 거 하나하나 거쳐 나갈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큰 걸로 이어집니다. 조그만 거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조그만 거 하나 잘못했기 때문에 큰 것도 잘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보살 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알고 본다면 참, 이런 공부는 세세생생이 가도록, 돈을 들인다 해도 해야만 하는 공부입니다. 정말 이 공부라는 것은 이런 인연이 되지 않는다면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전자에 인연이 돼서 이 마음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건데 우리만이 아니라 일체제불과 더불어 같이 한마음으로 이렇게 상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덕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만날 칭찬을 해 드려도 뭐 조금도 손해날 일은 없지만 칭찬을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알게 된다고 해서 즉, 아만이나 아상이나 거만이나 이런 거를 가져서는 안 되고, 더군다나 더 알게 되면 마음의 고개가 딱 수그려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져요. 그렇게 할 때에 모든 것에 이익이 가죠. 나와 더불어 같이 이익이 가죠. 그래야 그것이 보살행입니다.

그러니까 영령들에 관한 문제가 있다 이러더라도 걱정할 게 없고, 또는 어떤 병에 걸렸다 이러더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폐암이다 백혈병이다 이런 것도, 큰 거고 작은 거고 다 평등한 거니까 작

모두가 일불입니다!
여러분한테 일불로
자불로 가르칩니다, 지금!
자신의 자불 하나에서
수많은 부처님이 나옵니다!

고 크다 이런 거를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로 못 믿거든요. 그리고 식구가 다 모르고 한 사람만 다니면서 공부하거나, 어떤 때 보면 한 집안에서 몇 사람씩 개신교를 믿고 그러는데 그렇게 병이 들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자기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제삼자가 어떻게 하느냐는 얘깁니다. 마음들의 문을 열어야죠. 그것이 말하자면 운명을 가져오는 거죠. 믿는 것도 그렇고 전체가 다 그래요.

여기 다니는 여러분 중에도 가장자리에 그런 분들이 더러더러 있지만 그래도 이 공부를 해 나가는 분들이 다 한자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 항상 기쁘게 생각을 하고 '아, 곳곳마다, 처처마다 있다더니 처처마다 있구나!' 하는 거를 느껴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조금도 움죽거리지 않고도 손가락으로 그 하늘이 무너지는 걸 받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데 이유를 붙이거나, 여자다 남자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가난하다 부자다 이것도 보지 마시고 그저 닥치는 상황대로 좋게, 섭섭지 않게 해결만 하고 가면 되죠, 이게. 사실 때에 거북스럽게 사시라는 게 아닙니다. 사는 거 그대로 사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다 걸어야 보살행이다 하는 것은, 팔정도라든가 사성제라든가 육바라밀이라든가 이런 이론적인 문제를 다 넘어서야 된다 이런 건데 육바라밀, 사성제, 팔정도 이렇게 말을 해 놨지만 그것도 그 마음 하나에서 다 하는 겁니다, 마음 하나에서. 마음 하나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마음 하나를, 주인공을 딱 잡고 거기다 놓는다면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도 걱정이 없죠.

그러니까 참, 소신껏 그렇게 잘하고 나가십니다. 그 말끝에 이 말씀을 드린 건 여러분이 다 같이 그렇게 알아서 걱정 말고 편안하게 사시라 이런 겁니다. 이것 보면 이것대로 그냥 걱정하고 저것 보면 저것대로 걱정할 게 아닙니다.

▶질문자2(男): 저는 제주지원 심용회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스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게 됨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며 스님께서 아주 쉽게 저희들이 한마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전에 스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다시 한 번 질문 올리고자 합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도살을 하거나 살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자리에 저희들이 같이 있을 때 저는 항상 '도살하는 이에게 원망하거나 나쁜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진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불법에 인연하여 진화 발전하라'고 이렇게 관하곤 합니다. 제가 그런 관을 할 때는 천도를 한다거나 어떤 다른 생각을 함이 없이 그냥 당당하게 그렇게 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때로는 도반들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추스르지를 못하면서 과연 그런 것을 이렇게 하고 가도 되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스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다시 한 번 질문 올립니다.

▶스님: 그것을 길게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간단하게 그런 생각으로써 하신다면 정말이지…, 내가 이런 얘기 또 하게 됩니다.

옛날에 승려들이 같이 한도량에서 사는데 은사스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선방이니까 따져 본다면 수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맨 아래에서 공양주 노릇을 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은사스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영 드시는 게 실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운을 못 차려서 저렇게 병이 드셨나 보다 하고는 나가서 지렁이를 한 소쿠리씩 잡아서는 소금을 넣고 씻어서 산에서 다려서 그 물을 꼭 짜 가지곤 갖다 드리고 갖다 드리고 이러니까, 거기 스님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너는 이제 지옥으로 떨어졌다. 하나를 살생을 해도 안 된다는데 수만 마리씩 그렇게 살생을 하니 너는 이제 죽었다." 이러면서 "우리들까지도 문제가 되니까 너 그럭하지 말아라." 하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가루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 스님만 살리면 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렁이도 스님과 하나로 돼서 진화가 되니까 좋고, 스님도 좋으니 양쪽을 다 살린 거죠.

우리 여기도 보면 한 부처님을 갖다가 수십 개를 만듭디다. 그걸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한 사람이 수십 가지, 수만 가지로 되려고 해도 될 수 있어요. 옛날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체가 없어서 자유스럽다는 얘기죠. 그래 그런 마음을 갖

수많은 차원에 따라서
수많은 중생들이 나오고
수많은 생명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 자불 하나에서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이 나는 겁니다!

는다면 '주인공' 하면 그 '공' 속에서 용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이치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닭을 하나 잡았다,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살생이지만 그 닭에게는 큰 영광이죠.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한테 걸렸다는 게 정말이지 천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문제죠. 그래서 '천 년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운 일이다.' 이런 뜻이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랬듯이 그런 사람에게 걸리면 재깍 그냥 진화되지 않습니까? 재깍 진화돼서 그 모습을 벗어나서 다른 모습으로, 자기가 살고 싶은 모습으로 태어나니까 얼마나 그게 좋은 일입니까. 양면이 다 좋죠.

▶질문자3(男): 저는 제주지원에 다니고 있는 심단회 회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3년 전 집사람이 몸이 아파서 이 불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지만 병명은 없고 무당을 데려다가 큰 굿을 두 번씩이나 했지만 몸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마음선원에 다니는 동생이 스님 친견을 한번 해 보면 어떠냐는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7월 17일, 처음으로 스님을 친견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알았어. 나무가 뿌리를 믿고 살듯이 자신의 뿌리를 믿도록 해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불법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저와 집사람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선원에 열심히 다녔고, 다니다 보니 스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화통신 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5월까지 정부 방침에 따라 영세 사업체는 합병을 하든지 폐업을 하든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업체와 합병을 해야 될지 다른 사업으로 바꿔야 할지 한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에 맡기고 놓으려고 하지만 번뇌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쉽게 돌려놓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스님 가르침 바라겠습니다.

▶스님: 지금 무엇을 하신다고 그랬죠? 통신?

▶질문자3(男): 전화통신 공사업.

▶스님: 전화통신이요? 우리가 양쪽에 다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전화가 통하죠? 그러니까 주인공과 자기가 같이 연관이 돼 있죠? 여러분이 다요. 누구나가 다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전국에 다 전화 통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통신처거든요. 통신처만 되는 게 아니지만 지금 그 말이 나왔으니까 그 면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다면 모두 그 주인공에다 통신을 해서 다 당신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결단이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한 사람만 도우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이 보이지 않는 데서 망이 다 이렇게…, 음파가 통한다는 말입니다. 음파가 통하면 통하는 대로 모든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다 응해 주십니다.

▶질문자3(男): 감사합니다.

▶스님: 동업을 한다거나 이런다면 좋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거기다가 관해 보면 좋지 않다, 좋다 이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세요. 또는 그거를 그렇게만 나눌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그 쪽이 나쁜 짓을 해서 내가 장사를 못하겠다 하더라도 그쪽을 좋게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하더라도 해라 이 소립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9년 10월 3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비의 명약 鳳凰山蔘

천제가 지상에 내려와 산신령으로부터 단 한뿌리만 얻어 갔다는 전설속의 봉삼

태조 왕건에게 1,000년된 봉삼을 바쳤다는 신비의 봉삼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불로초로 알려진 봉삼

모든 산삼중에 최고의 약 효능이 뛰어난 봉삼

죽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연장을 도와주는 봉삼

누구나 먹어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봉삼



※본초강목에 의하면 봉삼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간, 위, 비대소장, 두통(만성), 해수, 열풍독, 모든 지각성마비, 근육통, 살균피부염, 소염 이노에 특효라하고, 폐경, 대장경, 비경에 작용한다. 풍습을 없애고 열을 내리며 해독한다. 했고...
봉삼 달임액으로도, 이담작용, 해열작용, 억균작용을 나타낸다는 것이 임상실험적으로 밝혀졌다. 풍한습비증, 황달, 대장염, 임증, 대하, 두드러기, 피부소양증, 옴, 버짐 등에 쓴다. 그리고 수태음경, 수양명경에 작용하고, 풍비에 중요하게 쓰이는 약이라 한다.

건강을 되찾고자 하는 환자분이나 수행에 전념하시는 스님들께는 특별히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분들에게 선물용으로 최고입니다.

구입처 018-554-6198

소백산 무량사 人蔘 홍삼액기스

시중의 상품과는 차별화 했습니다.
순수 지방 국내산 6년근 인삼으로 정성을 다해서 가공했습니다.
드셔보시고 효능으로 평가 받고 싶습니다.

홍삼 액기스
90ml×60포 = 18만원(식약청 검사품)
90ml×60포 = 13만원(고급 우량품)
100ml×50포 = 10만원
100ml×50포 = 5만원



오가피액, 마(산약)도 있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판매 수익금은 일체 미타전 불사에 쓰여집니다.

현대과학에서 본 인삼의 효능, 효과

인삼을 신비의 영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로부터 여러가지 질병의 치료와 병의 회복 촉진에 놀라운 효험을 발휘하는 효능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대표적 효능으로는 신체조절기능의 향상성 유지작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용에 근거하여 항피로 및 항스트레스 작용, 항당뇨 작용, 혈압조절 작용, 항암작용, 동맥경화 및 고혈압의 예방, 두뇌기능 강화, 위장기능 강화, 면역기능 증강, 항바이러스 작용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소 백 산 무 량 사
문의전화 054-631-9974
※농협계좌 751019-51-095001 예금주 : 무량사

영남범패학인모집

[영남범패 불음원]에서는 영남범패 의식을 6개월 과정으로 탁마할 학인스님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여 개강하고자 합니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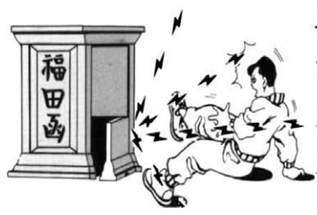
아 래

◆자 격 : 삭발염의한 스님〈일반불자 제외〉
◆개강일 : 2007년 11월 12일 오후 3시 〈주2회 월 · 목〉
◆수강일 : 매주 월 · 목요일 오후 3시(주2회)
◆장 소 :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내 406호 (불음원)
◆과 목 :
기초반 – 예경의식 및 사시불공 등
중급반 – 사십구재의식 및 사물 다루는 법
고급반 – 바라 및 승무 작법
◆강 사 : 원명스님 〈011-867-8419〉

영 남 범 패 불 음 원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덛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19. 지위 없는 참사람(無位眞人)

흙 뿌리고 먼지 날려도 숨길 데 없네
播土揚塵沒處藏
면전 출입이 너무 요란하군
面門出入太郎當
똥 누고 오줌 싸는 것도 부질없는 일
撒屎撒尿渾閑事
넓고 넓어 누가 악취와 향기를 분별하랴
浩浩誰分臭與香
– 보령용(<선문염송>617칙 '무위')

'지위 없는 참사람'은 서옹 선사의 무위진인(無位眞人)의 번역인 동시에 일차적인 의미의 새김이다. 임제의 설법은 모두 무위진인, 오직 일구의 갈파에 있다.

'도류들이여! 불법은 힘을 써서 조작할 것이 없다. 다만 평상시처럼 하릴없이 똥 누고 오줌 싸고 옷 입고 밥 먹고 피곤하면 누워 잘 뿐이다.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하고 비웃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잘 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밖을 향하여 힘쓰는 공부는 모두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짓이다"라고 했다. 그대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주인공이 되면 그 서 있는 곳은 모두 진실하여 어떠한 경계에 부딪쳐도 이끌리지 않는다.'

(서옹연의 <임제록> 임제선원간. 1974.)

"주인공이 되면 선 곳마다 모두 참이다"
임제록 법문 '무위진인' 구체적 형상화

위의 <임제록> 법문은 분명 임제 스스로 참지 못하고 무위진인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말씀이다.

스스로 '어느 곳에서나 주인공이 되면 선 곳마다 모두 참이다(隨處作主 立處皆眞).' 이것은 깨달음이 아니고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말을 넘은 말이다. 이 말씀은 '무위진인'의 구체적인 형상화다.

앞 게송 1행에서 보령용은 "흙 뿌리고 먼지 날려도 숨길 데 없네(播土揚塵沒處藏)/면전 출입이 너무 요란하군(面門出入太郎當)"으로 표현되어진다.

요란하고 요란하여 늘 발가숭이가 맨발로 쉴 사이 없이 드나드니, 4행에서 '넓고 넓어서 하늘과 땅이 뒤섞여 있고, 맑고 투명한 공기와 오줌 똥 냄새가 뒤섞여 마치 평시와 다름이 없이 아무렇지 않게 뒤섞여 있으니, 무엇을 시(是)라 하고 무엇을 비(非)라 하리오. 진실로 3행에서 읊듯이 "똥 누고 오줌 싸는 것도 부질없는 일(撒屎撒尿渾閑事)"임이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 <염송> 617칙을 읽어보자.

임제가 시중했다.

"하나의 지위 없는 참사람(無爲眞人)이 있어서 항상 여러분들의 얼굴의 문인 입으로 드나든다. 증거를 잡지 못한 이는 살펴보라."

이에 어떤 중이 나서서 물었다.

"어떤 것이 '지위 없는 참사람'입니까?"

임제가 선상에서 내려와 그의 멱살을 쥐고 말했다.

"말하라. 말하라."

그 중이 망설이거늘 선사가 풀어놓으면서 말했다.

"지위 없는 참사람이 무엇이냐? 마른 똥 막대기다(無位眞人 是什麼乾屎橛)."

청동각은 뒷날 이 이야기를 듣고 아래의 시로 노래했다.

미혹과 깨침이 서로 반대되어
迷悟相返
묘하게 전하되 간략하다 妙傳而簡
봄이 백 가지 꽃을 터뜨리니 한바탕 불고
春拆白花兮 一吹
힘이 아홉 해를 돌릴 수 있으니 한 번 끈다
力回九年兮 一挽
진흙과 모래더미를 無奈泥沙
헤쳐도 열리지 않아서 撥不開
분명히 감천의 구멍을 막고 있다가
分明塞斷甘泉眼
홀연히 뚫리니 사방으로 넘쳐흐른다 험!
忽然突出肆橫流 險
–청동각

※설봉의 착어 : "임제는 흡사 날도적과 같다(林際大似白拈賊)."
※월조의 착어 : 자기가 바로 무위진인이다 자기와 딱 포개어지는 것

위의 게송 어느 행에서나 없는 그것을 노래한다. 그게 그것이어서 위 게송에서 청동은 입을 모아 한 말로 표현한다. 무위진인은 이렇게 간단명료할 뿐이다.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⑲호박순찌개

우리나라 말 가운데 호박에 대해 좋지 않게 표현해 놓은 말들이 많습니다. '뒷구멍으로 호박씨 깐다'거나 '호박꽃도 꽃이냐' '호박같이 못생긴 얼굴' 등이 그 예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머리가 나쁜 사람을 '호박머리(pumpkin head)'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호박을 나쁘게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다'는 말에서는 '복'을 호박에 비유하고 있으니까요.

호박은 비타민 A등 각종 영양소 풍부
다이어트·부기 제거·당뇨병에도 효과

호박은 탄수화물이 풍부하고 비타민 A를 비롯한 비타민의 공급원으로서도 중요한 채소입니다. 호박은 유럽에서는 주로 채소로 쓰이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호박 파이를 만들어 디저트로 먹기도 합니다. 호박은 푸딩과 수프를 만드는 데도 쓰이며, 스쿼시와 번갈아서 씁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호박을 '모든 성인의 축일' 전야를 장식하는 도깨비불(호박등)로 씁니다. 이것은 호박의 속을 깨끗이 비우고 눈 코 입을 만든 다음 그 속에 등을 넣어 빛이 새어나오게 만든 것입니다. 매년 10월 31일의 할로윈데이(Halloween Day) 때면 아이들이 귀신 복장을 하고 이 호박등을 들고 집집마다 과자를 얻으러 다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늙은 호박으로 만든 호박죽, 호박범벅 등이 건강식품이자 다이어트식품으로 각광받습니다. 호박은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고 부기를 내려주어 산후조리에 유용하게 쓰이고, 당뇨병 치료식으로도 좋습니다.

호박에는 이렇게 훌륭한 재주들이 숨어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칙칙한 황갈색이나 표면을 덮고 있는 하얀 분가루들이 한결 정겹게 느껴집니다. 무엇이든 퍼주는, 쭈글쭈글해진 우리 할머니 손이 정겹고 좋은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호박순찌개는 어린 호박순으로 끓인 것으로, 산중 대중스님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호박순찌개

재료 : 어린호박순. 어린호박. 감자. 풋고추. 쌀뜨물. 된장.

만드는 법

① 어린호박순은 껍질을 까고 소쿠리에 담아 손으로 으깨면서 부드럽게 하며 푸른 물도 조금 뺀다.
② 어린호박은 방망이로 깨트려 놓는다. ③ 감자는 굵은 깍뚝썰기로 썰어놓는다.
④ 쌀뜨물에 감자를 넣고 끓인다.
⑤ 감자가 푹 무르게 삶아지면 어린호박과 호박순을 넣고 한소끔 끓인 다음 된장으로 간을 맞추어서 한소끔 더 끓인 후 낸다.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⑲

착하게 낡은 것의 영혼
정일근|시학, 2006 | 값 8000원





자연에서 배우는 아름다운 자비

정일근의 아홉 번째 시집 <착하게 낡은 것의 영혼>에 게재된 시편에는 많은 불교 제재와 어휘들이 등장한다. 시집의 첫 시 '녹비'는 자운영이 농경의 필요에 의해 갈아엎어져야 하는 자운영의 운명을 자비 행위로 형상화하고 있다.

논에서 자라는 자운영은 한창 꽃이 필 때쯤 갈아엎어 거름을 만드는 두해살이 풀이다.

자운영은 꽃이 만발했을 때 갈아엎는다
붉은 꽃이며 푸른 잎 싹쓸이하여 땅에 묻는다
저걸 어쩌나 저걸 어쩌나, 당신은 탄식하여도
그건 농부의 야만이 아니라 꽃의 자비다
꽃 피워 꿀벌에게 모두 공양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자운영은 땅에 묻혀
땅의 향기롭고 부드러운 연인이 된다
자운영을 녹비라고 부른다는 것
나는 은현리 농부에게서 배웠다, 녹비
나는 아름다운 말 하나를 꽃에게서 배웠다
꽃을 묻는 그 땅 위에 지금 푸른 벼가 자라고 있다
– '녹비' 전문

자운영을 갈아엎는 것은 농부가 되겠지만, "그건 농부의 야만이 아니라 꽃의 자비"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운영을 '녹비'라고 부르는데 화자는 이러한 것을 "은현리 농부"에게,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말 하나를 꽃에게서 배웠다"는 것이다. 시 '보일러 만트라'에서는 화자가 나무 보일러에 불을 넣었을 때 물이 끓으면서 내는 소리를 듣고 창작동기를 얻은 것이다.

화자는 나무보일러가 전생이 티베트 라마승 같다고 하고, 나무불을 넣으면 보일러는 염불부터 먼저 한다고 한다. 보일러가 옴마니반메훔을 중얼거리고, 히말라야 만트라를 노래하고, 긴 염불 뒤에 한숨을 쉰다고 비유한다.

제목이 긴 시 '도다리 한 마리 놀지 못하는 바다를 가지고'에서는 통도사 스님과 설날 아침에 나누었던 대화를 가지고 열심히 시 쓰기를 하지 못했음을 과거의 울산 작천정 골짜기에서 글씨를 쓰고 살았던 인물을 통해 인유한다.

시인은 '밥 보리살타'에서 화자의 어머니가 행하는 지극한 보살행을 '고양이 밥 주기'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다리 하나를 잃은 도둑고양이
식구처럼 돌보시는 어머니
우리 어머니 안 보살님
절에 절하러 가시면서
밥상 차려 놓았으니 너는 밥 먹고
고양이는 밥 차려드려라
꼭 데워서 따뜻한 밥 드려라
추운 날 찬밥 주는 일
그것은 죄가 된다
내게 몇 번이나 당부하시는 어머니
끼니끼니 찾아오는 도둑고양이에게
끼니끼니 더운밥 차려 주시며
다음 세상에서 만나면 갚아라
쌀가마 메고 와서 꼭 갚아라
다리 잃은 도둑고양이에게 당부하시는
어머니의 밥 보리살타
– '밥 보리살타' 전문

현대불교신문
새로운 감각 달력

불기 2552년 (2008) 무자년
NEW CALENDAR
현대불교신문사에서 독자적으로 불기 2552년 (2008) 무자년 달력을 제작하였습니다. 가장 불교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담아 제작한 달력으로 한층 고급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희상 스님의 금강경 이야기
하나로 돌아가기
작품 : 희상 스님_ 크기 : 30.5 × 30.5

절의 미학
사진 : 박재완 기자_ 크기 : 26.5 × 26.5

불국정토 남산
사진 : 고영배 기자_ 크기 : 26.5 × 26.5

현대불교신문 주문전화 : 02-2004-8200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3면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영가 천도 전문 도량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악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사주와불교교리-수양론강의
인과론,개운론,섭생론,
치유론,수양론,길흉론
3-6개월 과정.월20~50만원
내강010-3656-5687
기초가 있으신분만 강의합니다
단체및개인출장지도
(스님 또는 포교원)

역학수강생 모집
기초반(무료),중급반,연구반
직장인을 위해 저녁반 운영함
역학30년 유명교수님:속성 완수
인천불광사
032)508-0381
019-9007-9746

보살선방
(1인1실-방1,주방,거실,욕실)
(부부실-방2,주방,거실,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며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 시주금 내시고 종신제)
불광사,불광대학
053)656-6766

빙 의
병원에 가도 병명없이 아픈 분
신병 · 무병 · 알콜중독 ·
우울증 · 컴퓨터오락중독
www.jijangsw.com
054)383-8553
(부처골 지장선원)

범음 범패 불공의식 해드립니다
점안식, 49재, 천도재,
각종행사
천수바라, 사다라니다라,
승무작법
010-2570-3847

빙의 / 비만
영가조화인지 심리적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육체적 질병인지를 각자의 우주시계인 사주팔자로 원인 진단 해결
(단, 한번만이라도 고통이 감소되고 호전됨을 느낍니다. 고질적인 만성두통, 항상 피로에 지친 직장인 수험생 등 특히 식욕이 억제되지 않아 힘든 분 ...등등)
02)6083-4339
마음의 도량 망우사

秘法전수
뭇광고에 접해보면 생각과 다르지요?
- 좋은 인연 맺으소서 -
1. 삼혼칠백의 작용법(확실한 천도)
2. 약손이 되는 비법(氣)(즉석효험)
3. 도인침술법(정신병, 학업성적, 빙의)
4. 7日 도인 비결법(독소배출,좌관력)
5. 체면학,레이키,기공,내공, 빙의,영상법등 명쾌한 강의
-교재에 의한 각1시간 강의 총 6시간(1시간체험)-
*스님께서 직강, 시원스럽습니다. *보시료 약간
- 초종파스님 누구나 배워보세요 -
연락처 010-3189-3525
경남 의령군 용덕면 해용사 -법경-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께 귀의하여 법당조성을 이루고자 하나 무소유의 시작으로 각 사찰 대덕 스님의 보시를 기다립니다
불보살님은 조성하고 있으나, 지장탱화, 신중탱화, 다기, 촛대등을 (목불가능) 갖추지 못하고 있어 혹, 보관중인 탱화 및 다기 촛대를 보시해 주시면 대덕스님의 큰 공덕으로 기도정진 하겠습니다
▷위치 :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223-1번지
무량암 관정스님 합장
010-6665-6990

부처님께 귀의해서
출가하여 스님이 될
행자(女) 인연을
기다립니다
010-9199-709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세 이상 60세 전후)
서울 구파발(전철에서 10분거리)
02)352-0572
011-261-0572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남 진주)
055)752-649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곤지암)
042)271-6249

경관이 좋은
사찰에서
가족처럼 지내실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0-3647-0018

기도 성불을 이룰 수 있는
청정한 약사여래
나반도량입니다
천일기도하실 비구니스님,
보살님 모십니다
055)835-9450
011-9790-1779

가족처럼 지내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5)883-8846

조계종사찰에서
기도정진할 비구나
비구니부전스님
모시며 천도재의식
전수 받을 스님 및
행자모집합니다
011-854-8107

주방일 맡아 하실
자애로운 보살님
모십니다
(청주 근처 호스피스
요양원 정토마을)
043)298-2258
011-9732-8562

대웅전 불사에
불사 하실 분
인연기다립니다
010-2388-2847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처사님, 종무원 구합니다
행자모집
(사미계 수료후
중앙승가대 입학가능)
011-324-5103

기도부전스님
구함
051)334-3009
011-840-435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합천
055)932-5706

부처님께 출가하여
스님이 되실분이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정릉 4동
02)943-8573

사찰내 무료독거노인 복지관
공양주 보살님
2분을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보시금 차후 결정)
010-8819-898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세후반 ~ 60세)
010-4528-9807

천일기도 법사님
모십니다
(조계종 사찰)
055)261-750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9284-6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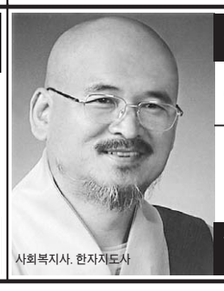
사주운세 전화상담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02)826-5067 이 통화중 일때
02)574-3427 로 걸어주세요
명리학 통달 [사주첩경 이석영 저]
이런 분 찾아오세요.
고질병으로 굿이나 영가천도해도 효과 없는 분
학업성적 부진, 가출, 아는 문제 잘 틀리는 학생,
부부간의 갈등, 혼사 지연, 부모자식간의 불화,
우울증, 알코올 중독, 사업 고민이 많으신 분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삼재 등이 있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하지만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易) 정 통 命 理 學 (學
四柱 비법완성
命理를 완성코져 하는 분
"전문가 양성"
정통교재-命理學 비전, 命理學 비결
각권 30,000원
인천 明陽 명리학당
연락처 : 032)330-4684, 032)503-4684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사찰 행사 49재, 천도재, 불상점안, 산사음악회 (범음범패, 바라, 작법무, 화청, 전통무용)
영산회상 예술포교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겸합장)
문의 051)557-1130/011-482-2091
홈페이지 : www.천도재.kr

28숙과 풍수지리 특별지도
● 대상 : 승려에 한하며 1:1로 개인지도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행자(예비스님) 모집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연령 : 50세이하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시스템
●행자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 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2007년 1학년 경전반 편입생 모집 - 반야심경, 금강경
●회주 우학스님 특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사암침술·맥진강좌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침술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 과 정 : 기초 ~ 전문가 과정 까지
■ 내 용 : 12경락, 기경, 경근, 사암침법, 장부의 허실 판단, 맥진법, 맥조절법, 오행처방법, 임상실습(고질,난치병), 자석요법, 즉효요법, 카이로프라틱,
■ 개 강 : 2007. 11. 1(수 · 목반) 14시
11. 2(금 · 토반) 14시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 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암침술학회
서울 종로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육임 수강생 모집
육임 기초에서 백법 까지 실전에
임할수 있도록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사람에 일을 판단하는대는
옛부터 육임이 제일이라 했습니다.
720 국수에 담긴 비술만 터득하면
어떠한 점사도 가능한것이
육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함께
학문을 배우실분들을 원합니다.
◆ 직강수강료 : 100만원

처음할땐 = 문서 시험은 후에는 길로된다 가정을 잘다스리고 화합하세요 그래도 가정이 제일입니다 나를 구해주고 의지할 곳은 가정입니다
육임 동영상 CD판매 판매가 100만원
거리가 멀어서 직강을 들을수 없는 분들은 동영상 CD와 교제로 육임을 공부하실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하실 수 없어도 ID와 비밀번호만 치시면 고화질의 동영상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공부는 직강과 동일 합니다.
720 국수 CD 판매 판매가 100만원
육임에 진수인 "초사(왜 왔는가?, 하고자 하는 일은 될까 안될까?)"를 그날에 시간만으로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알수 있는 육임만에 비법을 그날 시간만 택하여 국수만 찾으면 모든 점사가 명확히 수록된 CD입니다.
육임에 용어와 시간간택법, 보는 요령등을 CD에 담아 같이 보내드리며 직강이 가능한 분들은 4회 수강권을 같이드립니다.
※직강신청+육임동영상+720국수CD 구매시 특별가(200만원) 적용
공념학당
■ 상담문의 : 02)793-7333 ■ 홈페이지 : www.saju79.com
■ 사 무 실 : 서울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 (예금주 : 박옥자)

불교의식강좌(기초) (3개월과정) 회원모집
목탁과 요령은 불교의식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불구(佛具)입니다. 제반의식의 구성을 이해하고, 근본에 충실함을 배우고 익히며, 향후 범패 수행과 교화방편의 밑거름이 되는 정성스럽고 매우 특별한 강좌입니다.
◆ 목탁 요령 녹음기 들고 귀하게 오십시오!
- 이 염불이 잘 되면 징과 북 염불이 잘 됩니다.
◆ 나이 존심 의심 지워 체면 팍 놓으세요!
- 발심 하십시오!!! 정말 잘 하실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만족하실 것입니다!
- 꼭 필요하고 열심히 해보실 분만 오십시오.
◆ 부족한 부분은 같이 채워 가십시다!
□ 도량석 종성 각단예불
□ 각단불공 영반시식 봉송
□ 상장례의식(시다림염불) 안택 고사
□ 천도재 점안 이운 신중작법
□ 법회(정기 특별 가정 방생)의 진행
□ (주요의식 경전) 우리말 진행 및 독송
◆대 상 : 스님 전법사 재가불자 등 (30명)
◆개강법회 : 2007.11.3 토요일 오전 11시
◆강 좌 : 당일부터 매주(토) 오후 2시 ~ 6시
(사전에 등록을 마치셔야 수강이 가능합니다)
◆농협 : 211040-56-152986 이형도(대경불음연)
◆상 담 ☎ 054)336-4475~6 / 010)4579-0408
☞ 경부선 영천IC → 첫 신호 좌측 → 공단 직진 막다른 농로 좌측 → 계속 직진 5분 우측 (동림한방병원)
☞ 경북 영천시 금호읍 호남리 307번지
교육원장 혜명 지운 지도법사 학인 원범
대경불교음악연구원 합장

효사 육임 복변집
▷ 250만원 ◁
온 시간, 전화한 시간으로만 판단 합니다.
정확합니다.
• 왜 왔는가?
• 어떤 정황인가?
• 무슨 귀신의 침범을 받고 있는가?
• 어떤 부정 빌미가 붙어 있는가?
• 누구의 산소에서 어떤 탈이 났는가?
• 시험 · 승진 · 당선 · 취직이 되는가?
• 부귀빈천
• 현재운세, 금년운세, 12년간 운세
• 1년 월별 신수
• 초사
• 육임 직지 요결
• 가정 사정
• 묻는 목적사 항목별답
• 각 일별, 시간별 길일, 길시, 길방
이상 모두 써져 있습니다.
육임나라(주) 02)993-8680
www.taoetmple.net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700-951487 <육임나라>
농협은행 170338-56-155880<김나형>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88) 반야산 관촉사

무분별 개발로 생태계 파괴 가속화 우려

자연공원 조성 과정서 문화재 훼손·약수 폐정 등 피해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 수행환경에 큰 위협

사찰 창건사를 살펴보면 당시 지정학(地政學)적인 면이 강하게 고려된 사찰이 많다. 의상의 화엄십찰을 비롯해 논산 반야산 관촉사 등은 대개가 역사의 변혁기에 많이 세워졌다. 태조 왕건의 넷째 아들 광종은 호족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한편 후백제 유민들을 유화시키기 위해 정략적으로 관촉사를 세웠다.

논산 일대는 동남쪽으로 마이산-대둔산-계룡산으로 이어지는 금남정맥이 지나가지만, 산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형적인 비산비야(非山非野)를 보여준다. 관촉사를 품은 반야산도 해발 100m의 생태적인 요소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야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을 굳이 찾은 까닭은 관촉사의 역사문화적 사격(寺格)과 함께 지방의 중소도시에 있는 사찰의 자연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봉은사가 대도시 사찰환경을 대표한다면 이곳 관촉사는 우리 시대 중소도시 사찰의 자연환경 입지를 대표해준다.

일주문을 지나 경내로 오르다보면 숲 그늘 오른쪽 바위 아래에 약수터가 있다. 수량은 거의 바닥을 보이고, 수질도 매우 의심스러워 약수터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조건을 상실하고 있다. 보건당국에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표지판을 걸고 하루 빨리 약수터를 폐쇄해야 할 것이다.

관촉사는 요 몇 해 사이에 대규모 불사를 해서 모양새가 크게 달라졌다. 대웅전, 미륵전, 불상, 요사채가 저 나름대로 자기 영토를 갖고 있지만, 형국이 좁다. 대웅보전 주변은 산을 절개하는 과정에서 물이 나와서 갈수기인데도 미나리와 고마리가 자생할 정도로 물이 그득하다. 이 물은 전각 수명에 나쁜 영향을 준다.

관촉사는 석불입상-석등-석탑-배례석이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전형적인 일불일탑 양식의 가람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들 문화재는 모두가 화강암으로 지은 것이다. 논산 일대의 화강암은 중생대 쥐라기의 대보화강암 및 백악기의 불국사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강암은 조립질(粗粒質)로서 다른 암석에 비해 박리(剝離. Exfoliation)와 절리(節理)현상이 잘 일어난다.

이미 여러 해 전부터 관촉사 불상이 박리현상으로 시름을 앓아왔는데, 요즘 이 문제로 문화재수리공사에 들어가 있다. 박리현상은 석등에서도 군데군데 일어나고 있어서 애를 태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석물문화재의 박리현상을 치료할 뚜렷한 방도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전설에 따르면, 한 아낙이 반야산에서 고사리를 꺾다가 아이 우는 소리를 듣고 가보았더니 큰 바위가 땅속으로부터 솟아나고 있었는데, 이를 조정에서 알고 혜명 대사로 하여금 바위에 불상을 조성하도록 했다고 전한다.

봄이면 관촉사 뒤 반야산에는 고사리가 많이 난다. 관촉사 경내에는 넉줄고사리가 곳곳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가을이면 넉줄고사리 단풍도 눈길을 끈다. 넉줄고사리는 여러해살이 양치식물로, 바위나 나무 등걸을 타고 오른다. 뿌리줄기는 길게 옆으로 뻗고, 잎몸은 세모진 달걀 모양이다. 번식은 포자나 뿌리줄기로 한다.


고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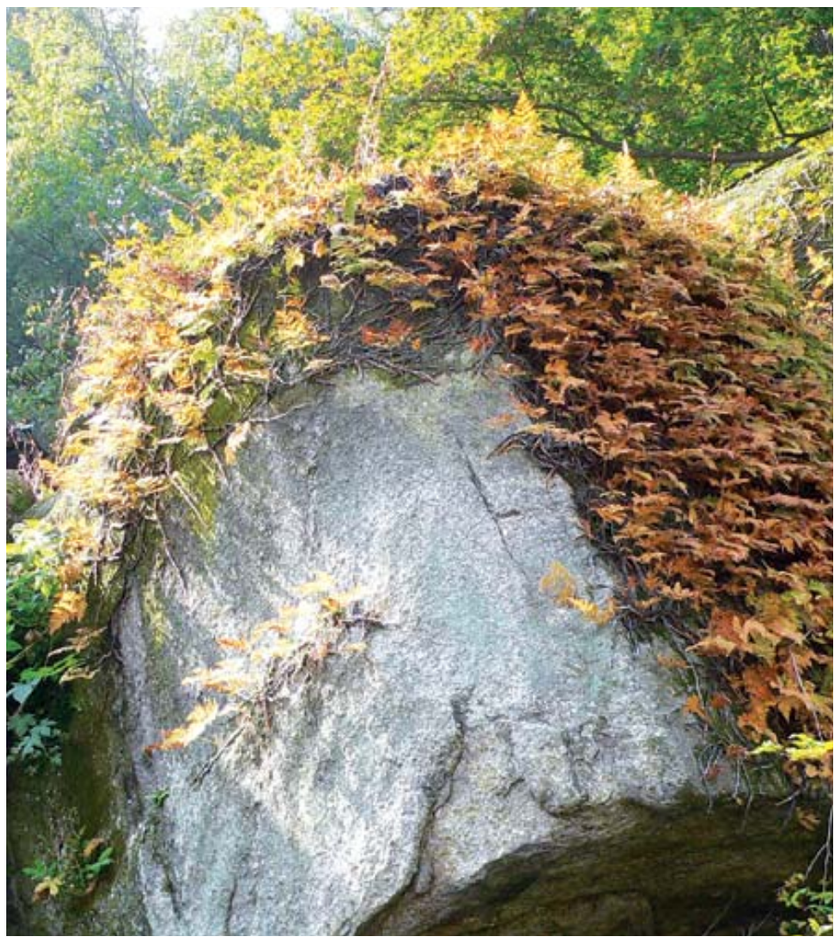

백로 어미와 새끼.


털두꺼비.

관촉사 뒷숲은 다양한 나무들이 혼재되어 있는 혼효림이다. 명부전과 삼성각 뒷숲은 전각과 너무 이어져 있어서 산불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공원화된 반야산 숲은 그만큼 산불 발생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전각과 숲 사이에 방화공간을 둘 필요가 있다.

관촉사에서 반야산으로 오르는 길은 시멘트 계단길이다. 반야산은 지난 1973년 논산시의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말이 '자연'이지, 오히려 원래의 자연을 망가뜨리고 들어선 공원이다. 산꼭대기에 공원이 들어서면서부터 관촉사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 산 위의 비포장길에서 흙먼지가 수시로 날아들어 석물문화재의 훼손을 재촉하는가 하면 경내 전각의 지붕을 뿌옇게 덮고 있다. 관촉사 약수의 폐정(廢井)도 반야산의 토양과 수질오염에서 비롯되었다.

현재 하루에 1000명의 시민들이 반야산을 오르내리는데,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반야산을 찾는 발길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환경용량을 무시한 등산이나 산책은 반야산의 훼손을 더욱 발 빠르게 앞당길 것이다. 관촉사의 수행환경은 더할 나위도 없다.


넉줄고사리 단풍.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공원 숲에서 시민들이 무리지어 담배를 피우고 아무데나 함부로 꽁초를 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숲속에 천년고찰이 있음을 감안하여 논산시에서 공원 전역을 금연지역으로 정하고 곳곳에 금연안내판을 설치하고 시민들을 계몽해야 할 것이다.

반야산은 리기다소나무가 단순림 수준으로 우점하고 있다. 고유의 적송은 관촉사 주위에만 몇 그루 남아있다. 이 지역의 야산은 오랫동안 땔나무를 공급하느라 거의 민둥산 수준이었다. 그 후 산림녹화 정책으로 융단 덮듯이 리기다숲을 조성했는데, 거의가 30~40년생 동령(同齡)숲이다.

얼마 전부터 이 숲에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이 번져서 곳곳에서 소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다.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병에 걸린 나무를 제거하고, 건강한 소나무의 생육을 위해 간벌을 해주어야 한다.

반야산은 산이 높지 않아서 이렇다 할 계곡이 없다. 그래서 건조한 느낌을 주지만, 습기가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몇 종류의 이끼들이 보인다. 솔이끼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솔이끼는 점토질의 습한 토양에서 무리지어 자란다.

반야산은 마을에 인접한 산이라 초본의 다양성이 빈약하다. 꽃을 피우고 있는 것으로는 고마리, 도깨비바늘, 개쑥부쟁이, 산국, 마타리, 짚신나물, 여뀌, 이고들빼기, 좀깨풀, 차풀, 탈쇠서나물 등등이 있다. 열매를 맺고 있는 댕댕이덩굴과 까마중은 주로 논밭이나 야산을 좋아하는 것들이다.

고마리는 여뀌과 식물로, 주로 도랑이나 논 주위에 서식하는 한해살이 풀이다. 키는 60cm 이상 자라며, 줄기에 아래로 향한 가시가 있다. 꽃은 흰색과 분홍색 두 종류이며, 늦가을에 열매가 맺힌다.

댕댕이덩굴은 덩굴손이 따로 없어서 줄기가 물체를 감고 오르는 것이 다른 덩굴식물들과의 차이점이다. 잎은 달걀 모양으로 끝이 뾰족한 편이다. 꽃은 봄에 피고, 포도송이 같은 열매는 가을에 익는다. 예전에는 절에서 줄기를 걷어 바구니 등을 만드는 데 썼다.

귀화식물도 서양등골나물, 둥근잎유홍초, 환삼덩굴, 개망초, 망초, 미국자리공, 미국가막살이, 똥딴지, 미국쑥부쟁이 등등 부지기수로 많이 들어와 있다. 미국자리공의 경우는 마치 관목처럼 자라서 곳곳에서 군락을 지어 위세를 떨치고 있다. 서양등골나물은 서울 용산에 주둔했던 미군을 통해 들어왔다. 미국자리공만큼 위세는 없지만, 반야산에도 서양등골나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 곧 그들의 반란이 시작될 것이다.

반야산 목본은 리기다가 우점한 가운데 밤나무를 제외한 참나무류는 아직 어린 상태이다. 자귀나무, 왕벚나무, 단풍나무, 태산목 등 장승공원을 조성하느라 심은 활엽수들이 능선 산책로 주변에서 보인다. 일부 구간은 등산객들에 의해 토사가 유출되어 솔뿌리가 드러난 곳도 있다.

활엽수가 소나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어서 곤충의 다양성은 빈약하다. 그리고 때가 때 인만큼 모두가 슬슬 지상에서 떠날 준비들을 하고 있다.

반야산의 조류상은 비교적 다양하다. 박새류에서부터 딱따구리류를 비롯해 물까치와 때까치 등 여러 종류의 텃새들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반야산의 서북쪽 자락에는 몇 해 전부터 백로와 왜가리가 날아들어 대규모 서식지를 형성하고 있다. 매년 10월 초가 되면 남쪽으로 월동을 떠났다가 다음 해 다시 찾아와 짝을 짓고 산란한다.

충남에서 두 번째로 큰 탑정저수지는 겨울에도 잘 얼지 않아서 큰고니를 비롯해 여러 종류의 철새 4만여 마리가 찾아든다. 1월 초순경이면 반야산 멀리 농경지 위로 수만 마리의 금강 가창오리들이 구름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한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들판에 섬처럼 홀로 떠 있는 이 야산에 고라니와 멧토끼가 서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발로 인해 반야산의 숲이 줄어들고, 그에 반비례하여 등산객들이 배가 되면 이들 포유류에게는 지옥이 따로 없을 것이다.

해발 100m 정상에 시멘트로 지은 반야정 팔각누각이 세워져 있다. 반야정에 오르면 시야가 확 트인다. 반야산은 주위의 산들과 줄기가 이어지지 않은 독립된 산이다. 관촉사를 중심으로 동쪽은 아직 들이 남아있으나, 서쪽은 논산시가지로 이미 많이 개발되었다. 남쪽 자락엔 건양대학교 캠퍼스가, 서쪽 자락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점령군처럼 산자락을 점령하고 있다. 이제 머지않아 반야산 꼭대기까지 점령해 올라올 기세이다.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관촉사의 수행환경을 지킬 것인가.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cafe.daum.net/templeeco

황토방을 사찰로 운영하실 분을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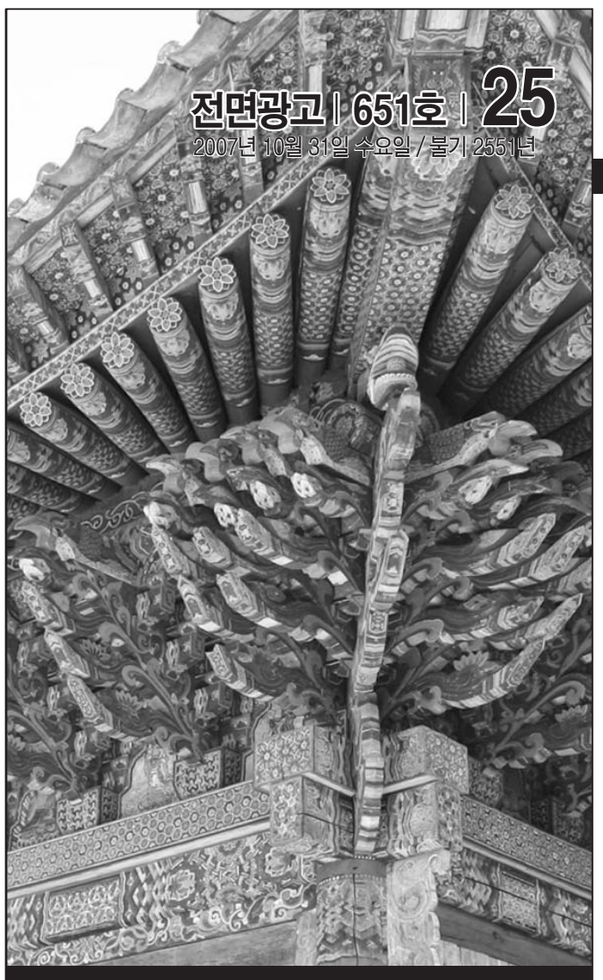





광주에서 20여분 거리에 위치한 이곳 화순군 남면 벽송리 황토방은 산세가 수려하고 조용한 곳으로 황토방을 운영하였으나 주위 여건이 사찰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지금은 삼존불이 봉안하여 법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방 · 욕실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서 수련원이나 선방, 요양원으로 운영을 해도 아무런 손색이 없으며 즉시 법회도 가능합니다.
임시 사찰로 운영을 하고 있으나 개인 사정상 운영이 어려워 지속적으로 사찰을 운영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 위 치 : 전남 화순군 남면 벽송리 799. 799-1. 799-2번지 (광주에서 20분 거리)
- 면 적 : 실평수(약 600여평) 법당포함 건축물 7동 (합계 : 약120평)
- 공부상 면적 : 대지(365평), 건축면적(59평)
- 매 매 가 액 : 3억 5천만원(급매)

☎ 011-612-6104/061)371-0330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현대불교 buddhanews.com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 안내

● 위치 : 남쪽 바닷가 거제도
● 부지 : 8,000평(100% 관리지역 사용가능)
● 법당 : 목조 50평(5포 7포)
● 목조건물 8동 기타 대종각
해수관세음보살 15자(연못 200평)
● 부산~거제간(30분 소요)대교 공사중
주변경관 바다전망 최고 정남향
30년 전통 사찰 최고의 도량
● 가액 : 45억

임법당 안내(30년생)
● 위치 : 부산 범일동
● 평수 : 120평(시유지)
● 건물 스라브 약 30평(등기필)
● 법당 12평, 요사 방 3칸
주방 및 욕실 최신시설
● 정남향 전망최고 뒷산 접
● 가액 : 9, 500만원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근교 낙동강이 보이는 사찰 터 27,000평(당 1만원) "급"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
● 법당 : 60평
● 요사 : 90평
● 부지 : 1,300평
● 가액 : 16억5천

● 위치 : 제주도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2억7천

● 위치 : 마산지역
● 법당 : 24평
● 요사 : 120평
● 명부전 : 200평
● 부지 : 1,200평 외
국유지 1,500평 사용
● 가액 : 20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 법당, 황토 요사채,
텃밭, 넓은정원
● 총 3700평
● 각종 유실수, 옆 산, 계곡옆
● 임대 보증금 250만원,
1년 300만원
양도도 가능
017-813-9126

도심속의 포교원

● 위치 : 서울 암사역부근
● 평수 : 25평 3층
옥탑방 사용가능
● 시설일체 완비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2003-3944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남구
● 대지 : 110평
● 법당 : 40평
● 요사 : 1,2층
● 창건 10년된 사찰
● 가액 : 3억 5천만원
017-531-2888

복지추모사업을 위한 "절"

● 위치 : 경북 고령
국도변대구에서 30여분
● 대지 약800평, 건평 약80평
(임 2천평 유입가능)
● 법당 25평, 방 9개, 주차장 약500평
● 요양원 및 추모(사리불 안치)
사업 진행중
● 동참 및 운영할 분 요망
● 인수가 : 2억1천만원
(9700만원 융자 안고)
017-501-2315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대지 600평, 법당 25평
● 삼존불, 요사채 30, 20평
● 마당, 연못
● 마산,진주,고성,통영,함안
30분거리
● 가액 : 3억(융자1억3천가능)
010-4583-203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전 태평동 시장입구
아파트 밀집지역
● 평수 : 130㎡(40평)(3층)
● 삼존불,후불,신중,칠성,
산신탱화,미륵불,동불(5자)
방2,주방,실내화장실,
에어컨 및 모든시설완비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42)525-5355
018-456-6339

사 찰 안 내

● 위치 : 춘천근교,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남(서울 50분)
● 부지 : 약 2000평, 법당2개,
방9개, 교육관(큰방1)
● 특징 : 기도성취 대불
(노천법당, 시설 최우수)
진신사리봉안(탑), 전망이
좋으며 경관수려
● 가액 : 12억
010-9757-5608
033)257-7124

도심사찰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중심,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 2층 40평내 법당1, 큰방2,
스님서재방1
● 부처님 삼세불 4자3치,
후불목탱 순금조성 14자6치
신중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칠성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 완벽하고 깔끔한 사찰, 즉시입주
● 전세 6천만원, 월세가능, 주차확실
● 비구니스님도량으로 완벽함
● 주인 직거래, 답사하시어 의논바람
010-6411-288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전 시민회관 근처
● 평수 : 90평(7층 건물 7층
전체사용, 옥상 사용가능)
● 법당 , 주방, 접견실, 요사채
삼존불, 108후불, 신중탱화,
감로탱화
● 에어컨 3개 등 인테리어
시설 최상급
● 보증금 500만원, 월57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2284-073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
(울진 불영계곡 가는길)
● 부지 550평
법당 목조 한옥 20평(단청필)
● 요사채 30평, 심야보일러
산신각 1동, 화장실 1동,
● 산세 좋고, 교통편리,
주차 무한정
● 가액 : 2억7천만원
※꼭 필요한 분만 전화 요망
불 필요한 전화는 사절
010-7186-5570
054)673-649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 소천면
태산산 고선 계곡
● 대지 150평,국유지600평
건물1동 있음
● 요사채(슬라브) 45평
● 산신, 후불, 칠성, 신장,
삼존불 모셔져 있음
● 집기류 일체
● 가액: 1억 5천만원
※필요하신분만 전화요망
011-556-061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중심지 산밑
● 대지 : 약 80평
● 건물 : 법당 20평 슬라브
● 요사 40평 슬라브
● 가액 : 2억6천만원
018-554-6198

도심 포교원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2층 양옥
● 대지 170평, 건평 6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7104-4849
010-4527-4849

사찰(급)안내

● 위치 : 양산시 원동면
(배내골 입구)
불사한지 3개월 된 신축사찰
● 대지 : 약 100평
● 대웅전 약30평,요사채1,2층 20평
● 산세수려, 기도도량, 지하수 사용
연못 조경 완벽, 야외 산신각
● 스님 건강상 급 양도
저렴한 적정금액 매각
● 천연염색 체험장으로도 적합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9-245-8929

명당(터)안내

● 위치 : 고흥 남쪽 끝
한적한 바닷가
● 평수 : 총 550평(관리지역)
● 용도 : 정남향 암자, 토굴,
팬션, 별장지
● 특징 : 뒤쪽 산, 앞 바다,
2차선 도로접,
● 가액 : 사정상 4800만원
061)835-4988
017-626-49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원주 시립박물관 옆
● 평수 : 40평
● 보증금 5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800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10-9940-0312
010-2456-8630

처음 시작하는 스님, 법사님, 보살님께

● 위치 : 전주시내 중심 상가주택
2층 건물 중 1층 20평
● 법당1, 방2, 도시가스,욕실,
살림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세 26만원
시설비 250만원
● 보시는 분 요지, 현 운영중
010-6411-288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김해시 내동
● 평수 : 총60평(4층 건물중3층)
●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설, 옥불 200여불
● 보증금 1천만원, 월세절충
시설비 2천만원
● 시설 최상급, 몸만오시면가능
스님사정상 급 안내함
055)338-1328
011-628-115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 평수 : 108평(건물 3층 전체사용),
옥상 사용가능
● 법당 : 삼존불, 약사불, 후불탱화,
약사관음탱화, 신중탱화,
지장호신불 78불, 각 에어컨2대
● 스님서재방 1, 종무실 1,
대중공양실 1, 방사 2, 후원(5평)
● 각 방마다 전기판넬 설비, 시설무 모두 A급
● 현재 불교대학 운영중
시설비 5천만, 보증금절충가능
문의전화 010-2039-5288

청송 토굴안내

● 국도접, 물흐르고
대지 370평
● 요사 32평, 법당 5평, 창고
● 가액 : 1억 3천만원
010-3131-6533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 땅 1천평 중
종교용지 450평
법당 20평, 요사채 60평
● 바다가 잘 보이는 수행도량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0-7109-6074
054)293-207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남원
● 부지 3200평,
법당 30평(목조)
산신각 10평(목조)
● 납골 200기 시설
(100기 미분양), 요사완비,
지장대불, 사리탑 완비
● 가액 : 2억5천만원
010-9115-68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총평수 : 790평
법당 20평, 요사채2, 방4,
창고, 반상용 양어장
● 비구니스님기도처 명당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2억3천만원
010-3138-4897

사 찰 안 내

● 위치 : 고흥군 도화면
5분거리
● 법당 35평, 11년된 건물
● 산신당11평,종각,요사채2동
● 평수 : 1,000평
● 가액 : 1억 8천만원
(가격절충)
061)832-3136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괴정동
● 대지 : 250평
● 구조 : 법당40평,요사채40평
● 가액 : 8억원(은행융자3억원)
절충가능
● 특징 : 조경관리 잘 되있음
지하철 역세권
011-584-1291

전통문화예술 포교원

● 위치 : 서울 구로 8700세대
APT단지
● 5층 : 280평 중 법당,
공양간 외 170평
세미나실, 공예문화원 110평
● 6층 : 원장 집무실, 요사채 70평
● 가액 : 2억 절충
● 강서 제일의 포교도량
011-9814-027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 총평수 47평
● 보증금 2천만원, 월11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8-321-244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주
(중부내륙고속도로 10분)
온천휴양림이 5분거리
● 법당 15평, 요사채 25평,
창고1, 텃밭 약50평
● 가액 : 4천만원
011-9093-1384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 3층 건물에 3층, 재래식
큰 시장 안
● 50평, 1,000만원에 30만원
시설 A급 시설비는
답사후 결정
011-574-3303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문경시 농암면
사현리 산57번지
● 임야 3만평
● 용도 : 사찰, 수련원, 납골당, 묘지
● 가액 : 평당 12000원
(3년 분할 가능)
031)535-7833
010-3242-3038

부산최고의포교원(급)안내

● 위치 : 광안리 대로변 요지, 광안지하철
1분거리(총 4층건물 중 3,4층)
● 3층법당40평, 요사채30평
● 4층 웅장한 목불,석가모니불,
나한전,신중당,신중탱화,
영가단,바닥전체 다다미
● 주택밀집, 시장, 큰병원 인접
● 전세 2500만원 / 월 120만원
시설비 절충가
● 신축불사하게 되어 급 양도 합니다
놓치면 후회하실만큼 최고의 시설임
051)631-3280
010-4666-075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감전동 대로변
3층 45평
● 삼존불, 소불 108불 봉안, 각단탱화
● 법당 30평, 스님방, 공양주방
● 시장입구, 유동인구 많음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800만원(시설완벽)
051)322-2727
010-3007-523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상구
● 2층건물중 2층, 24평
● 삼존불, 지장, 신중, 영가단,
각 후불탱화, 친견실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즉시법회 가능
시설A급,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6-557-206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 오산시내에서
10분거리
● 법당 약 15평, 요사채 20평
● 건물과 시설일체 양도
(석가모니불, 문수, 보현)
● 가액 : 7천만원
010-9915-578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중구 신당5동
3층건물중 3층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 1700만원
● 집기일체완비, 즉시법회가능
019-634-3069

대형 포교원 안내(불교회관)

● 위치 : 경기도 75만 신도시
대단지아파트 중심상가
● 5층건물중 5층(160평)
● 불교대학 운영중
● 보증금 5천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절충
010-7700-7682

토 굴 안 내

● 위치 : 성주군 대가면 대천리
● 347㎡(약107평)
● 비구니에게 적합
● 가액 : 2천5백만원
053)942-3478

사 찰 중 개

● 위치 : 경기
● 부지 : 430평
● 법당 : 35평 목조
● 요사 : 90평
● 가액 : 9억(급양도)

● 위치 : 마산 근교
● 국유지 : 1200평
● 법당 : 15평
● 요사 : 30평
● 가액 : 4억(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
● 대지 180평, 건물(슬라브건물)
아래층47평,2층47평,
● 심야전기 보일러, 조립식 창고10평
● 법당완벽 설비, 석축 조경 완벽
갖추었음. 자연우물
● 가액 : 1억 5천5백만원
016-294-0261
010-7355-7388

별장식 토굴안내

● 위치 : 춘천시 강촌근교
● 건물 : 한옥식 휴식공간
● 평수 : 130평
(종중땅:도지는 묘지벌초로 대체)
● 내용 : 건축물 등기 완비
(방3,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정원)
● 가액 : 6천만원(절충가능)
※망중한을 즐길 수 있는 아란야
010-6312-863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대지 1206㎡, 임야 130㎡,
요사 198㎡, 대웅전 109㎡,
삼성각 30㎡, 7층 석탑
● 실 사용평수 약 600평 ● 정남향
● 산세수려, 진입로 포장
● 가액 : 보신 후 협의 요
011-9143-0098

30년 서울도심 포교당

● 서울 중심에서 30여년을 포교에만
전념해 왔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부득이 인연을 찾습니다
● 4층 건물의 3-4층 (각 60평)
● 시설 최고 (진신사리 봉안)
● 보증금, 시설비 포함 4억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7339-868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전남 광주시 월산동
● 대지 52평, 1, 2층 건물
● 가액 : 1억7천만원 (전세 7천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7-602-9779

대 형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포교의 중심지
아파트 밀집지역
(대도로옆, 전철역 입구)
● 평수 : 150평
● 법당, 요사, 주방 등 현대식
최신식 최상급시설
냉,난방 등 일체 시설 완비
● 보증금 1억 / 월 200만원 / 시설비 9천만원
● 신축불사 관계로 급 안내함
011-594-152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노원구 상계역 부근(4호선)
● 평수 : 34평
● 2층 : 법당, 주지실, 3층 : 방3, 주방, 세면실
● 보증금 1100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1-888-0130

불자정보 뒷면에 계속 ⇨

지친 내 몸에 '자연의 생기'를…

현대인들을 위한 건강식 – '생식'

찬바람이 부는 요즘, 보약과 생식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중에서도 생식은 기름지고 가공된 인스턴트 음식에 둘러싸인 현대인들에게 최상의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생식(生食)은 화식(火食)의 반대로 음식을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을 뜻하는데 자연식품이 가진 영양소를 인체에 바로 전달해 주는 장점이 있다. 영양소 손실 없이 자연 그대로 취하여 충분한 영양의 섭취가 가능한 까닭에 소식(小食)을 통해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자들의 치유 목적이나 수행하는 스님들의 식사대용으로 주로 사용된 생식.

근대 선지식으로 추앙받는 수월 스님은 지리산 우번대에서 생쌀과 황정, 칡뿌리, 풋콩, 솔잎 등으로 생식하며 수행했다. 또 송광사 중흥조로 알려진 구산 스님도 평소 생식을 즐겼다. 특히 성철 스님은 16년간의 생식과 8년간의 장좌불와로 유명하다.

생식의 원료가 되는 곡류 · 야채 · 해조류에는 다양한 효소 · 비타민 · 미네랄 · 식이섬유 등이 들어 있으며, 효소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비타민은 인체의 윤활유로 항산화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올바로 섭취하면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된다. 또한 미네랄은 체액의 산도와 신경계의 균형을 조절하며, 식이섬유는 변비해소와 숙변을 제거함은 물론 장과 혈관의 노폐물까지 배출해 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생식을 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바뀔까? 김수경 소장(한국대체의학연구소)에 따르면 생식은 복용 후 40일쯤부터 변화가 느껴지고 300일은 지나야 비로소 완전한 효과를 본다. 또한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이 잘되게 하며 체질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기력 보충과 세포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라고 김 소장은 덧붙인다.

기력 보충·노화방지 등 효과
영양식·다이어트식으로 인기

요즈음 생식은 웰빙 바람을 타고 식사대용에서 기능성 건강식, 식사 대체 건강식, 어린이 영양식, 다이어트식 등으로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더욱이 생활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자연건강식인 생식을 찾는 사람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다양한 제품들 속에서 소비자가 고르고 따져봐야 할 것이 있다. 시중에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상품들 속에서 좋은 생식을 올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 요령은 분명히 있다.


생식은 좋은 재료를 사용, 영양소 파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제공=원주 생식>

생식연구가 원주 스님(무상사 주지)은 "생식은 좋은 원료가 중요하다. 그 다음이 좋은 원료들을 적절히 배합하고 영양분을 오롯이 보존하도록 가공하는 것"이라며 원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생식을 고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첫째, 물에 타서 우선 마셔보라는 것이다. 너무 역하거나 비린 맛이 나거나 느끼한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둘째, 영양소 파괴를 막는 급속 동결 건조방식인지를 확인한다. 생수에 풀어 10분 정도 두었을 때 4~5개의 층으로 분류가 되면 동결 건조된 제품이고 층으로 나뉘지 않고 미숫가루처럼 물 전체에 풀처럼 풀어져 있는 생식은 열을 가한 제품이다.

셋째, 품질관리와 인증을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올 가을, 여름내 지친 내 몸에 생식으로 건강한 활력을 주는 것은 어떨까.

조동섭 기자


health 건강 칼럼 column

7. 환절기 건강관리

최근 환절기 질환으로 한의원을 찾는 환자가 부쩍 늘었다. 대부분의 환자는 감기, 비염, 피부건조증, 알레르기 질환 등으로 내원하고 있다. 한낮과 저녁의 심한 기온차로 인체의 적응력이 떨어지게 돼 우리 몸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항할 힘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쉽게 피로해지고 저항 능력이 떨어지게 돼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듯 환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질환에 미리 대비하여 예방법을 알아보자.

환절기의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감기를 들 수 있다. 한의학에서 감기의 원인은 한사(寒邪)로 본다. 나쁜 차가운 기운인 한사가 인체 내에 들어와 폐(肺)의 기(氣)가 약하여 생긴다. 또한 한사(寒邪)가 인체로 들어와 저항력을 떨어뜨리고 공기 중 습도가 줄어들면서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는 환절기 때는 발병률이 높아지게 된다.



심한 일교차로 인체 적응력 감소
감기·비염 등 질환 발생 유의해야

감기에 걸리면 흔히 콧물, 재채기, 기침, 발열, 목 아픔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대개 1주일 정도 지나면 저절로 낫지만 경우에 따라서 기관지염, 폐렴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지면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보는 것이 좋다.

감기증상이 보이는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외출 후 손을 씻어 주어야 하며,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과로를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한다. 기침, 콧물이 심할 때에는 뜨거운 꿀차, 레몬차, 생강차 등을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 환절기에 조심해야 할 질환이 비염이다. 아침에 일어나 걸어 나올 때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를 한다면 십중팔구 비염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된다. 체질적으로 비염은 냉한 사람에게 많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 주고 전신의 혈액순환을 도와 코 점막을 부드럽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비염 환자에게는 단순히 콧물을 멈추게 하는 치료보다는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으로 심폐기능을 강화시키고 환절기에는 무리하지 않는 생활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편 비염예방에 좋은 음식으로는 생강과 계피를 2대1의 비율로 달여 아침과 잠자기 전에 마시면 증상을 완화 시킬 수 있다.

또한 일교차가 심한 가을의 건조한 바람은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 피부 건조증을 유발한다. 한의학에서는 피부 건조증의 원인을 폐 기능 저하로 본다. 폐는 위기를 운행, 피부와 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을 하므로 폐 기능이 저하되면 피부는 윤택함을 잃고 건조해지기 쉽다. 그러므로 폐에 좋은 인진쑥, 당귀 등의 한약재를 달여 목욕물에 타서 목욕하면 효과가 좋다. 또한 목욕 후 3분 내에 오일이나 로션을 발라 수분 증발을 막아야 한다.

이외에도 환절기에는 집먼지 진드기 등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물질의 증가로 여러 가지 알레르기 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환절기에 심혈관계통의 질환이 있는 노인들은 특히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하겠다.

모든 병이 그렇듯이 병에 걸린 후 치료하기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균형이 있는 영양식을 섭취하여 양호한 전신 건강상태를 유지하면서 질병으로부터의 저항력을 높여주는 것이 좋다. 또한 일교차가 큰 만큼 긴소매 옷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적정 체온 유지에 신경쓰는 관리가 필요하다.

■ 여동현(소중한몸한의원 원장)
(WWW.1075LOVE.COM)


투자전문가 우승택의 투·자·강·좌 2

'萬法唯識'… 모두 마음 아닌 것은 없다

투자전문가 우승택(삼성증권 자산클리닉센터장)씨의 '투자는 아무나 하나, 유식(唯識)으로 하는 투자학'의 두 번째 강좌인 '앙드레 코스탈라니의 투자철학'의 내용을 요약 · 정리했다.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를 보면 '소유의 모드(Having Mode)'로 사는 사람과 '존재의 모드(Being Mode)'로 사는 사람 두 부류가 있다. 전자는 내 돈, 내 주식 등의 망상에 사로잡혀 업(業)대로 사는 삶이어서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유견(有見)에 갇혀 사는 삶이다. 반대로 후자는 불교적으로는 무아(無我)의 삶, 관자재의 삶을 뜻한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소유의 모드'로 묶인 내 몸을 '존재의 모드'로 열리게 일깨우는 진언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이름 붙인 것 뿐이다.

부처님은 진리란 오랜 전통이 있다 해서, 권위가 있는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 길이라 해서 진리라 믿지 말고 스스로 증득하라고 했다. 이를 증권시장에 적용하면 경제신문에 어떤 기사가 나고 어떤 소문이 들려도 섣불리 믿지 말고 스스로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헝가리 출신의 앙드레 코스탈라니는 철학과 예술사를 전공한 월가의 투자자다. 그는 증권시장을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정글이라 표현하고 컴퓨터 대신 머리로 생각할 것을 주문했다.

증권시장은 환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그의 기본철학으로 대중의 집단심리가 수급을 결정한다고 봤다. 집단심리는 결국 마음을 뜻한다. 마음을 알고 읽을 수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다. 한 예로 주식의 거래량 증가를 두고 대중적 관심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안정적인 상황이라 해석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코스탈라니에 따르면 이는 깨달은 큰손이 깨닫지 못한 다수의 개미들에게 물건을 넘기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부처님의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 해서 진리가 아니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코스탈라니는 대다수의 투자자는 전쟁터의 깃발 따라 행군하다가 깃발이 안보이면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는 병사들과 같다며 대중심리에 감염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현명한 투자자는 사색가여야 한다고 했다. 사고를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명상이고 선이다. 증권시장에서 (소유의 모드로 살아가는) 중생들의 생각을 지켜보고 (존재의 모드에서) 관할 줄 아는 자가 현명한 투자자다.

주식은 무엇을 살 것인지 보다 언제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쌀 때 사서 쌀 때 던져버리는 일을 수없이 반복한다. 또한 그들은 주식이 오르면 고소공포증으로 팔아버려 결국 부자가 되지 못한다. 시장은 겁을 먹어야지 놀라서는 안된다. 이것이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무유공포(無有恐怖)다. 코스탈라니는 환상과 상상이 성공의 전제조건이며 예측의 엔진이라 했다. 환상과 상상은 다름 아닌 공과 연기의 세계다. 마음을 아는 것은 세상을 아는 것이다. (02)735-2428 정리=조동섭 기자

불자정보 651호

▷접수처
TEL 02) 2004-8215
732-1522(直)
FAX 02) 737-0696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봉황동
- 평수 40평, 2층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 300만원
- 현재 운영중
010-8839-1890

사찰및사찰터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율하동
- 대지 204평, 법당 20평
- 가액 : 5억 5천
- 대구시내 전지역 2억5천~ 20억까지
사찰전문안내
019-534-7239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밀양
- 200년된 목조법당 13평
- 산신각, 용왕당, 요사채 40평
- 스님사정에 의해 집기일체양도
-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중턱 사찰입구까지 차량진입
- 가액 : 9천5백만원
054)654-6539
011-881-9064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길음동 지하철4호선 길음역 1분거리
- 3층, 약 2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11-358-4252

포교당임대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 건평 40평(3층건물중 2층)
- 가액 : 8천만원 (전세 5천만원, 시설비3천만원)
- 현재 법회가 열리고 있으며, 사정상 양도하고자 함
053)759-0108
011-506-2282

토굴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대가면
- 대지 : 130평
- 건평 : 약20평
- 칠봉산 기도처로 유명하며 전원주택용으로도 용이함
- 가액 : 3천 5백만원
016-533-5100

도심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부근 (동묘역 앞)
- 평수 30평, 3층건물 2층 법당1, 방2, 보일러 및 주방 시설 완비
- 현재 포교원으로 사용중이나 일반 점포로도 사용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120만원 (보증금 3천만원, 월100만원)
011-310-0361
02)2236-036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시흥시 정왕동 최고중심지 상권
- 시설완비
- 법당, 주방, 방2
- 철학하시는 스님 적합
- 전세 4500만원 가액 1억원
010-4527-4849

천하명당 절터 안내
- 위치 : 경북 성주 읍내
- 대지 : 300평
- 건평 : 2동 80평
- 준농지(관리지역) : 2000평
- 가액 : 4억7천만원
017-531-2888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74-7외 4건
- 평수 : 2,100평
- 가액 : 1억2천만원(절충가능)
- 포장도로 접함, 토목 석축 완료
- 풍수적 최고의 명당터
011-9837-8668
061)362-9863

사찰안내
- 위치 : 김천시내에서 5분거리
- 대지 : 470평
- 법당 30평, 산신각 2평, 요사채 30평, 10평
- 심야전기, 조경이 되어있고 앞에는 계곡
- 가액 : 3억원
016-274-3170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3동
- 법당 및 방2
- 보증금 5백만원, 월23만원 시설비 : 답사후 절충
- 역학스님, 법사님, 보살님 최고위치
052)260-2781(스님)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청도 운문면
- 평수 : 약 940평
- 가액 : 평당 3만원
- 산세좋음 전기, 진입로 연결
018-507-2752
054)371-4104

토굴안내
- 위치 : 해운대 기장
- 대지 : 56평
- 건평 : 20평
- 즉시 입주가능
- 가액 : 1억5천만원
018-561-5364

임법당 주택안내
- 위치 : 부산 구포동 구포시장 위
- 대지 : 40평 1층 슬라브 30평(법당 15평) 2층 신축법당 허가 有
- 8m 도로 주택지 사거리 코너 향후 재개발 예정지
- 가액 : 1억5천5백만원
010-2563-5550

일반주택(임법당)안내
- 위치 : 진주시내에서 의령방향으로 10분이내
- 대지 : 200평
- 집 두채(한채는 창고 겸함) 방 3개 : 임법당1, 방2
- 가액 : 적정금액 양도
017-587-7193

사찰(터)안내
- 위치 : 충남 천안 병촌
- 부지 : 780평, 요사채 40평
- 대웅전 18평, 지상전 20평
- 공사 70%완성 진행중
- 가액 : 4억원
011-339-1946
011-294-8497

사찰임법당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하북면 내원사 입구
- 보증금 : 1천만원, 월세 20만원 시설비(시설 및 모든비품)2천만원
- 방3, 거실, 화장실- 실내2개, 옥외1개
- 평수 170평, 건평50평
- 모든 시설완비, 법회가능
010-5730-5567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창원
- 특징 : 3불 부처님, 탱화,
- 모든소지품, 타종 인수하실분
- 300만원 (창원 스님이면 더욱 좋습니다)
055)237-0032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대가면
- 대지 : 130평
- 건평 : 약20평
- 칠봉산 기도처로 유명하며 전원주택용으로도 용이함
- 가액 : 3천 5백만원
016-533-5100

토굴안내
- 위치 : 경남 함양
- 종교부지 : 약500평, 건물 3동
- 가액 : 9천5백만원
- 위치 : 경주
- 대지 : 250평
- 가액 : 3천만원
011-884-3006



불자 세상보기

김 상 수
서강대학교 법학부 교수

로스쿨의 '용량'과 '취지'

로스쿨은 좋은 변호사를 양성하겠다는 교육기관이다. 단순히 생각한다면 한나라의 황제가 된 유방에게 한신이 말한 병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의 일화에서 보듯이 좋은 변호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듯한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의 선조들이 경험한 조선시대의 과거에 급제하는 것은 지금의 변호사보다 좋았을 것이다. 약 70만자인 사서삼경을 열심히 암기하면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고, 급제하면 대략 3족이 흥한다고들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 급제한 사람은 늘어나지만 한편으로 농업이 기본인 조선시대에는 공직이 많지 않고, 적은 공직을 둘러싼 자리싸움이 벌어져 결국 당파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과거급제자 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공직을 늘리는 것이다.

과거제도가 사라진 지금, 변호사가 되면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것일까. 변호사는 법의 전문가로서 법을 어떻게 만들면 유리한지 잘 안다는 점도 물론 상식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변호사가 되면 좋은 것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되면 좋은 것, 첫 번째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재판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재판의 대리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고 변호사법에 의해 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것만을 법에 규정한다면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우회적으로 소송을 부탁하는 신탁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제정되고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은 신탁법은 이 점에 대해서도 어김없이 소송을 위한 신탁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재판에서 대리인이 되려면 변호사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래도 변호사라는 국가자격이 필요한 이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변호사자격이 있어야 될 수 있는 공직이 있다. 누구나 잘 아는 판사와 검사이다. 판사와 검사는 법과 관련된 중요한 일을 하니까 이러한 부분도 의사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고위 공직 중에는 변호사만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최고의 공직인 대통령은 변호사가 아니라도 선거에 당선되면 될 수 있다. 대통령 다음의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도 변호사일 필요는 없다. 그런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과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은 반드시 변호사자격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에 버금가는 현직(顯職)인 대법관과 재판관 도합 22명은 대략 1만명 정도인 변호사자격자만이 차지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꼭 변호사일 필요는 없지만 변호사를 우대하는 법률은 상당수 존재한다.

그런데 국민은 변호사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사법연수원 수료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판사와 검사에게는 공직을 수행한다고 지원을 하고 변호사에게는 분쟁을 처리해준다고 대개 보험도 없이 수임료를 준다. 여기에 중요한 공직까지 자리를 양보하고 있다. 결국 변호사가 좋은 자리인 이유는 국민이 도와주기 때문이다.

로스쿨의 취지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물론 로스쿨에 입학하는 모두가 좋은 변호사가 될 수는 없다. 기회를 주되 좋은 변호사인지 아닌지 로스쿨과 새로운 사법시험에서 고를 수밖에 없다. 좋은 변호사가 많을수록 좋다는 점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면 사회에 배출되는 좋은 변호사를 처음부터 줄이려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좋은 변호사를 몇 명 정도 만들지는 우선 교육기관인 로스쿨의 손에 달려 있다. 적절한 수의 좋은 변호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로스쿨에서는 그만큼 교육하고 교육받을 기회를 부여하면 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좋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알게 된 학생은 아쉽지만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고 납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차피 로스쿨의 교육용량에는 한계가 있다. 로스쿨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어떻게 하면 좋은 변호사를 길러낼 수 있을지가 문제되지 좋은 변호사를 많이 길러내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해하기 힘들다. 좋은 인재는 길러내면 낼수록 좋은 것이 아닐까.

불자의 눈

마곡사의 공정선거를 기대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상호 비방과 합법적이지 않은 수단을 사용 않을 것,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마곡사 차기 주지 선거에 출마한 양산, 법용, 무일, 원혜 스님이 이 3가지를 서약했다. 구두 서약이 아니라 서약서에 서명을 했다. 10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앞에서다. 공정선거 투명선거에 대한 의지가 대단하다.

마곡사 주지 선거는 이미 그 타락상이 전국에 알려져 버렸다. 거기다 주지스님이 비리로 구속되는 바람에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깨끗한 선거 잡음 없는 선거는 종단의 위신과도 직결되어 있다. 입후보한 스님 네 분이 이의 없이 공정선거 서약을 했고 총무원장스님의 각별한 부탁도 있었다니, 마곡사의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의 장점과 효율성을 유감없이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사실 마곡사 뿐 아니라 많은 교구본사가 선거 때문에 위계가 깨지고 분열이 조장된다는 우려를 해 왔다. 오죽하면 "선거 때문에 종단 망한다"는 말까지 나왔을까? 그래서 일부에선 선거제도를 철폐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또 다른 쪽에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으니 선거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틀을 만들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어느 사회나 악법은 존재한다. 문제는 악법이 원래 악법인 경우보다는 사람들이 운영을 잘 못하여 악법으로 만드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조계종의 선거제도도 그런 측면이 있다. 공공연하게 금품을 살포하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정치수를 쓰는 것이 관례로 인식되는 수준까지 왔다. 그러는 가운데 종단은 여기저기서 멍이 들기 시작했고 이제 치료시기를 놓치기 전에 강한 처방을 하자는 분위기다. 이달 31일 치러지는 마곡사 선거는 조계종의 선거제도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란 측면에서 주목되는 바가 상당히 크다.

'10·27' 더 큰 논의를 할 때다

해마다 10월이면 가슴이 아파오는 스님들이 있다. 1980년 10월 27일을 잊지 못하는 불자들이 있다. 무장 군인들의 무자비한 군화발이 법당을 휩쓸고 다니고 스님들이 강제로 연행돼 고문과 구타에 망신창이가 된 그 날의 기억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 아픈 기억은 세월이 가도 새록새록 한데, 그날의 '역사'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역사 속으로 묻혀가고 있다. '10·27 법난'으로 이름 지어진 그 참담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극히 미진했고 불교계의 명예회복 노력 역시 미약했다.

어느새 20년이 지났지만 이제 겨우 사건 뒤의 사건들을 파헤치는 일련의 성과가 발표 되었을 뿐이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과거사위)가 10월 25일 그간 진행해 온 10·27 법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두환 前 대통령이 사건 전후의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짙게 보고됐고, 매우 의도적이고 치밀한 계획 하에 일어난 불교탄압이란 점,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이 신군부의 뜻에 반하는 성향이었던 것이 사건 촉발의 가장 직접적인 이유였다는 점 등이 보고됐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 이 같은 조사 내용은 조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건의 동기나 과정을 분명하게 밝히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그에 대한 응분의 보상 등이 폭넓게 논의되어야 한다. 이제 그 때가 왔다.

'종교자유' 칼럼 33. 김영삼 前 대통령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종교적 편견으로 꽉 막힌 장로 대통령, 종교갈등 부추기다

올해 7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불교 · 개신교 · 가톨릭 등 3대 종교 지도자 300명을 대상으로 '정치와 종교'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종교편향적이었던 대통령으로 1위가 김영삼 대통령(42.7%), 2위는 이승만 대통령(30.0%)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스님 70.8%와 신부 48.9%가 김영삼 대통령을 꼽은 데 반해, 흥미롭게도 목사의 경우 8.9%만이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답한 반면 50%가 이승만 대통령을 꼽은 것을 보면 종교간 미묘한 정서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역대 대통령중 가장 종교편향적인 대통령 1위로 꼽힌 김영삼 前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 종교 챙기는 데 극치를 이룬 것은 '국군중앙교회 예배사건'일 것이다. 그가 1996년 1월 21일 국방부 내 중앙교회에서 김광일 비서실장, 이양호 국방장관, 권영해 안기부장 등 공직자들을 대동하여 공개적으로 일요예배를 보는 모습은 TV와 신문을 통해 전 국민에게 보도되었다.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에 무지한 김영삼 정권의 장로집단에게 종교간 형평이나 군대의 사기 문제는 안중에도 없었다. 최고통수권자라면 마땅히 다른 종교시설도 둘러보고 그 종교를 가진 장병들도 격려해야 한다.

더구나 개신교 장병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 이미 정해져 있던 당일의 일직과 당직을 모두 불교인 또는 가톨릭 장병으로 강제로 바꾸었고 경호상의 이유로 법당과 성당의 출입까지 통제하였다. 이 무슨 해괴한 공권력인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확립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타종교 장병들의 종교적 기본권을 박탈했다는 위헌적인 일이 빚어진 것이다.

90년대 초 걸프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H.W.부시(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가 이라크 전장을 둘러볼 때 개신교 병사들로부터 예배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받았지만, 그는 "미국의 군대는 개신교 군대가 아니다. 비록 내 종교가 개신교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특정한 종교의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병사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종교의 의식에도 참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타종교 병사들의 사기는 어떻게 하나"라면서 정중히 거절한 적이 있다고 한다. 헌법수호를 선서한 대통령의 처신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나침판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사회통합을 외면하는 현실이 왜 우리나라가 선진국가가 되기엔 아직 이르다는 것인지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김영삼 前 대통령의 또 하나의 종교편견 사례. 그를 대통령으로 모셨던 이수성 前 국무총리는 가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만해상 심사위원장과 해인사 동판불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만해라는 인물과 팔만대장경이라는 인류문화유산은 종교와 무관하게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만한 정신적 자산이라는 불교계의 설명에 일리가 있다는 판단에서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가 2년여 전 동판불사위원장을 맡으면서 국민모금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전직 대통령들을 찾아다니며 상임고문으로 모시고 싶다는 뜻을 전했을 때,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좋은 일 하느라 수고가 많다"고 격려해준 데 반해, 유독 김영삼 대통령만은 "곤란한데…"라며 거절했다고 한다.

국가의 최고지도자라면 개인의 종교를 떠나 자국의 전통문화가 인류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데 대해 자긍심을 가져야 마땅하고 그 보존사업에 동의정도는 해줄 아량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취임 첫해 11월에 내한한 일본의 호소가와 총리가 불국사를 참배할 때도 다소곳이 합장하는 총리와는 대조적으로 뻣뻣이 서 있던 장로 대통령의 그 옹졸한 모습에 국민들은 부끄러워했다. 고집불통의 이미지가 민주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는 도움 되었을지 모르겠으나, 반면에 문화의식이 부족하고 특히 종교적인 편견이 심해 개신교 장로와 대통령 신분을 구분 못하였기에 그의 재임기간 동안 타종교인들은 많은 상처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최근 우리 사회의 반기독교 정서는 어쩌면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커지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도 해 본다.

김영삼 장로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그가 스스로 즐겨 쓰던 대도무문(大道無門)은 과연 어떤 뜻으로 마음에 새겼는지 궁금하다. '문은커녕 담조차 없이 완전히 열린 상태'가 아니라 '쪽문 하나도 없이 꽉 막힌 답벼락'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5,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오복중에 하나인 치아는 관리를 안하면 순식간에 허물어져 이를 뽑고 수 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을 들여 의치를 하게 된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것이 이가 아픈것이다.

사람들은 이가 아플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연구 끝에 2006. 4. 28에 미합중국 발명대회 특허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치아가 윤택을 내며 하얀 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체국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1

부처님 향한 간절함, 이웃 위한 따뜻함, 모든 번뇌 소멸위한 '한마음'

지난 19일, 가을이 한창인 산사에 오색단풍을 무색할 정도로 기온이 뚝 떨어졌다. 비까지 내린 사자산의 체감온도는 마치 겨울의 한 복판에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다. 이러한 추위 속에서도 108산사순례기도회원들의 수행 열기는 식지 않았다. 오히려 후끈 달아올랐다.

"기도하는 사람이 육체적 힘듦 정도는 감수해야죠." "이 모든 것이 수행이죠." "중생이라면 당연히 힘들고 불편하죠.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자산 적멸보궁 법흥사에 도착한 108산사순례기도회원들의 부처님을 향한 구도의 열정은 한결같아 보였다. 사자산이 한눈에 바로보이는 흥녕선원지 근처에 임시로 마련된 주차장에서 출발한 회원들은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기도 장소인 적멸보궁을 향했다. 열네번째로 진행된 이번 사자산 적멸보궁 법흥사 순례길을 날씨 못지않게 제법 긴거리를 걸어야 했다. 게다가 경내에서 적멸보궁까지는 언덕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다.

제2보궁(약사전)에 도착했을 때, 한 보살이 발길을 멈춰 섰다. 턱까지 차오른 숨을 고르기 위해서다. 그는 "108산사 회원들은 편함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걷는 것도 수행이다."며 이마에 흐른 땀을 닦은 후 곧바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부처님께서는 "보살은 큰 자비심을 으뜸으로 하여 지혜를 증장시켜 범부의 틀에서 벗어나 여래의 품안으로 든다"고 말씀하셨다. 108산사순례기도회원들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적멸보궁 품안에 들기 위해 지혜광명의 성지 법흥사 적멸보궁을 향해 열심히 걷고 또 걷는다. 특히,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말 그대로 고행길이지만 그 열정은 젊은 사람 못지않다.

마침내 적멸보궁에 도착한 회원들은 모두들 익숙하게 각자 준비한 돗자리를 깔고 기도에 들어간다. 『천수경』독송, 108참회, 발원문 낭독 등 순례법회는 기존 사찰에서처럼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법회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답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바른신행실천운동'이다.

이 자리에서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주 선묵 혜자스님은 지침 중 특히 "이웃과 남을 비방하는 말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하며 "복 짓기 위해서 기도를 다니는 것인데, 남을 탓하고 비방한다면 아무런 공덕이 없으니, 만나는 사람마다 자비스럽고 부드러운 말만해 만 가지 덕과 복을 짓자"며 실천지침을 생활화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법흥사 주지 도완 스님은 "혜자 스님이 108산사순례기도회를 열정적으로 이끄는 것을 보고 신심이 나고 존경심이 생겼다"며 "새로운 포교의 장과 신행을 가꿔나가고 있는 회원들에게 신장님이 지켜 주고 온 국민이 박수치며 바라보고 있다" 환영의 말을 전했다. 이어 "화두 중에 '판치생모'가 있는데, 이 뜻은 '이에서 털이 나오는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108산사순례기도회가 이 '판치생모' 정신으로 수행해서 깨닫기를 바란다"며 화두를 깨치듯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당부를 했다.

순례기도가 끝난 뒤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원들은 다시 제2보궁(약사전)으로 내려와 108산사 책에 낙관을, 그리고 적멸보궁에서 '법흥사'가 새겨진 염주알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법흥사 주지 도완 스님은 사자산 연화봉에서 부처님이 방광하는 의미가 담긴 문장이 새겨진 핸드폰 고리를 모든 회원들에게 일일이 나눠줬다. 한편 극락전 앞에는 영월지역 농특산물이 선보였다. 적멸보궁에서 기도를 마친 회원들은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찾아 농촌사랑에도 동참했다. 감자떡과 더덕 등을 한보따리 구입한 한 회원은 "올 때는 군장병들을 위해 초코파이를, 돌아갈 때는 농촌사랑을 위해 농특산물을 한아름 안고 간다"며 즐거워했다.

108산사순례기도회원들이 사자산 적멸보궁 순례법회를 마치고 버스에 오를 때,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산사에는 어둠과 함께 추위도 찾아왔다. 하지만 돌아가는 회원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 보였다.

하루종일 일심으로 기도하고, 장병사랑, 환경사랑, 농촌사랑을 펼쳤기 때문이 아닐까. 특히, 이번 법흥사 순례법회에서 부처님을 향한 간절함과 이웃을 위한 따뜻함 그리고 모든 번뇌를 소멸코자 하는 일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문경 | 글 · 사진=고영배 기자

협찬 : 108산사순례기도회


2


3

❶ 적멸보궁에서 기도하는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원.
❷ 군장병을 위한 초코파이 탑이 만들어졌다.
❸ 영월지역의 특산물을 사는 회원들.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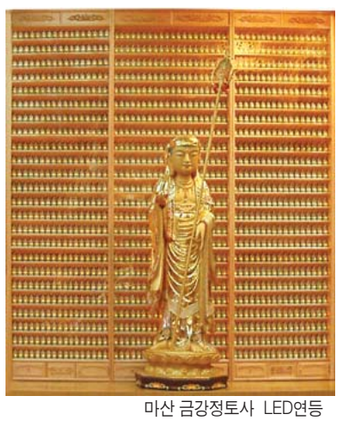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연등


수원 팔달사 영구위패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팔각봉축접등

※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부산 해운대 법륜사 법당 남양주 영도암 인등 군산상주사 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